DEC 1 5 1981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694 1981년12월12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Saturday, December 12, 1981

토론토발행인 : 김 영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캐나다조선업계 거센 반발
한국선박 캐나다 수출에 제동
돔석유회사, 석유탐사선 직접생산

한국조선업계가 장기적으로 캐나다 선박시장에 침투계획이 캐나다 선박업자들의 항의로 제동이 걸렸다.
캐나다 조선공업계는 8일 성명을 발표, 캐나다 정부는 외국조선회사들의 캐나다시장 침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헨리·웰시 조선공업협회장은 관계부처를 방문, 캐나다 국내업자 보호를 위해 한국을 비롯, 일본, 유럽등지로 부터의 선박주문을 금지시키는는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연합통신」은 보도했다.

웰시회장은 "정부는 외국제조 선박에 대해 중과세 정책을 펴 수입선박을 줄이고 캐나다산 선박으로 석유탐사선, 일반화물선의 수요를 충당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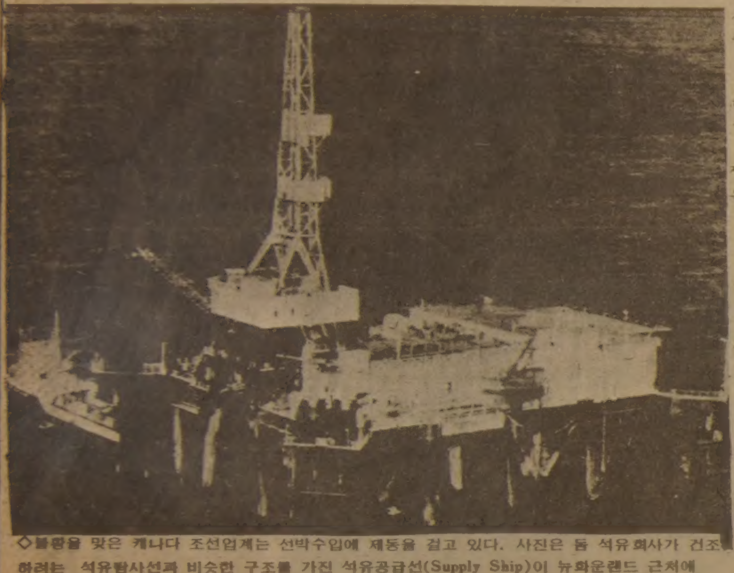
이 성명은 최근 뉴포드해에서 유정을 발견한 돔석유회사가 석유탐사선등이 필요해 제조하기로 결정한데 뒤이은 것이다.

돔석유회사는 최근 뉴포드해에서 매장량 수십억배럴로 추정되는 유전을 발견, 이에 필요한 탐사선을 직접 제작키로 했다.

현재 캐나다에서의 선박제조 비용은 외국산을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전개발에는 1척에 약 300만 달러가 드는 100여척의 탐사선이 필요하다.

최근 캐나다선박 시장을 노리던 한국은 세계 10위권내에 드는 조선국으로 약 4백만 메트릭톤의 선박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세계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시련을 겪고 있다.



◇불황을 맞은 캐나다 조선업계는 선박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사진은 돔 석유회사가 건조하려는 석유탐사선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석유공급선(Supply Ship)이 뉴화운랜드 근처에 머물고 있는 장면이다.

리비아기 납치범 항복
항공기및 승객 36명 안착

(베이루트)36명의 승객을 인질로 잡고 60시간 동안 리비아 상공을 배회하던 리비아항공 소속 보잉 727기 납치범들은 9일 레바논보안군에 항복, 베이루트에 안착했다.

납치범들은 모슬렘 교파의 극렬분자들로서 이들은 리비아가 그들의 정신적지도자인 이맘·무사사드르를 비밀리에 체포하고 있다고 주장, 이같은 납치극을 벌였으나 리비아는 이를 부인했다.

이맘·무사·사드르는 3년전 트리폴리공항에서 실종됐었다.

납치된 보잉 727기는 파라를 이륙한 다음 리비아의 트리폴리로 향하던 중 7일 이탈리아 상공에서공중납치됐었다.

社說
한인회관 이전문제
— 다수교포가 이전희망 —

토론토한인회관관리위원회가 한인회및 동이사회의 뒷받침을 힘입어 추진중인 「한인회관 이전문제」는 공청회 개최와 임시총회 소집광고등 급속도로 착착 진행되다가, 교민들의 의견·요망사항등을 청취하는데서 그치고, 갑자기 임시총회 소집을 연기하여 바싹 고삐를 당겼다가 맥없이 놓아버린 인상을 주고 있다.

관리위원회측이 공청회를 마련한 동기는 수개월간에 걸쳐 위치, 가격, 규모(건물크기), 주차장, 교통편리점등을 참작, 마땅한 후보건물을 수소문중, 가격과 위치면에서 적임처가 나져, 화급히 ① 회관이전에 대한 교민의견 타진, ②의중의 후보건물에 대한 찬반의사 종합등의 절차를 거쳐, 한인회 임시총회에서의 최종결정에 따라 그 향방을 마무리짓기로 예정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현회관 건물을 사주었던 한국정부— 그 교두보인 총영사관측이 현 건물로부터의 타처이전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비쳤고, 공청회 석상 비록 2:1 정도의 약세이긴 하였으나 일부인사의 이전반대, 또는 이전신중론에 당면하자, 애초 광고까지 내어 지난 12일 한인회당국이 자진 열기로 광고까지 낸바 있는 임시총회 개최를 연기일자 결정도 없이 미루어 버린 것은, 그들이 내세우는"교포들의 의견을 널리 알아보기 위해서"라는 단순한 이유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 무엇을 느끼게 해준다. 즉 공청회에 이어, 곧 총회개최라는 공고까지 해놓고,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하려던 최초의 의욕이며 계획이 왜 갑자기 좌절(무기한 연기)되었는가 말이다.

지난번 공청회 석상의 대다수 의견도 그랬거니와 한인회 이전은 거의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이유로 아래 두가지를 우선 꼽을 수 있겠다.

① 회관은 교민들이 쉽게, 자주 드나들 수 있고,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도심지에 자리해야 마땅하다.

② 특히 주말마다 교민들이 많이 모여드는 한인상가(Bloor St. W.)에 있어야 많이 모일 수 있으며, 각종 의견회의에 성원을 이루기 쉬우며, 매상고 증가등 교포가게들의 경기앙양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교통불편, 개인들의 이용도 희박, 회의장의 협소등 면에서 현회관은 이상적 건물이 못됨은 냉정한 평가이다.

한편, 공청회에 주관처가 내놓은 문제의 후보건물은 ① 교통편리, ②한인상가에 위치함, ③현회관보다 크며 쓸모 있음, ④대여용 사무실 여럿이 있어, 그 월세로 회관관리비 충당 가능, ⑤싯가보다 싼 점등 장점이 있으나 장의사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이 공청회에서 일부교민의 반대에 부딪쳤던 것이다.

파학만능을 구가하는 21세기 문턱, 더구나 선진사회에 와서까지 동양적 유교적 구식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불길하다느니 께름칙하다는 등의 기피론은 논거가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집값·위치·넓이등 호조건의 다른 건물이 있으면야 누가 굳이 장의사터를 주장하겠는가 ?

같은 조건이라면 다른 건물로 가는 편이 일부교민의 께름칙한 기우를 씻어주고, 서로가 다 유쾌한 일일 것이다.

만약 같은 값의, 좋은 위치의 적정건물이 나오지 않으면 "소를 놓치고 후회"하는 어리석음을 감수하게 되기 전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조속히 서둘러 총회를 열고, 가부 결판을 내리는 것이 당사자로서 현명한 처사가 될 것이다.

새로 옮기기로 결정을 보는 건물이 현회관 매각가격보다 비쌀 경우, 한인회는 앞장서서 범교민적 모금운동을 유기적으로 효과롭게 전개하여 중액보충을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은 교포사회에 생활안정, 치부(致富)의 경지에 이르른 이들이 꽤 많으니, 그들의 이해도만 높인다면 모금이 난항만은 아닐 것이다.

한편 블루어 한인상가로의 한인회관 유치 깃발을 맨먼저 올린 코리아타운번영회는 누구보다 앞서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만족할만한 실효를 거두어 주어야 마땅하다 하겠다. 수개월에 겨우 기천달러 모금으로서는 너무도 미약하다.

남을 움직이려면 자기가 먼저 움직여야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다 하겠다. 남의 주머니 속의 돈을 꺼내게 하려면 우선 제 주머니 돈부터 먼저 꺼내야 효과를 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도 순서이다. 따라서 블루어 교포상인들부터 목돈을 내놓고 나서 다른 교포들의 협조를 호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회관이전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현 회관보다 넓고 좋은 건물로 옮기려면 더욱 고액을 필요로 하니, 이전(移轉) 선창자들이 앞장서서 희사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 것이다.

선창(先唱)여부보다 회관의 한인상가 이전으로 직접, 간접으로 득을 보는 것은 그 거리에서 영업중인 교포가게일 것이니 더욱 그러하다.

〈사 고〉

= 은세계에의 초대 =
초보자를 위한 스키 강습회

호수의나라, 백설의 왕국 캐나다의 겨울은스키와 낭만의 계절입니다. 이에 여러분을 설인(雪人)의 양지로 초대하오니 많은 참가를바랍니다.

때 : 82년1월28일(목)~30일(토)2박3일
곳 : 퀘벡주에서 가장 큰 명산 MT. 세넹
회비 : $160(1인당)※개인별로가면 $280소요
※대절버스(그레이 하운드)
—콘도미니움에서 숙식
—2일간 케이블카 무료제공
—2일간 스키 무료교습
—하루저녁은 대절버스로 퀘벡시내 관광
정 원 : 신청(선착순)35명
신청처 : 한국일보사 광고부(533-2361, 2)
브랜돈 스포츠사(이건영 598-3732)

주최 : 한국일보사토론토
Brandon스포츠사

7순노인
권총강도 잡아

(LA지사) 109 S. Vermont에 있는 교포경영의「AA리커스토어」(주인 배동엽)에 흑인과 스패니시계의 2인조 권총강도가 침입, 주인을 총으로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했으나 상점밖에서 경비를 하고 있던 69세 교포노인이 이중 한명을잡았다.

7일 하오8시45분께 손님을 가장, 상점에 침입한 2인조 권총강도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갑자기라틴계 청년이 권총을 뽑아들고 주인 배동엽씨를 위협, 다른 흑인은 카운터에 있는 배씨의 부인을 드라이버로 위협하면서 돈을요구했다.

당시 상점안에는 배씨부부 이외 5명의 손님이 있었으며, 상점밖에는 배씨의 아버지 배계출(69세)옹이 허리에 권총을 휴대한 채 경비를 보고 있었다.

◇납치범들과 협상에나선 3명의 리비아인들(왼쪽)이 테헤란 공항에서협상이 결렬된후 다시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두인질범들을 지켜보고 있다.

상점안의 수상한 느낌을 눈치챈 배노인이 상점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총을 든 라틴계 청년과 마주쳤으나 동시에 허리에 찬권총을 뽑아들었다.

당황한 라틴계 청년이상점밖으로 도주하면서 배노인을 향해 2발의 총탄을발사했으나 빗나갔으며, 배노인도 공중에 1발의 공포를 발사했다.

이순간 아들 배씨는 상점안에 있던 흑인과 격투를 벌였으며, 라틴계 청년을 놓친 배노인이 재빨리 상점으로 들어가 권총으로 흑인을 겨누면서 체포, 경찰에 신고했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옆)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MARVIN STARR
취급종류
● PONTIAC : ACADIAN
PHOENIX, FIREBIRD,
LEMANS,
GRAND PRIX
PARISIENNE
● BUICK : SKYLARK
CENTURY ROYAL
RIVIERA
● 각종VAN트럭
● 데모카
● USED CAR

신 성 우
3132 EGLINTON AVE. E.
(마캄×에그린톤)
전화 : 264-2311 (PAUL SHIN)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현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2ND CLASS MAIL NO. 5240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M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SS 1A5

금세기말 핵전쟁가능성 짙어

2억인구 몰살, 인류생활양식 급변

원자탄을 처음만들때 참여했던 과학자들중 한명이 6일 20세기가 끝나기전 핵무기가 다시사용될 가능성이 짙다고 예측했다.

MIT공대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버나드·펠드 박사는 토론토 메디칼 컨퍼런스에서 핵전쟁의 결과에 대해 강연중 이번 세기가 지나가기전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50% 정도 된다고 말했다.

"핵전쟁은 명백한 가능성을 띠었으며, 핵전쟁의 주역을 담당할 세계의 두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보유한 5만 핵무기들중 상당량이 전쟁에 사용될 것"이라고 펠드박사는 내다봤다.

펠드박사는 45년 원자탄을 처음 생산한 「맨하탄계획」(Manhattan Project)에 참여한 과학자들중 일원이다.

2억인구 즉사

만약 소련과 미국사이에 전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2억의 인구가 즉사, 6천만명이 원자탄 폭발로 인한 외상, 화상, 등 원자병으로 고생할 것이라고 「핵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의사」(the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의 간부들은 말한다. 이 물리학자의 모임은 작년에 창설 보스턴에 본부를 두고 핵무기 사용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뉴욕 시립대학에서 코뮤니티·메디신(Community Medicine)을 가르치는 잭·가이거 교수는 중심가 반경 900m를 완전 쑥밭으로 만들수 있는 1메가톤의 원자탄—(45년 일본 히로시마시에 투하했던 원자탄의 80배 위력을 가짐)—은,

ㅁ62만4천명을 즉사시키고, 79만5천명에게 중상을 입힌다.

ㅁ폭발 중심부에 가까운빌딩들은 거대한 충격파로완전 무너지며, 폭발로 생긴 압축공기는 폐를 파열시키고, 뇌출혈을 일으키다.

ㅁ폭발로 유리, 벽돌조각등 파편들이 반경 21km(13 miles)까지 흩어진다.

ㅁ만약 원자탄이 폭발후에 650sq.km(250sq.mile)까지 퍼지는 불폭풍을 몰고 오면 재래식 방공호에 피신해 있는 사람들은 건조구이가 되어 질식해 죽는다.

ㅁ반경 18km(11miles)내에 있는 가옥의 커튼, 소파, 카펫및 옷들이 자연발화한다.

ㅁ9만명의 사상자에게 3도화상을 입힌다.

ㅁ반경 56km(35miles)이내의 사람으로 원자탄이 폭발한 쪽에 반사적으로 눈을 돌린 사람은 망막에 화상을 입고 눈이 먼다.

ㅁ병원시설의 80%를 폭파하거나 못쓰게 만든다. 생존한 의사들은 부상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하루에 18시간씩 적어도 2주일동안 일해야 한다. 많은 수의 희생자는 의료시설의 붕괴로 고통속에 죽어간다.

인간생활의 급격한 변화

"생존자들도 죽은 자들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가이거씨는 말하며, 핵공격으로 사회생활은 만신창이로 파괴돼, 아주 오랜기간동안 인간의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계획 당국자들이 예측하는 바로는 핵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토론토와 몬트리얼과 같은 대도시에는 2.5메가톤, 다른 캐나다 중심부에는 이보다 작은원탄이 투하될 것이다.

◇도난당한 피카소의 조각 "한 여성의 두상1906"

피카소 조각품 도난

$125,000, 토론토전시중

온타리오 미술관(Art Gallery of Ontario)에서 전시중 도난당한 피카소의조각품 "한 여성의 두상1906"에 대한 긴급수색령이 전세계에 퍼졌다.

동미술관에는 「고갱에서 무어까지」란 전시회가 개최중이었다.

구리로 된 피카소의 12만5천달러가치의 이 조각품은 7일밤 미술관이 잠겨있을 동안 사라졌다. 이 작품이 도난됐을 당시 미술관에는 경비원및 직원들만 현장에 있었다.

메트로경찰은 도난이 교묘하게 엄중한 경보장치를 건드리지 않고 이루어진것으로 보아 내부사람들에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작품 "한 여성의 두상 1906"은 파블로·피카소의 연인이자 모델이었던 페르난드·올리비에를 나타낸것으로 피카소의 작품세계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품이다.

교민동정

◆이건영(브랜돈스포츠 주식회사 대표): 과거 바시티 운동구점을 경영했으나 이번에 주식회사로 확장, 블루어로 이전했다. (337, Bloor St. W. 스파다이나와 세인·조지의 중간지점).

정구와 스키강습회로 한인교포사회에 봉사해온 이씨는 금년여름 바시티배한인야구대회를 성황리에 연바 있다. 앞으로 스포츠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 비즈네스뿐 아닌 대교민 체육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화 598-3732.

화제

보다 영향력 있는 81년도 여성 25명

81년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 25명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올해의 톱은 지난해와 변함없이 캐서린 그래함여사. 워싱턴포스트사의 회장이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그래함과 톱접으로 나란히 톱을 차지한 테니스선수 빌리·진킹.

킹은 지난 4월 옛비서가 레스비언 관계를 폭로하자 이를 솔직히 시인하여 화제에 올랐었다.

이 명단은 매년 세계연감(World Almanac)

WP지 그래함 회장과 빌리·진·킹 수위

출판사가 발표하는것, 세계연감 출판사는 미전국 1백33개 신문사에서 보내온 투표결과를 집계, 지난 1977년 부터 「영향력있는 여성」명단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각 분야별로 선정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캐서린·그래함(워싱턴포스트사 회장), [illegible]

◆예술—베벌리·실즈(뉴욕시티오페라 제네럴디렉터), 릴리안·헬만(「작은 여우들」의 작가)

◆교육·학계·과학—바바라·조단(텍사스대학교수), 제인·브라이언트·퀸(언론인·뉴스위크지 재정컬럼니스트)

◆연예—제인·폰다, 캐서린·헵번 플리·파톤, 메리·타일러·무어.

◆정부—제인·버언(시카고시장), 낸시·레이건(퍼스트·레이디), 진·커크패트릭(유엔대사), 셜리·치솜(연방하원의원)

◆미디어—엘렌·굳맨(퓰리처수상 컬럼니스트), 바바라·월터스(ABC-TV 앵커우먼),

◆스포츠—빌리·진·킹(테니스선수), 낸시·로페즈—멜톤(골프선수), 크리스·에버트—로이드(테니스선수).

유일한 한국인
강찬영변호사
537-3171

◆워싱턴포스트지의 캐서린·그래함회장(좌)와 테니스선수 빌리·진·킹이 올해의 가장 영향력있는 미여성으로 뽑혔다.

<여행안내> ①

"젊어서 여행하라"

김 창 범(신세계여행사 대표)

◇편집자주 : 김창범씨가 독자들의 여행길을 돕기위해 쓴 칼럼 <여행안내>를 게재한다.

독자여러분들의 여행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창범 씨

1. 서론

얼마전 결혼식에 초청되어 피로연에서 직석으로축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적이 있다. 나는 준비도 없이 일어나 젊은부부의결혼을 축하하고 여행을 많이하라고 권고했다. 그자리에 모였던 축하객들의폭소를 자아냈으나 여행이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었다.

여행이란 사치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젊은시절에 열심히 일하여 기반을 닦아놓고 늙어서 은퇴한후 노부부가 세계 관광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젊은시절 못했던 호강을 하자는 풍조가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 공상에 불과한가?

얼마전 지상의 파라다이스라는 하와이에 가서 와이키키 해변의 호화호텔에 머무른 적이있다. 빠쁜일정속에 조석으로 나왔다 들어갔다하는 가운데 매일현관앞을 지날때마다 발코니에 앉아있는 미국의 늙은 백발부부가 눈에 띄었다. 항상 출입하는 손님에게미소를 지으며 친절히 인사를 하기에 하루는 시간을 내서 대화를 가질기회가있었다.

그들 노부부의 말에 의하면 1주일의 관광코스로 미국본토에서 왔는데 처음하루 이틀은 재미있었으나 사흘째 되던날부터 갈곳도 없고 특히 상대해 주는사람이 없어서 여기 이렇게 앉아서 돌아갈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와이는 관광이라야 2일간이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젊은사람들이 즐기는 곳이지 노인들은 어디를가나 어울릴수도 없고또 반기는 사람들도 없다는것이다. 그래서 평생을 꿈꾸던 노후의 하와이 관광이 후회스럽고 왜 저들처럼젊어서 여행을 떠나지 않았나 하는것이 후회스럽다는것이다.

돈이없고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던 젊은시절 이었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나마 여행을 왔더라면 얼마나 즐거웠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이나 캐나다의 젊은남녀들은 적은수입속에서나마 푼돈을 모아매년 프로리다나 구라파등여행을 떠나는것을 보면 이들의 생활태도가 오히려건실한것 같고, 동양계 이민자와는 크게 대조적임을통감하게 된다.

여행은 부부의 정의를더욱 두텁게 하고, 서로 의지하는 기회를 갖는다 하더라도 잠시나마 떨어져 있는동안 상대방이 그리워지는 좋은경험을 얻게되어이것이 부부생활에 큰 도움을 주게된다. 특히 이민생활의 스트레스와 짜증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도한다.

자동차도 오래되면 정비하고, 인간의 육체도 주기적 Check up 을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위생에 대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해서소홀히 한다는것은 너무나근시안적인 생활방식이라 하겠다.

언젠가 읽은 여행수기가생각나는데 집에서 아이들하고 살림에 시달리다가모처럼 기회를얻어 부부가함께 여행하는 기회가 생겼는데, 시골여관에 들렀을때 마당을 거니는 미인을 발견하고 호기심에서 뒤따라가보니 자기부인 이었드라는 에피소드가 있다. 집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움을 상대방에게서 발견할때 신혼초기의 감격이 되살아나리라 믿는다.

앞으로 여행에관한 안내를 하는데 있어 독자의가장 관심사인 모국방문과최근에와서 부쩍 늘어난 방문초청을 위주로 설명한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IH9
☎: 752-7771

적립금 파악 작업시작

회원들이 협회의 신용조합 개인구좌에 밀크·리베이트 1%를 적립해오고 있는 현황을 파악키 위해 작업을 착수하였다. 즉 10만 달러가 돌파된 방대한 기금을 개인별로 정확히 계산하여, 회원각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일(목)부터 파트타임 학생을 채용, 면밀히 산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작업은 그 동안의 이자를 개인구좌로 분할 가산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그 착수를 미루어왔던 일이다. 이러한 적립금은 협회가 밀크회사와 협약을 맺어, 우유 매상액에 대한 리베이트를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이익을보장해 주는 것으로, 그 1%를 협회로 보내와 적립금을 가장 높은 이자가 붙는 텀디포짓을 해서 조성해온 것이다.

수시로 회원들이 자기적립금을 찾아가는 이유때문에 장부상의 정리가 혼란을 야기시켜 왔던 것으로, 이번에 현황을 파악하여새로운 시도를 모색키 위한 것이기도 하다.

회원상담용 핫라인 전화 설치예정

새로 구성될 협회집행부는 점증되는 회원들의 불만, 항의, 의문등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위한 상담용 핫 라인(Hot Line) 전화를 신설, 전문요원을 두어 그 일을 전담케 하리라고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분업을 원칙으로 집행부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회장단과 임원, 이사들이 순번제로 매일 매일 상담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전문요원은 상담실장으로서 관계업체와의 교섭, 절충, 처리를 전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아직 예산상의 확정이 되지않아 상담실장을 공개채용할 수 없으나, 이러한 업무에 관심과 의욕이 있는분 으로 관계자들과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이나,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협회로 연락해 주기를 요망한다. 당분간은 파트타임으로 응분의 수당을 제공할 것이라는데. 많은 응모나 추천을 기대한다.

<실협뉴스>에「회원투고란」설치

<실협뉴스>의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하고 있는 집행부는 첫시도로「회원투고란」을 설치하여, 회원들의 건설적인 제언, 의견, 새로운 아이디어, 알려야 할 미담등을 게재하게 될 것이다.

회원들은 투고하고 싶은 내용을 200자 원고지 3~4매 정도로 간략하게 집필하여 아무때나 협회로 우송해 주면 편집실에서 임의로 취택하여 실릴 것이다.

또한 <실협뉴스>란을 활성화시켜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키 위하여 앞으로 편집실을 설치, 책임자를 두어 회원들에게 필요한 뉴스, 정보, 경제상황등의매개체역할과 유관 업체들의 광고등을 적극개발하여 자체비용도 해결하는 방안도 실시할 것이라 한다.

신설되는「회원 투고란」에 많은 회원의 참여를 바란다.

또한 <실협뉴스>제호 밑에 실어오던 협회임원들의 명단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보다 신문의 품위를 높이기 위한방법이 다.

<문예작품공고 입선2등>

이민, 구멍가게 그리고 조그만「나」

김영희 작

나의 임무가 그걸로 일단락되었으리라 생각했다. 그후 그 친척들이 나를 쫓아와 괴롭힐 것 같은 공포감에 난 무척 무서웠다. 내가 상점에는 나가지 않지만 혹시 상점을 알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지나 않을는지? 애들이 밖에서뛰어놀 때 혹시 유괴라도 하지 않을까? 등등 쓸데없는 노파심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나의 상황에서는 아주 당연한 문제거리였고 빨리 해결해야만 하는 큰 일이었다.

결국 아빠와 상의끝에 상점을 팔기로 했다. 상점이 정리되는대로 집까지 팔고 아주 멀리 이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을때 또다시 법정으로부터 Subpeona(소환장)이 날아왔다. 받는즉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내가 틀림없이 못나간다고 거절하리라 생각해서 였는지, 그 친절한 사복형사들이 전화도, 방문도 없었고, 계속 경찰이 직접 전달하는 소환장뿐이었다. 몇번인가는 경찰보는 앞에서 싹싹 찢어버리곤 했다.

드디어 하루는 사복형사 둘이서 집 초인종을 요란스럽게 울렸다. 온 집문을 꼭꼭 잠그고 방에서 못 들은 척하고 누워있었다. 얼마후 쿵쿵거리는 발자국소리와 함께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난 그런데도 인기척을 내지 않았다. 아무도 없으면 다시 가려니 하는 기대에서였다. 그런데 웬걸, 꾸역꾸역 내 방문앞으로 다가오더니 방문을 노크한 후 하는 소리가 「Mrs. 김! 난 네가 방에 있는 줄 알고 있으니 이젠 고집 그만 부리고 나오는게 어떻겠느냐?」한다. 나는 악을 썼다. 있는 힘을 다해 소릴 질렀다. 「날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오. 경찰이라면 징그럽소. 강도보다 더 싫으니 빨리 나가시오. 날 데려갈려면 정식 구속영장을 가지고 오시오」 그러자 그 경찰은 내 악쓰는 소리와는 관계 없다는 듯이 점잖은 목소리로 「그렇잖아도 여기 정식 구속영장이 있소. 나와서 확인하시오」한다. (하아! 그래!) 난 어이가 없었다. 난

정식구속을 한단다. 큰 죄인처럼 말이다. 난 더 크게 악을 썼다. 「그래도 난 못가겠소」 너무 발광을 하니까 도저히 자기네들이어째할 수 없었는지 전화로 P.W.를 보내라고 했다. P.W.면 Police Women의 약자임이 분명했다. 이쯤되면 경찰측도 포기하지않겠다는 태도다. 여자경찰과 가자, 못가겠소하고 싱랑이를 벌이는 편보다는차라리 내 스스로가 가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악은 더할 수 없이 올랐지만 「O K 가겠으니 나가 기다려 주시오」했다.

경찰도 날 어지간히 지독스런 여자라 생각했는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빙긋이 웃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법정에 또 서게됐다. 나의 불참석으로 인해 재판이 여러번 연기된 모양이었다.

증언대에 다시서게 됐을때 난 하염없는 분노의 눈물을 억제할수 없었다. 그만 큰 소리로 엉엉 울어버렸다. 법정은 아주 조용했고, 나의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려 판사가 입을열었다. 「피해자로써 당하는 고충을 알고있소. 그렇지만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하는것이 선하고 착한 캐나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라 생각해 주시오. 저기 배심원석에나와있는 사람들도 그런 똑같은 의무로 나와있는것이 아니겠오?」「난 너무 억울합니다. 강도를 맞고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심적, 경제적 타격은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읍니다.」

(계속)

교민의 [illegible]
한국일보 [illegible]
533 2361

20세기 폭스 영화사
영화「원산공작」제작
맥아더 사령부 근무한 연정씨와 계약체결

6·25당시 맥아더사령부 휘하의 한국군 정보장교로 활약했던 연정씨가 17일 20세기 폭스영화사 프로듀서와 전쟁중의 비화를 그린 영화제작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이날 하오 1시30분, 연정씨는 20세기 폭스영화사 스튜디오에서 프로듀서 배톤스·노블스와 자신이 6·25에 참여한 10여개의 비밀공작중의 하나인 가칭 「원산공작」에 대한 재정사항등의 계약을 체결한 것.

연씨는 프로듀서와 기술고문을겸하게 되며 원고료 10만 달러와 총수입의 5%를 지급받게 된다.

3백만내지 5백만 달러의 제작비를 예정하고 있는 이 영화는 미 육·해·공군 전세계 지역 기지에 배급되며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 상영될 계획으로 현재 20세기 폭스에서 제작을 맡을 예정이라고 노블스씨는 밝혔다

각본 각색은 컨트리가수 케니·로저스의 영화를 만든 점·번스에 의뢰할 예정이며 「원산공작」은같은 제목으로 77년 한국 세경영화사에서 남궁원 주연의 영화를 제작했었다.

줄거리는 70년 주간한국과 일본의 문예춘추에서 「캐논기관의 전모」라는 연재기사에서 「시체탈취작전」으로 소개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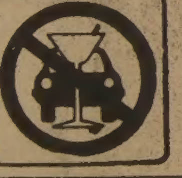
51년당시 연씨가 지휘관으로 있던 G2·GIA의 합병 군첩보기관이 적진원산의 인민군 야전병원에 페스트가 만연되었다는 정보를 입수, 「적군과 싸울 수 있어도 병과는 못싸운다」는 맥아더 연합군사령관이 전군철퇴 명령을 내릴 정도로 위급했던 상황에서 특공대원들이 적진에 침투, 시체와 환자를 훔쳐 진찰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기를 모면한 비화이다.

당시 이정보로 일단 후퇴한 연합군이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다시 작전을 수행하게 된 공로로 연씨는 3번째 미국 은성훈장을 받았다.

새로 제작하는 영화는 전쟁의 승리보다 인명을 귀하게 여긴 맥아더장군의 인간성과 액션 첩보물의 흥미거리들인 내용으로 『되도록 사실과 가깝게』 만들 것이라고 노블스씨는 밝히고, 성과가 좋을 경우 신의주공작, 인천공작, 이북 위폐공작등 속편들을 제작한다고 한다.

이날 계약체결후 연씨와 미 영화사측및 교포인사 10여명이 한국 세경영화사 제작의 「원산공작」 시사회에 참석하여 관람했다.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産을 위협 합니다.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 531-0277
대표 나옥녀 올림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쿠폰서비스안내말씀

이미「공지사항」으로 알린바 있듯이많은 회원의 전화문의가 쇄도하여 다시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①12월31일까지라는 기간은 본「쿠폰」창구의 서비스 업무를 강화하여 정리하려는 기간임을 밝힙니다.(연중 계속 취급함)
②쿠폰을 한번도 상환한일이 없는경우 먼저 소매업자등록을 하셔야 되므로 RETAILER IDENTIFICATION과 구비서류로 인보이스카피 2장(쿠폰품목이 포함되어있는 청구서)을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③위의서류는 NIELSEN CLEARING HOUSE(P.O.BOX 639. 661MILLIDGE AVE.ST.JOHN.N.B.E2L 4A5)로 보내시면 CLAIM FORM이 옵니다.
④클레임·폼(상환신청서류)을 받으시면 즉시 쿠폰과함께 협회로 우송해주십시오.
⑤상환금 첵크가 올때 클레임·폼이함께 오므로 이것을 잘 보관하셨다가 다시 쿠폰을 상환하실때 함께 보내주십시오.
⑥쿠폰서비스 업무는 분류 처리, 발송업무가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981년12월10일
담당자 올림

동우연말파티

동우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물어 가는 이해의 마지막 우리들의 동우연말잔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아오니 우리 모두 참석하여 즐거운 회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12월26일(토)오후7시~새벽1시
장 소 : SKYLINE TORONTO HOTEL(BALL ROOM)
665 DIXON RD(AT HWY 27)
식 사 : 부페
밴 드 : 권순근악단일원
입장권 : 이사, 임원들이 배포중임
연락처 : 222-5370(총무 김남용)
270-1531(기획조사 정기영)
759-8349(섭외 김진현)
439-7093(체육 신우원)
746-4220(문화 조국현)
※경품은 한국왕복항공권(부부), 플로리다 왕복항공권(부부)
TV.등 다수선물을 마련하였음.

토론토동우회 이사, 임원일동 드림

培材學堂

마음으로써 서로 생각하면서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읍니다. 이제 가는해를 흐뭇하게 보내고 오는 해를 희망차게 맞으려 배재 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일 시 : 1981년12월26일(토)오후7시
장 소 : 2188 BLOOR ST.W.
(at Bloor×Runnymede)
회 비 : 카플당$20.—싱글$10.—
(저녁식사포함)
연락처 : 손명수(763-1155)
이학현(463-6334)
신성우(264-2311)

재캐나다 배재동문회
회장 : 손명수

鐵道 전철 郵便 전화 水道 통행料 大幅인상

15日 15日 9日 9日 10日 15日

서울·釜山 特急 5천5백원
電話 가정 度數料 20원으로

세모를 앞두고 철도·지하철 우편 전화 수도등 각종 공공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제히 인상됐다. 8일 정부가 발표한 인상안에 따르면 최고2배까지 올린 체신요금은 9일부터, 여객과 화물용 철도요금과 지하철요금, 고속도로 통행료는 15일부터 인상된다. 이들 공공요금들은 올들어 두번씩이나 인상된것으로 정부는 원유가 인상등 정부의 적자폭을 줄이기위한것이라고 밝히고있으나 가뜩이나 장기불황으로찌든 서민들의 가계에 주름살이 더욱 늘어나게됐다.

電鐵기본料金	100→110원
편지(封書)	40→60원
등기우편料金	100→200원
서울水道기본	460→575원
高速통행(서울·釜山 중용車)	7,200→7,500원

철도요금 철도요금은 여객과 화물이 15일부터 일률적으로 오르고 수도권전철요금도 기본요금이 1백원에서 1백10원으로 구간별로는 10원~20원씩 올랐다. 이에 따라 서울~釜山간의 요금은 ▲새마을(보통)이 1만2천3백원에서 1만2천9백원으로 ▲우등은 7천2백원에서 7천6백원 ▲특급은 5천2백원에서 5천5백원 ▲보통은 2천5백90원에서 2천7백20원으로 각각 올랐다.

㎞당 여객운임은 ▲새마을호는 27원75전에서 29원74전 ▲우등은 16원25전에서 17원6전 ▲특급 11원67전에서 12원25전 ▲보통은 5원83전에서 8원2전 ▲전철은 7원45전에서 7원82전으로 올랐다. 특실요금은 새마을 우등 특급이 일률적으로 1백원에서 2백원으로, 침대요금은 일반 침대상단은 3백원, 하단은 5백원, 우등침대는 상단 5백원, 하단은 7백원이 올랐다.

화물운임은 1톤당 ㎞당 기준으로 1등급이 6백52원에서 7백17원으로, 2등급이 6백26원에서 6백89원으로, 3등급이 5백73원에서 6백30원으로, 4등급이 5백40원에서 5백94원으로 인상됐다. 소화물운임은 5㎏까지의 최저운임이 1백70원에서 1백90원으로 올랐고 5㎏을 초과할때마다 거리에따라 5원~11원까지 인상률이 적용된다.

지하철의경우 淸凉里~서울역간, 종합운동장~新設洞간, 종합운동장~서울역간은 모두 10원씩 올랐으며 시청앞~仁川, 시청앞~水原역간은 각각 20원씩 올랐다.

고속도로통행료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제히 15일부터 시행한다고 건설부는 8일 발표했다. 인상된 내용은 기본요금의 경우 1㎞당 ▲승용차가 현행 16원18전에서 16원99전으로

▲버스는 36원1전에서 37원81전으로 ▲보통화물차는 15원53전에서 16원11전으로 ▲대형화물차는 27원36전에서 각각 올랐다. 또한 장거리일수록 요금을 적게내던 체감제를 시정 ▲1백㎞미만구간에서는 기본요금대로 받고 ▲1백㎞이상~3백㎞미만구간에서는 10%를 체감해주도록하고 ▲3백㎞이상구간에서는 20%~25%까지 체감률을 적용했으나 20%만 체감해주기로 했다.

◇주요노선별 철도요금 인상내용
<괄호안은 20%할인운임 단위:원>

구간별/종별		서울~水原	서울~大田	서울~東大邱	서울~釜山	서울~全州	서울~光州	서울~麗水
현행	새마을		4,600	9,100	12,300	(6,200) 7,800	(8,200) 10,300	
	우등	1,700	2,700	5,300	7,200	4,600	6,000	7,400
	특급	1,200	1,900	3,800	5,200	3,300	4,300	5,300
	보통	240	970	1,910	2,590	1,640	2,160	2,650
	전철	350						
인상	새마을		4,800	9,600	12,900	(6,600) 8,200	(8,600) 10,800	
	우등	1,800	2,800	5,600	7,600	4,800	6,300	7,800
	특급	1,300	2,000	4,000	5,500	3,500	4,500	5,600
	보통	250	1,020	2,010	2,720	1,720	2,270	2,780
	전철	370						

◇전철요금 단위=원

구간	현행	인상
서울~水原	350	370
〃~仁川	330	350
〃~九老	130	140
〃~梧柳	160	170
〃~淸凉里	100	110
〃~永登浦	110	120
〃~城北	140	150
〃~富川	200	210
〃~富平	240	260

◇주요 체신요금 인상내용

	현행(원)	인상(원)
1,우편요금		
·1종(봉서)	40	60
·2종(엽서)	20	30
·3종(신문)	10	현행유지
·4종(인쇄물)	15	〃
·5종(종자)	10	〃
·소포	300	〃
2,우편수수료		
·등기	100	200
·속달	150	200
·배달증명	140	200
2,전신전화		
·자동식기본료	2,200	2,200~3,000
·자동식도수료	15	20
·수동식정액료	1,500~4,700	1,700~5,400
·시외통화료 "예" 구~대전	68	90
	1,000	1,440
전보료(기본)	400	500
·전용료 시내	도수료의 840배	750배
시외	대시료의 1,440배	1,300배
·가입이동무선전화료(기본)	9,400	20,000

체신요금 2종엽서, 우편취급수수료 및 전화의 기본료, 도수료및 전화료가 9일부터 일제히 오른다. 인상조정된 내용을보면 봉서는 현행40원에서 60원, 엽서는 20원에서 30원으로 됐으며 우편취급수수료도 등기와 내용증명은 1백원에서 2백원으로, 속달은 1백50원에서 2백원으로, 배달증명은 1백40원에서 2백원으로 각각 올랐다.

또 전화요금은 시설의 이용도가 낮은 농촌지역과 차이 등 조정, 지금까지 전국 어디나 똑같게 적용해 오던 전화 사용 기본료를 3단계로 나누어 읍·面이하지역인 1~

2급지는 현행 2천2백원을 그대로 두고 중소도시이하인 3~7급지는 2천6백원, 대도시인 8~10급지는 3천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사용요금도 도시권을 중심으로한 자동식 도수료는 15원을 20원으로 올리는 한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한 수동식 정액료는 4급지이상 지역은 현행대로 두고 ▲1급지의 1백가입자 이하지역의 주택용은 1천5백원에서 1천7백원, 업무용은 2천9백원에서 3천3백원, 5백가입자 이하지역의 주택용은 1천8백원에서 2천원, 업무용은 3천5백원에서 4천원으로 ▲2급지의 주택용은 2천1백원에서 2천4백원, 업무용은 4천1백원에서 4천7백원으로 ▲3급지의 주택용은 2천4백원에서 2천7백원, 업무용은 4천7백원에서 5천4백원으로 인상했다.

수도요금 서울시는 수도요금을 업종별로 인상조정, 15일부터 시행한다. 가정용은 ▲기본량 15톤까지 현행 4백60원에서 5백75원 ▲초과사용량 16톤~30톤까지 현행60원에서 75원, ▲31톤~50톤까지 톤당 현행 1백30원에서 1백65원 ▲51톤이상은 1백80원에서 2백25원으로 각각 인상. 시장 백화점 이발소등 영업용 대형업소(숙박업소)는 10일부터 시행토록했다. ▲기본량 30톤까지 현행 6천3백원에서 7천8백80원으로 올랐고 ▲초과사용량 31톤~2백톤까지 톤당 현행 3백90원에서 [illegible]

베네수엘라機 3대 拉致

武裝게릴라 在所者 12명석방·千萬弗 요구
2臺 未詳地향발·1臺 과테말라 着陸

【테구시갈파(온두라스) 8日AP·UPI=聯合】 베네수엘라 국내선 여객기3대를 동시에 납치한 무장게릴라들은 7일 2대는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 착륙시켜 급유후 쿠바 또는 멕시코쪽으로 향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1대는 과테말라시에 착륙시켰다.

수류탄과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납치범들은 또 베네수엘라에 수감중인 재소자 12명의 석방과 1천만달러의 인질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베네수엘라 신문들이 보도했다.

이들 무장납치범일당은 연료및 충피항로지도를 제공받은 콜럼비아의 바란킬라에서 여객기3대를 거의 동시에 이륙시킨뒤 산살바도르, 테구시갈파, 과테말라시에 각각 1대씩 착륙시킨다음 다시 산살바도르에 착륙시켰던 DC9기를 테구시갈파로 옮겼다.

이에앞서 납치범들은 바란킬라에서 두 비행기에 탄 여자와 부상자등 67명을 연료등과 교환 석방하고 다른 여객기1대는 바란킬라 공항으로 오는도중 네델란드령 아루바에 중간기착, 21명을 석방했었다.

자신들의 신분을 푸에르토리코민족분리주의자와 엘살바도르 국제특공대등 다양하게 밝히고 있는 납치범들은 미국의 지지를받고있는 엘살바도르 군사정권에 베네수엘라정부가 지원하는것에 대해 보복으로 비행기와 승객을 납치했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 국내선 여객기 3대는 30명의 무장괴한에의해 베네수엘라수도 카라카스에서 거의 동시에 납치되어 7일낮12시 (한국시간 8일 오전9시) 바란킬라공항에 연이어 착륙했었다.

◇7일 30여명의 무장괴한들에 의해 동시 공중납치됐던 베네수엘라 여객기 3대중 한대에 탔다가 네델란드령 아루바에서 석방된 22명의 승객들이 본래 목적지였던 카라카스 공항에 도착하고있다. 【카라카스7日AP=聯合】

리비아 旅客機 被拉·로마向發
사드르歸還 요구

【아테네·베이루트8日聯合】 괴한3명에의해 납치된 리비아항공사소속 보잉727여객기는 베이루트를 떠나 그리스의 아테네공항에 8일오전2시50분(한국시간 새벽6시50분) 도착했다고 그리스당국이 밝혔다.

지난7일 하오7시(한국시간 8일새벽3시) 이탈리아상공에서 아랍어를 쓰는 3명의 무장괴한에게 공중납치된 보잉727기는 베이루트공항에 11시10분도착했다가 다시 이륙, 아테네로 향했었다.

무장한 3명의 납치범은 지난78년8월 트리폴리에서 행방불명된 레바논의 회교시아파지도자 무사·사드르의 귀환을 가다피 리비아 원수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베이루트공항 관계자들이 밝혔다.

【아테네8日聯合】 아테네 공항에 착륙했던 피납리비아 여객기는 급유를 받고 체류3시간만에 다시 로마로 향했다.

韓日協委 日側委員 全대통령, 어제接見

全斗煥 대통령은 8일상오 韓日協力委員會의 야쓰기·(矢次一夫) 일본측常任委員과 하세가와·다까시(長谷川峻)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사진> 이자리에는 韓日協力委의 金永善 한국측 회장과 張水吉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主穀自給이 번영의열쇠
"農業발전해야 福祉이룩"
全대통령, 榮山湖준공식 參席…致辭

【靈岩=尹國炳기자】 全斗煥 대통령은 8일 『국민생활의 기본이되는 主穀을 自給自足 하느냐 못하느냐하는 문제는 우리의 安全과 번영을 가름하는 중요한 열쇠의하나』라고 지적, 『막중한 主穀自給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좁은 국토나마 알차게 개발하여 農地를 확대하고 풍부한 농업用水의 개발등으로 농업기반을 확충하며, 營農의 과학화·기계화를 도모해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 가능한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하오 全南靈岩郡三湖面에서 거행된 榮山湖준공식에 참석, 치사를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이 끝나는 86년에는 主穀의 自給을 기함으로써 가령 본격적인 식량武器化시대가 到來하더라도 이를 능히 헤쳐나갈수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또 『참된福祉국가는 사회각계층간,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없이는 그 실현이 어려운것』이라고 지적하고 『공업에 못지않은 농업, 도시에 못지않는 농촌, 그리고 어느지역인에도 못지않는 농민의 발전이있어야만 경제사회발전도 우리의 모든 국민의 행복과 단결은 비로소 가능할것이며 우리가 전진하려는 복지국가를 향해 좀더 가까와질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70년대초부터 4大江流域에 대한 본격적인 농업개발사업 추진과 아울러 西南海岸 大干拓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농업用水 10개년 계획도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밝히고 『榮山湖의 준공을 토대로 앞으로 제3, 제4단계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면 湖南평야는 현대적인 영농기반을 갖춘 농업富國의 튼튼한 기지로 발바꿈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망했다.

全대통령은 또 『榮山湖가 농업발전의 상징이라면 光陽灣에 머지않아 자리잡게될 제2종합製鐵은 공업발전의 상징이 될것이며 이같은 農工 併進의 발걸음은 88올림픽 고속도로와 함께 이지역을 발전시키는 牽引車가 될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大自然을 도전해 이룩한 오늘의 성공을 바탕으로 우리의 창의와 和氣가 넘치는 복된 터전으로 가꾸기위해 우리 모두 前進의 대열에 힘차게 나설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舊正公休 반대
民正黨, 公約 수정하기로

民正黨은 8일 舊正을 公休日로 지정하기로한 지난번 選擧公約과 방침을 바꾸어 舊正공휴일을 반대하기로 했다.

權正達 사무총장은 『당초 民正黨은 舊正을 民俗의날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舊正公休日을 公式化할경우 2重過歲, 生活浪費, 物價 자극등 여러가지면에서 副作用이 많다고하여 반대입장을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舊正公休日지정은 人氣에 영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民正黨은 때로는 人氣가 없어도 국가의 成長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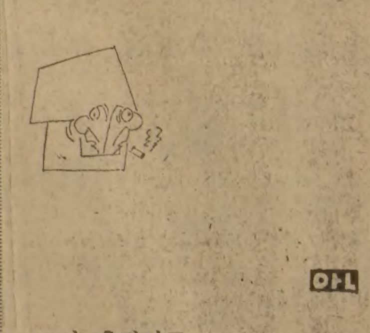
이에따라 民正黨은 국민당이 제의한 舊正公休日지정건의안을 국회內務委에서 否決시킬 방침이다.

시멘트 19%引上요청
타이어값은 12%引上 통보

연말을 앞두고 工產品의 가격인상이 줄을잇고있다. 시멘트공판회사인 雙龍洋灰는 시멘트값을 19.5%인상하겠다고 경제기획원에 사전승인을 요청했고 독과점업체인 韓國타이어는 타이어가격을 12.5%인상했다고 8일 상공부에 통보해왔다.

7개시멘트회사는 共販회사인 雙韓실업을통해 만들어 업자끼리 담합을통해 가격및판매량을 조절하고있는데 이번 인상요청이 승인되면 시멘트 공장도 가격은 40㎏1부대당 현재의 1천7백52원에서 2천94원으로 올라간다.

社會漫評



"다 올라가고 아무것도 안보이는구나…"

地平線

12월8일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지 꼭 40년이 되는날. 미국에선 「리멤버 펄 하버」가 차츰 잊혀져가는데 이와반대로 일본에선 「진주만」을 다른의미에서 잊지말자는 외침이 커지고있다. ▼3백10만의 생명을 잃은 敗戰의 쓰라림을 또다시 되풀이 하지말자고 일본국내에선 反戰 反核운동이 꾸준하지만, 과거의 「大日本帝國」의 화려한 幻想을 찬미하는 복고조의 군국주의 전쟁영화붐도 뜨거워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反戰사상과 전쟁의 비참함을 호소하는 영화는 자취를 감추고 神風特攻隊를 우상화하는가 하면 旅順攻略작전을 그린 「203高地」와 山本五十六의 「聯合艦隊」에이어 戰爭犯人 東條英機를 비극의영웅으로 미화시킨 영화「大日本帝國」이 새해부터 상영된다고한다. ▼山本五十六提督에 대해선 그 평가에 있어서 아직 말들이 많다. 하버드대학에서 배운일이있고 워싱턴에서 해군무관으로 근무한일도 있는 山本은 일본이 미국과 싸울때 國力으로보아 전쟁에서 결국 패배하리라는것을 누구보다도 잘알고있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그래서 도라 도라 암호로 진주만을 기습한 Z작전을 입안, 성공시키기는 했으나 기실은 군인으로서 작전명령에 따라 지휘를 했을뿐 본인자신은 전쟁 자체를 싫어했다는 얘기들이다. 그런가하면 브리지 게임과 포커의 명수인 山本이 도박할때 기질의 승부사인것이며 배짱으로 진주만 기습을 저질렀다는 견해도 있다. ▼요즘경영학에서 자주 인용하는말로 孫子의 善戰者 勝, 勝易勝者 라는 말이있다. 이길의 뜻은 잘싸워야 이긴다. 勝算이있을때 싸워야 이긴다는 말이다. 이기게끔해 놓고 싸워야 진짜승리한다는 뜻이다. 이길계산이 없는 전쟁은 실패로 끝나기 쉽다는 교훈이기도 하다. 1941년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킬때 일본참모본부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의 戰力情報를 치밀하고 광범하게 수집했다. 鐵鋼 生産高가 얼마고 군함이나 비행기생산능력, 수송력, 통신망능력을 비교하면 日本이 전쟁에 절대이길 수없다는것을 알았다. 滿洲國을세우고 I·Q 높은 작전참모로 알아주던 石原莞爾少將은 開戰에 반대했지만 大勢를 꺾지못해 左遷되고 上等兵이라고 욕먹던 머리나쁜 東條가 이끄는 過激派때문에 전쟁에 휘말리게된것도 다알려진 사실이다. ▼東條와 山本이 다시 일본땅에서 판을 친다는 소식은 우리들이 듣기에 불쾌하다. 이웃 일본의 돌아가는 꼴에 눈을 크게떠야 되겠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韓국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서울 여행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동주

선린동문송년파티
또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1981년도를 보내며 그동안 쌓였던 많은 사연들, 앞으로 할일…
자! 우리다함께 82년도로 미루고 선린가족이 한자리에모여 즐거운 송년을 보냅시다.
일 시 : 1981년12월26일(토) 오후7시
장 소 : 동문 옥성빈자택
R)274-8439, B)278-4867
1005 SHAWNMARR RD. UNIT 183, MISS.
(LAKESHORE× SHAWNMARR)
연락처 : 부회장(전기덕 255-2111)
총무(정성주 276-4373)
선린동문회회장서병주

경동동창회파티
즐거운 성탄과 새해를 맞이 하고저 동창회 파티를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동문여러분 부부동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12월19일(토)오후7시
장 소 : 한인회관(20 MOBILLE DR)
연락처 : 배운산(624-3849)
이춘수(274-6127)
※시간이 변경되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동동창회 동문회장
장진무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햄버거 샵
주매상 만3천달러. 몰개지 10만달러. 가격 : 38만5천
도넛 샵
•일요일 닫고 하루12시간 영업 운영간단 년수입 : 4만5천. 아스킹 11만 달러
•주매상 : 4천5백. 주매상 : 5천5백
주매상 : 6천5백. 주매상 : 7천달러 되는 도넛츠 스토아 여럿있음.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4천2백달러. 주매상 : 5천달러(일요일닫음
주매상 : 5천5백달러. 주매상 : 6천달러.
주매상 7천달러
버라이어티 수토아및 가옥
•주매상 4천달러. 코너건물. 2 베드룸 아스킹 12만8천달러
•주매상 6천달러. 코너건물 3 베드룸 아스킹 22만달러
쇼핑 몰
스모크, 키프트 샵. 새로 OPEN 됨아스킹 8만달러
기프트 크래프트, 허비 샵. 년매상 17만달러.
아스킹 8만달러
대지및 가옥
2½에이커 땅에 가옥이 있으며 교회자리로 적합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6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386-1548(R) M3B 1Z3

FD FINE DESIGN

상점·음식점·사무실·교회·주택등의 실내·외부 디자인및 시공을 담당하며 필요하신 가구의 설계및 제작 또는 선택과 구입을 도와드리며 카펱·카텐 벽지·페인트등의 색·품질·선택·구입 주문등도 도와드립니다.
676•1173/622•5328 조 덕노

眞珠灣기습 40돌…日本의 表情

戰爭도발 덮어두고 「軍國偉容」만 誇示

당시素材로한 映畵·放送 판쳐 復古무드속 한결음씩 再軍備

경제적으로는 美의「진주만 想起」경계

◇일본 封建 사무라이의 후예。眞珠灣 공격까지 일본 군국주의 기틀을 세웠던 제국군 장교들의 모습。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誌】

【東京8日=宋孝彬특파원】 眞珠灣을 기습공격한 「12.8」을 일본의 눈은 반성보다는 회한이 더깊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뒤 40년이지난 지금도 일본국민은 패전에 분통을 강조하고 침략에 대한 죄과는 애써 감추고있다. 이렇다할 공식행사를 하지않았으나 가정주부, 8일 일본정부, 지식인, 평화주의자들 수천명이 反戰반핵데모를벌여 이날을 기념했다.

1941년 12월8일 일본은 항공모함6척과 전함 2척을 중심으로 약3백50기의 함재기를 동원하여 선전포고도 하지않은채 眞珠灣을 기습공격, 미함정과 항만시설을 쑥밭으로만들었다.

이날이 되면 일본·매스컴은 진주만의 기습공격사실은 다루지않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음모설과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수용 사실만을 대대적으로 특집 보도한다.

루스벨트 음모설이란 당시 일본측의 진주만 기습공격계획을 암호로 해독, 미국방성이 사전에 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임함으로써 진주만공격을 성공하게했고 그결과 일본에 대한 미국인의 적개심을 불러 일으켜 태평양전쟁을 위해 미국인이 단합할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루스벨트음모설은 작년5월 세상을 떠난 메릴랜드교수인 프랜지박사에 의해 부인되었다.

일본인계 미국인의 강제수용은 1942년 2월19일 공표된 루스벨트 대통령명령 제9066호에 의해 결정, 집행 되었는데 1975년 포드 대통령이 이명령을 취소한데서 헌법위반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일본신문은 지적하고 있다.

일본신문들은 일본계미국인의 피해자 1인당 3만5천달러의 보상요구가 정당하며 앞으로 이와같은 인권유린은 절대 있어서는 않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NHK를 비롯한 방송들은 「12·8 진주만공격」을 테마로한 특집방송을 보도하고 있다. 그내용은 일본기습공격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보다는 미함정들의 처참한 침몰상을 클로즈업하는등 옛일본국의 위용을 나타내는데 집중된다.

영화관에서도 복고조의 전쟁물이 크게 히트하고있으며 일본의 전함 야마또(大和)의 최후를그린 「연합함대」와 육탄전의 용감한 병사를 그린 「특공대」등이 공전의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내년에 상영될 「大日本帝國」은 당시의 도오조(東條)수상을 비극의 영웅으로 미화시키고있다.

이같은 복고무드를 타고 수상과 각료들이 군국주의의 상징처럼 돼있는 야스꾸니(靖國)신사를 참배하는 것이 어느덧 관습이 돼버렸다.

보수회귀속에 일본은 자위대의 증강등 재군비의 길을 한발한발 내디디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연간 1백50억달러가 넘는 對日무역적자를 내고있는 미국에서 또다시 「진주만을 상기하자」는 구호가 일어날까 경계하고있다.

「代理母」保障策없다

美法曹·宗敎·醫界 서로對立 出産前後 많은 問題點 노출

【프랭크퍼트(美켄터키州) AP=聯】만약 당신이 자식을 갖고싶어하는데 부인이 아이를 낳지못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미국에는 이같은 물음에대한 해결책으로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이른바「代理母」를 고용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과연 代理母를 통한 출산이 합법적이라고 할수 있는것인가.

미국내의 의사들과 변호사들은 지난 11월9일 엘리자베드·제인(가명)이라는 일리노이의 한 주부가 代理母로서 남의 아이를 대신 낳아준이래 미국에서는 수십건에 달하는 대리출산계약이 당사자간에 체결됐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최초의 代理母고용계약에 따라 제인여인이 대신 낳아준 아이는 [illegible] 한부부에 의해 입양됐다. 제인여인은 대신 아이를낳아준 댓가로 이부부로부터1만달러를 받고출산 당시만해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

알려진대로 대리출산은 아내가 不姙일경우의 부부가 자식을 갖고자할때 추구하는방법으로 代理母가 이용되는데 이 대리출산은 법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illegible]

미국에는 이같은 물음에대한 해결책으로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이른바「代理母」를 고용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한 해결책으로 대신 아이를 알려진대로 대리출산은 아이를 낳을때 추구하는방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로서 [illegible]

로몇가지의 문제점을들었다. 즉▲만약 한代理母가 남의 자식을 대리출산해주는데 대한 사례금을 미리 받은후에 마음이 변해 자기가 기르려고할경우 이를 자기가 기르려고할경우에는 어떻게 될것인가. 이같은 일은 금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로서 [illegible]

▲만약 代理母가 임신하고 있을때나 출산하는 과정에서 산모에 어떤 상이 생겼을 경우 누가 이에대한 보상금을 지불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1978년 미국에서 출산건수 10만건중 3백21명의 산모가 사망한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만약 대리출산에 의해 태어난아이가 지진아이거나 기형아일경우 누가 그아이의 양육을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도 있겠지만 태어난아이의 신체적 문제가 代理母의 주마다 인공수태 입양및 부모로서의 권리등에 관한 법률과 법원의 관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스티브·비시어 켄터키州법무장관은 계약에의한 대리출산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할것을 법원에 요청해왔다.

미시간州에서는 대리출산에 의해 아이를 얻은 부부측의 남편이 자신이 대리모가 낳아준 아이의 실제 아버지임을 확인해주도록 법원에소송을 제기했으나 州법원은 州法이 『代理母의 남편이 대리출산된 아이의 아버지』임을 명시하고 있음을 들어 이부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인사건은 아직 항소심에게류되어 있어 대리출산된 문제의 아이의 출생증명서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입되지 못하고있다.

지난6년동안 대리출산문제를 다루어온 노엘·P·키엔이라는 미시간의 변호사는 미국의 어떠한 州에서도 대리출산이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있지않으며 그렇다고 뚜렷하게 합법화되지도 아니다. 오늘날 대리출산의 경우 대리출산의 合法的 여부에 있어 단하나 분명한것은 아무런 보장책이 마련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의 어떠한 州에서도 대리출산이 명백하게 불법적인 「입법화되지 않으면 대리출산된 아이는 보호를 받을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代理母가 자기가 낳은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고집하는경우 대리출산을 부탁한 부부중 남편이 아이의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법적문제를 제기하게된다.

미국최초의 代理母고용계약에 따라 제인여인이 대신 낳은아이는 켄터키에서 [illegible]

인사이드

"나는 反蘇 中共위해 銃을 들겠다"

6·25때 歸還거부한 美軍포로 베너리스氏

라오·웬으로改名… 英語가르치며 生活

딸기·아이스크림·바나나등 鄕愁 여전

"共産主義는 신봉않는다"

【吉林(中共) AP=聯】中國語를 유창하게 말할줄알뿐아니라 文革기간중에는 과격파에 가담했던 한미국인이 中共 吉林에 살고 있다.

이사람은 한 푸주간업자와 친구여서 고기는 일품으로 공급받고 있고 자금도 毛澤東語錄을 암송하고 있다.

이사람은 자기자신을 1950년 韓國전쟁중 중공군에 포로로 잡힌 미국사병 제임즈·G·베너리스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전쟁이 끝난후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중공에서 살기를 선택한 사람이며 현재는 韓國전쟁에서 2백50명, 그리고 北京에서 북동으로 9백50㎞떨어진 吉林의 상농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있다.

베너리스씨는 이곳에서 는 이름이 라오·웬씨로 알려져있다.

그는 美軍에 입대할당시 펜실베이니아 밴더그립트의 실업자였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미군포로로서 현재 吉林에 살고있는 미국인은 자기뿐이라고 말했다.

라오·웬씨는 그자신이 모든면에 있어서 그의 세번째 中國人부인보다 더 中國人이라 말하면서 도 아직도 런던·스트라이크담배, 코케이크·딸기아이스크림 바나나등 『나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지난 66~76년사이의 文革기간중 라오씨는 미국 및 自由中國의 스파이로 낙인찍혀 그가 말했던 화장지 공장은 紅衛兵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위해 출입문을 걸어잠그기까지 해야했다고 말했다.

그는 美軍의 한명이었다. 라오씨는 다른 23명의 美軍포로들과 함께 中共 인민에 의해 韓國戰에 참가한 후 포로로 잡혔다. 『나는 中國사람이 좋다』고 말하며 『내가 中共에 있는한 反蘇를 위한 고량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자신 철두철미한 反蘇주의자라고 밝힌 라오씨는 『나는 中國人을 좋아하고 中國에 머물고 싶다』며 『그것이 바로 내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회상한 그는 3년반동안의 포로생활기간동안 中國語를 배우고 「홍·소여의 모험」 같은 책을 읽었다고 말했다.

그는 美軍당국의 기록문서에 의하면 1953년 북한에 포로로 잡혔다가 21명의 포로명단에 베너리스씨와 애덤즈씨의 이름이 들어있으며 2차대전 자로 비난받고 軍에서 불명예제대를 당했을뿐 아니라 韓國戰에 참전한 베테랑군인으로 포로생활동안의 행위에대해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았다.

그는 美國과 中共 국민간의 우정을 믿는다면서 『미시건과 펜실베이니아 하트퍼드 등 고향의 영웅 돌아와 「나는 중국인이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海外토픽

황소가 조종사 습격

★美國畜產 비상착륙

최근 한 소련화물기에 실렸던 시베리아고 출신의 황소1마리가 고장난 비행기안에서 날뛰자 조종사에게 전치1개월의 상처를 입히고 수송기를 비상착륙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스크바의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지 보도에 따르면 기류의 변화로 비행기가 흔들리자 오를리크라는 이름을 가진 이황소가 큰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칸막이를 깨고 조종실로 돌진, 조종사가 비상착륙을 불렀으며 부조종사가 비상착륙을 했으나 조종사는 큰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신문은 이사건이 언제 일어났으며 오를리크의 그후의 운명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모스크바=UPI】

메모紙 1만6천弗

★링컨大統領連署

에이브러햄·링컨 대통령이 1860년5월5일 코네티컷州의 하트퍼드에서 행한2시간동안의 연설내용을 담은 메모가 최근 뉴욕의 소더비 전시관에서 열린 경매에서 1만6천달러(약1천1백만원)에 팔렸다.

소장가인 故 필립·D·샌씨 부부가 소유하고있던 이메모속에는 링컨 대통령이 다가올 남북전쟁을 빗대어 처음으로 사용한 「참을수없는 분열」이라는 귀절이 들어있다.

이경매에서는 또 링컨대통령이 저격을 당할때 앉아있었던 포드극장 칸막이 특등석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6천5백달러에 팔렸다. 【뉴욕=AP】

警官 3萬명 더 增員돼야

夜通 전면解除때

朴英千治安本部1부장은 8일 오후 국회 內務委의 通禁해제의 안및 略正公休日지정 전의안심사小委에서 『야간통금해제에 문제는 현재 국방부, 치안본부등이 협의중에 있으며 통금을 전면해제할경우 내년도 增員되는 전투경찰7천명을 제외하고도 3만명이 더 증원돼야하며 人件費만도 연간 6백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리비아暗殺團은 10人組

美情報당국 구체적인 報告입수 主張

【워싱턴 8日 AP·UPI=聯】美정보당국 소식통들은 레이건대통령이나 美정부최고위급각료들을 살해하려는 10인조 리비아 암살단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美정보기관이 입수했다고 밝혔으며 이 암살단가운데 1~2명은 리비아 사람인것으로 알려졌다고 7일 워싱턴·포스트紙가 보도했다.

포스트紙에 따르면 이정보는 리비아암살단의 개인별 명단과 별명, 암살단이 훈련받은 장소에관한 구체사항, 훈련장소들중 일부는 東歐국가라는 사항들이 포함돼 있으나 그 정보출처는 분명치않다.

포스트紙는 정보출처가 모호하게 언급된것은 이정보를 평가하는데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정확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음모가 사실이라면 엄격하게 기밀이 유지될것이고 이처럼 구체적인정보가 美정보기관에의해 알려졌다는 식으로 공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섬패간에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을 포함한 보복을 받을지모를 이같은 암살계획에 가담하는 피가 서명했다는데 의문을 제기했으며 암살단을 10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규모가 너무 큰것으로 보고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이 정보가 美관리들에 의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포스트紙는 전했다.

한편 레이건 대통령은 가다피가 美국고위각료들을 살해하기위한 암살단을 파견했다는 증거를 美國이 갖고있으며 「카다피는 그것을 알고있다」고 주장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가다피가 6일 암살단파견보도를 부인하고 레이건을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한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밝힌후 『내가 당신이라도 그의 말은 한마디도 못믿을것』이라고 말했다.

◇리비아暗殺團 증거밝히는 레이건

리비아암살단의 미국잠입설이 나도는 가운데 레이건美대통령이 7일 백악관 기자실에서 「암살단」의 對美잠입증거를 가지고있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7日AP線=聯】

勞組파업권 一部허용

波정부、重大양보

【바르샤바7日AP=聯】폴란드의회는 자유노조의 일부파업허용을 정부의 노조에대한 중대양보조치가 담긴 노동관계법안을 法司委와 노동위에서 최종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오는 11일 소집되는 의회본회의에서 통과될 이 법안은 철도·우편·TV생산업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파업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의회내 강경파 의원들은 지금까지 이들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전면 금지시킬 것을 요구해 왔었다.

이법안은 대신 정부당국에 年1回에 한해 최장3개월기간의 파업금지령을 내릴수있도록 규정하고 바르샤바행정법원으로 하여금 자유노조간부들이 犯法행위를했을 경우 간부 改選을 노조측에 명령할수 있도록 할것을 규정하고있다.

波 자유勞組、정부顚覆기도

전국 支部長 비밀회의에서

政府측 主張

【바르샤바7日UPI·國際=聯】폴란드 자유노조(솔리다르노스크)는 지난4일 바르샤바 남방 96㎞지점의 라돔에서 가진 전국支部長 비밀회의에서 공산당정부를 전복하고 자유노조가 주도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하기위한 음모를 획책했다고 폴란드 정부당국이 7일 관영방송을 통해 공개한 자유노조 라돔회의 수록 녹음테이프를 인용, 주장했다.

자유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상대적으로 집권공산당의 지위를 격상시키기위한 對民선전용으로 폴란드정부가 이날 공개한 이녹음테이프는 정부가 연좌농성중이던 바르샤바의 소방간부학교생도들을 강제해산시킨후 市省당국을 제거하며 공산당정부가 더이상 아무것도 할수없음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테이프에서 국가의 경찰력에 대항하기위해 자유노조가 「노동자위대」를 설치, 자체의 경찰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부야크 바르샤바 지부장은

佛·라오스 外交재개

파리·브양트얀에 大使館개설 합의

【파리 8日AFP=聯】프랑스와 라오스는 8日부터 브양트얀과 파리에 각각 대사관을 재개설키로 합의했다고 방콕주재 프랑스및 라오스대사관이 발표했다.

라오스대사관이 발표한 「공동선언」은 양국 대표간 에 열렸던 파리에 따라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와 라오스는 지난78년8월 프랑스와 美中央情報局(CIA)이 75년 베트남의 지지를 얻고 집권한 親蘇파 데트·라오 라오스 정부전복 쿠데타를 기도했다는 라오스 비난에 따라 국교를 단절했었다.

南阿共장교참여"

세이셸쿠데타에 체포된 傭兵시인

【빅토리아(세이셸)7日AFP=聯】지난11월 쿠데타 발로 세이셸정부를 전복하려 실패한후 체포된 5명의 용병중 1명은 7일 자신이 南阿共和國軍 고위정보장교출신임을 시인했다.

이날 재판에 회부된 마틴·돌린체크(43)라는 이 백인 용병은 이날 가자들에게 자신이 南阿共시민이며 南阿共국가정보국(NIS)의 고위장교였다고 밝혔는데 지난11월25일 쿠데타에 참가하기 2개월전 NIS를 떠난것으로 알려졌다.

蘇當局 出頭지시

사하로프며느리에

【모스크바 8日AP=聯】소련당국은 7일 비자발급과 관련, 알렉세바 사하로프박사의 며느리 리사·알렉세예바에게 8일아침 출두하도록 지시한것으로 밝혀졌다.

사하로프박사의 부인 엘레나·본네르여사와 전남편과의 소생인 알렉세이·세묘노프(美國거주)와 미국에서 대리결혼식을 올린 알렉세예바는 남편과 합류하기 위해 미국행여권발급을 신청해왔는데 소련당국에 의해 번번이 묵살됐었다.

알렉세예바는 당국의 출두지시가 전해진 이날 모스크바에있는 사하로프박사의 아파트에서 西方기자들과 만나 당국의 출두지시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의미하는것인지는 불명치않다고말했다.

外國기업에 所得稅

中共、누진률적용 부과

【北京7日UPI·國際=聯】중공정부는 7일 현재 개회중인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제4차 전체회의에 중공내 외국인회사들에 2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것을 골자로한 새로운 외국기업소득세법안을 제출했다고 新華社통신은 이 외국기업이 중공의 관영 新華社통신이 보도했다.

新華社통신은 또 이미 수차례에 걸쳐 수정된바있는 이 외국기업소득세법안이 2종의 과세를 받지 하기위한 다는 나라들과의 쌍무협정의 법적근거가 될것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외국회사들은 국제관례에따라 소득세법에의거, 中共에 납세한경우 본국정부에 납세하지않아도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공의 정부는 모든외국회사에 일률적으로 40%의 적용되는 것으로서 20~40%의 누진세와함께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10%의 지방부가세를 징수하게되어있다고 말했다.

英, 최신高速列車 첫선

【바티칸시티UPI=聯】

영국의 최신고속열차가 7일 당초 계획보다 13년늦게 첫선을 보였다.

이날 글래스고—런던구간(6백41㎞)을 試走한 이열차는 최고시속2백55㎞를 낼수있는데 이를 개발하는데 5억4천3백만달러가 투입됐다.

이열차는 내년1월11일부터 런던과 글래스고간의 극히 제한된 노선만 운행하며 완전운행은 자동경사장치와 브레이크등 일부 기술상의미비점을 보완한후 1990년대에나 시작될 예정이다. 【런던=UPI】

外信안테나

◆教皇、男女同等 法制定촉구

로마교황요한·바오로2세는 6일 근로분야에서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는『사회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고 가정에 남기를 원하는 여성도 차별을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날 강론을 통해 『남녀근로자들의 사법상의 동등권문제는 남녀근로자가 동등함을 인정하는 사회법률의 제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또 가정에 남기를 원하는 여성들도 『심리적 또는 실질적인 차별없이 그리고 남편에비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함이 없이』 가정에 헌신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메아리

우리나라 동양화단에서 남농(南農) 허건(許楗·74·木浦市竹洞201)화백이 7일 희귀한 수석과 목물및 동양화등 1천6백56점을 목포시에 기증하였다.

시가로 치면 거액의 이를 기증품목 가운데 주종은 남농화백이 자기평생토록 수집한 수석이겠으나 일반의 관심은 오히려 기증품 가운데 일부를 차지하는 남농의 할아버지 小痴와 아버지 米山의 두화백 작품에 있을지 모른다.

첫이름이 許鍊이었으며 뒤에 許維로 개명한 소치화백은 조선말기 순조9년인 1809년에 진도에서 태어나 시·서·화에 함께 뛰어난 삼절로 불렸으며 벼슬이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그는 추사 김정희선생에 사사하여 산수·인물·매화·대나무·노송·모란·파초·괴석등 삼라만상을 두루 화제로 삼는데 거침이 없었다.

처음에는 궁벽한 진도에서 그림에대한 안목을 넓힐 길이 없다가 해남에있던 공재(恭齋) 윤두서의 가장품인 명화를보고 크게 눈을 떴고 31세때에 초의선사(草衣禪師)의 소개로 추사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화경에 큰 진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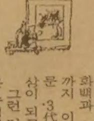
이밖에도 헌종(憲宗)의 총애와 흥선대원군의 지우를 얻고 당시의 권문인 권돈인과도 돈독히 사귀어 마침내는 추사로 하여금 「압록강 이동에는 소치를 따를 자가 없다」고 까지 절찬케 하기에 이르렀다.

소치화백은 고종29년 즉 1892년에 돌아가거니와 그 화풍은 아들 미산(米山) 허형(許瀅)화백과 손자인 남농화백에게까지 이어져 우리화단에서 드문 3代화백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터에 이번에는 손수 모은 수석과 고완품, 선조의 그림, 스스로의 작품을 지역사회의 문화적인 풍토를 보다 알뜰하고 드높게가꾸고자 기증을 하였으니 근래에 드문 운사(韻事)라 하지않을수 없다.

이를 기증받은 지역사회에서는 그 뜻을 살리고 보다 큰 사회적인 생색이 될수 있도록 일반의 폭넓은 호응도 있어야 겠고 또 관계 행정기관의 뒷바라지가 뒤따라야 할것으로 생각하면서 남농화백의 쾌거에 마음으로 부터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南農의 韻事



거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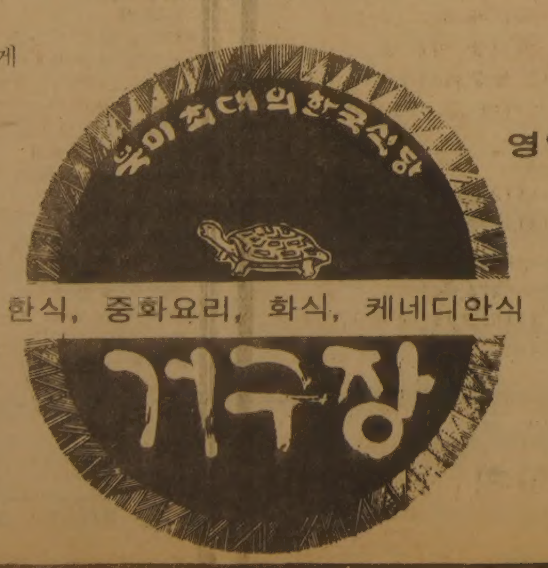
저희 거구장을 항상 사랑해 주시는 교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오며, 과거의 미숙한 점은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2월31일오후7시부터는 예약관계상 일반손님을받지 못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소 : 5 BETHRIDGE RD.

전화 : 742-1618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巨龜莊

회갑·생일파티·동창회등 각종피로연

●크리스마스및 망년파티 예약을 염가로 봉사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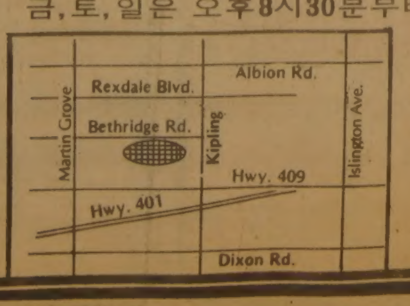
영업시간 :

월~금 : 오전11시30~새벽2시

토, 일 : 오후2시~새벽2시

일요일 : 9시~새벽1시

금, 토, 일은 오후8시30분부터 신현회와 그의악단출연



北傀불온비라 풍선 터뜨리는 배터리
한밤 民家지붕뚫고 안방덮쳐

서울弘濟洞

TV보던 가족에 날벼락
길이 5㎝ 40개뭉치 쏟아져

북괴가 불온비라를 띄어보낸 대형풍선에 매달았던 풍선폭파용 배터리뭉치가 한밤중 하늘에서 낙하, 민가의 지붕을 뚫고 방바닥에 떨어졌다. 7일밤9시30분께 서울西大門區弘濟3洞6의17 金寬植씨(41·상업)집 지붕에 이 배터리뭉치가 떨어져 지붕을 부수고 건넌방 바닥에 떨어졌다。그러나 방안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천장 30㎝ 박살…풍선조각등 어수선
긴급出動 경찰 收去, 즉각申告 당부

金씨에 의하면 이날마루에서 가족4명이 함께 TV를보고있는데 건넌방에서 「꽝」하는 소리가 나 문을 열어보니 방바닥에 배터리뭉치가 떨어져 있었고 주위에 살색풍선조각 2개와 찢어진 포장용지가 흩어져 있었다는것。

이 배터리는 지붕과 천장을 뚫고 떨어진것인데 지붕은 지름 30㎝로 뚫려 있었고 기와7장이 깨졌으며 천장에는 도화선으로 보이는 줄 10m와 포장할때 쓴것으로 보이는 농구화끈 5m가량이 엉켜 걸려있었다。

배터리는 직경1.5㎝, 길이 5㎝크기의 소형 40개를 묶어 타르로 접착시켜 만든 80V짜리로 방바닥에 떨어지면서 부서져 소형배터리 10여개가 방바닥에 흩어졌다。

배터리 포장지로보이는 노란색종이에는 「건전지」란 삼각표가 붙어 있었고 「만든날짜 81·1·8」과함께 「미제국주의를 박멸하자」는 구호가 씌어 있었다。

金씨는 이구호를보고 북괴가 보낸 폭발물인줄알고 가족들을 다른방으로 대피시킨뒤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이 배터리를 수거했다。

조사결과 이 배터리는 북괴가 유인물살포용고무풍선에 이용한폭발장치의동력원으로 부착한것으로 弘濟3洞 상공에서 폭발, 낙하하면서 유인물은 바람에 날려가고 배터리만 金씨집지붕에 떨어진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군당국은 『북괴는 오래전부터 고무풍선을 이용, 각종 불온선전물을 공중살포하는등 유언비어를 날조·유포시켜 사회혼란조성에 광분해왔다』고 밝히고, 7일밤 弘濟洞에 떨어진 고무풍선의 잔해는 이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앞으로 계절풍을이용, 북괴가 계속 불온선전물을 공중살포할것에대비, 시민들은 이불온전단등을 발견하는 즉시 인근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줄것을 당부했다。

◇치떨리는 蠻行의현장 — 북괴가 날려보낸 불온비라 살포용 대형풍선에 달렸던 풍선폭파용 전원배터리뭉치가 하늘에서낙하、민가의 지붕을뚫고 방바닥까지 떨어지는 사고가났다。

◇反美 口號쓰여 — 金씨집 방바닥에 떨어지면서 부서진 배터리뭉치와 도화선。배터리포장용지에는 반미구호가 쓰여있다。

전국嬰兒 2천6백명 檢診
保社部지시 保護시설도 달마다點檢
疫學조사반 大田急派 死因조사나서
"대부분 호흡기질환 紅疫환자1명뿐"
死亡10명 15명앓아

보사부는 8일 大田 피얼즈영아원에 漢陽大 朴[illegible]교수팀과 국립보건원 역학조사반을 보내 연쇄사망한 영아들의 사인과 집단질병의 내용을 조사하도록 했다。

보사부 방역당국은 충남도 방역진의 1차조사결과 나타난 사인은 대부분 호흡기질환에 의한것이며 홍역환자는 1명뿐으로 보고됐다고 말하고 사망한 어린이 10명과 나머지 원아들의 가검물을 모두 채취,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이사건을 계기로 전국34개영아원에 수용된 2천6백여명의 5세미만 어린이에대해 일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각시도에 지시하고 특히 영·유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된 정기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철저히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大田시는 이사고를계기로 앞으로 영아원에 입소하는 모든어린이들을 東區보건소에서 질병감염여부에 대한 사전검진을 실시, 환자가 발견될경우 완전히 치료시킨 후 입소시키기로 했다。

또 大田시는 피얼즈영아원에서 자체치료중이던 金춘희양(생후 8개월)등 8명의 어린이를 시내東區大禾洞 大田종합복지병원에 긴급입원시키고 입소중인 82명의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그런데 10월말께부터 홍역이 번지기 시작한 이 영아원은 지난달11일 유시애양(4)이 합병증인 폐렴으로 숨진 것을 비롯, 8일까지 10명이 숨지고 15명이 앓고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영아연쇄死亡계기

無關心속 어린生命들
大田피얼즈 「연쇄死亡」 문제점
병나면 "쉬쉬" 申告않고 어물쩍
질병 無防備속 당국監督손길 안미쳐
병원선 重病불구 "입원실없다"며外面

한마디로 우리사회의 양심이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는가를 통감케하는 사건이었다。10명의 어린이들이 차례로 숨져가는동안 이들을 돌봐야 할 영아원도 무관심했고 병원도 외면했고 보사당국도 이를 거들떠보지 않았다。지난9월의 城州보육원 집단식중독사건이 엊그제 같은데도 영아원은 여전히 이사회에서 [illegible]

이같은 상황에서 저항력이 없는데다 영양상태마저 나쁜 영아들은 질병에 무방비일수 밖에 없었다。그러나 많은 생명을 앗아간 것은 홍역이 발생한뒤 [illegible]

피얼즈영아원은 영아들을 돌보아야할 간호원1명도 없었고 규정상 15명을 두게된 보모역시 겨우 8명밖에 없어 영아들의 건강문제는 거의 신경을 쓰지않은것으로 나타났다。뿐만아니라 기아와 미아를 입소시킬때 사전검진을 받도록 돼있으나 이를 실천하지 않았다。

[illegible]

피얼즈영아원은 지난 65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이 설립한 영아원으로 16개의 영아실을 갖춰 1백50명을 수용할수 있으나 현재 10개영아실에 97명을 수용하고 있다。

[illegible]

【方敎俊기자】

금복주社長집 새 협박편지
"6천만원 내라"

【大邱=聯】속보=금복주사장 金泓植씨집폭발사건의 범인에관한 정보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현금6천만원을 요구하는 또다른 두차례의 협박편지가 金씨집에 날아든사실이 8일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1월27일자와 12월1일자 釜山鎭우체국소인이 찍힌 이편지들은 발신인이 『釜山시東萊구에서 林영근』이라고 쓰여있었으며 수신인은 『大邱시中區三德洞2가96의6 金泓植씨방 金경순앞』으로 되어있었다。

11월27일자의 첫번째 편지에는 『범인들이 사용했던 깡(시한폭탄지칭)을 제공한 사람이 자신』이라면서 『현금 6천만원을 12월3일11시(상·하오 밝히지 않았음)까지 釜山성지곡공원정문앞 섬수다방으로 경순양과 金사장운전사가 가져오면 6천만원중 1천만원은 되돌려주고 5천만원만 받은뒤 범인들에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 쓰여있었다。

이편지는 보통사용하는 편지지2장에 또박또박 쓰여져있었다。

또 12월2일이 2번째편지도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 이름등이 첫편지와 같았는데 편지지1장에 쓰여진 이편지에는 『매일 받아먹는 우유를 조심하라。바늘구멍으로 극약을 넣어 배달할지모른다。가족들의 몸을 조심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主婦들 10億臺 도박
6명구속 公務員부인 數千萬원날려

【釜山=聯】釜山지검특수부 金炳南검사는 7일 10억대 가정주부도박단을 적발, 金義淑(47·東區草梁4洞 경희아파트801호·선장부인)、李畝順(47·東萊區長箭洞3 83·공무원부인)、鄭重仁여인(48·南區大淵6洞16 00·가정주부)등 6명을 상습도박및 도박장개장협의로 구속하고 金士洪씨(44·釜山鎭區 伽倻3洞 338의2·상업)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은주엄마(45·影島區蓬萊洞)등가정주부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도박장에서 현금대신 사용해온 5만원권 돈표39개와 1만원권 2백89개 및 도박자금을 빌어쓰고 갚은 장부등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20일 南區대연6동1 600의117 鄭여인집 2층방에서 1회에 판돈 40만원~60만원씩을 걸고 하루평균 70여회씩의 속칭 「아도사끼」라는 노름판을 벌이는등 지난달25일까지 모두 32차례의 화투판을벌여왔다는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들로 이중 공무원부인인 李여인은 그동안1천8백만원을, 상인인 金士洪씨는 2천여만원을 잃기도했다。

防衛兵 인질극
銃亂射 셋死傷
金浦다방서…1시간만에 검거

【金浦=聯】7일밤10시15분께 경기도 金浦郡陽村面陽谷里 원다방에서 M16자동소총과 실탄60발을갖고 무단이탈한 모부대소속 방위병 李훈구이병(22)이 鄭성신여인(33·다방마담)및 종업원 2명과 손님등 11명을 인질로잡고 실탄4발을 난사, 방위병1명이 숨지고 다방손님 2명이중상을입고서울永登浦시립병원에입원가료중이다。

범인 李는 이날 총과 실탄을지급받아 초소근무를 나가다가 무단이탈, 원다방에들어가 다방손님들을 인질로잡고 총기를 난사, 모부대소속 방위병 張석봉이병(22)이 복부관통상을 입고 永登浦기독병원으로 후송도중 숨졌으며 洪용기씨(28·金浦郡陽村面 원산부락)와 중국인 王후염씨(36·陽谷里424의27)는 왼쪽가슴에 관통상을 입었다。

범인 李는 陽谷지서 방범대원 강구씨(30·陽谷체육관장)가 밤11시2분께 덮쳐 검거했다。

한편 군수사기관은 범인李를 연행, 난동경위와 이유등에대해 조사하고있다。

人命輕視 뿌리뽑자"
인권옹호련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 李浩)은 7일 제33회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성명을 발표, 『인간의 생명이 경시되는 곳에서 인권이니 인간존중이니 하는것은 기대하기 어려운일이 아닐수없으며 이같은 인명경시풍조는 인권신장을 위하여 하루속히 뿌리뽑아야 할것』이라고 전제하고 『대망의 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이때 정부와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인권선진국 대열에 동참할수 있다는 긍지를 갖고 국민의 복지향상과 권익옹호에 가일층 분발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碩士정원20%·年 2천명內
대학원생兵役特例 국무회의의결

국무회의는 8일 대학원생들의 兵役特例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의결, 병역특례의 대상이되는 特殊전문요원의 선발인원을 碩士과정定員의 20%이내로 하되 毎年度 총선발인원은 2천명을 초과할수 없게 했다。

시행령案에 의하면 이법에 도 특수전문요원에정자는 일반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한 현역入營대상자 중에서 대학 수학能力의 성적과 국가가 시행하는 2과목의 외국어시험성적에따라 선발하되 자연계는 외국어시험1과목을 대학원입학시험에서 실시한 전공과목성적으로 대신토록 정했다。

新聞協회원 空軍장병위문

한국신문협회(회장 文胎甲서울신문사장) 회원일행16명은 8일 姜容求공군정훈감의 안내로 공군 일선전투비행부대인 공군 제○○부대를 방문、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으로 컬러TV5대를 전달했다。(사진)

이날 공군부대를 방문한신문협회회원은 다음과같다。

▲文胎甲 서울신문사장▲鄭九方又榮 조선일보사장▲金相萬 동아일보사장▲李鍾植 경향신문사장▲洪惟善 한국일보발행인▲權五賢 부산일보사장▲金宗太 광주일보사장▲安世永 대전일보사장▲羅炳厚 코리아헤럴드사장▲趙鍾愚 매일경제사장▲姜灼遠 강원일보사장▲朴相鎭 충청일보사장▲文東寧 전북신문사장▲李巾 경남신문사장▲崔永定 신문협회사무국장

支店長등 셋拘束
預金유출사건

【大邱=聯】속보=고객예금유출사건을 수사중인 大邱시경은 8일 고객이 예금하려고 은행에 맡겨둔 돈을 빼내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고 커미션을 받은 J은행 大邱西지점장 金英煥씨(47)와 J은행大邱南지점 당좌대리 李在優(38)、G은행 大邱西지점 당좌대리 金永萬씨(33)등 3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犯人 종업원검거
갈비집 殺人강도

서울奉陵경찰서는 8일 지난4일 발생한 서울鍾路區寬水洞 한복공업주식회사 金起永사장(53)집 강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吳모군(17·주거부정)을 붙잡아 강도살인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周時經선생 유해
國立묘지에 移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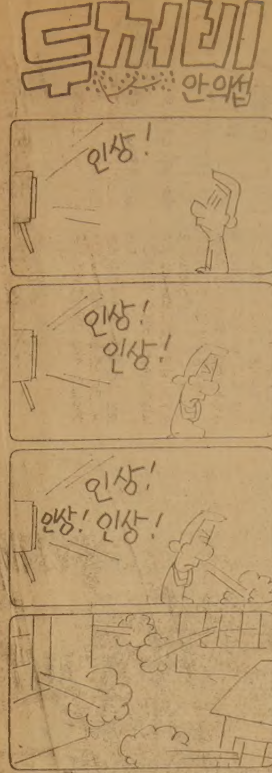
국무회의는 한글학회 창립60주년을맞는 오는12일 한힌샘 周時經선생의 遺骸를국립묘지에 移葬키로 8일 의결했다。현재의 墓所는 京畿도楊州郡榛接面長峴里에있다。

실종7일 變屍로
여객선案內 朴양

【木浦=聯】지난1일하오실종된 木浦~濟州간 쾌속여객선 안내양 朴福禮양(21·木浦市竹洞170)이 실종7일만인 7일정오께 靈岩郡三湖面龍塘里 바닷가에서 변시체로 발견됐다。

도박 宿直者구속
우체국 現金증발

【西歸浦=聯】속보=西歸浦경찰서는 8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온 西歸浦市中文우체국 우편행낭현금증발사건을 수사중인 전당일 숙직책임자 鄭成夫씨(32)가 그동안 상습적으로 도박을해 1백여만원의 빚을 진 사실을 밝혀내고 鄭씨를 상습도박혐의로 일단구속, 집중수사를 펴고있다。



SUN-LIFE
생명보험.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금년 크리스마스및 새해에는 한국일보 1년 구독권($90)을 만들어 선물 하십시요.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 형제에게… 또는 친지에게…… 그리고 멀리 있는 애인에게는 더욱 좋습니다.

한국일보는 오직 교민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쉬지않고 봉사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광고부
533·2361

DOMINION SMALLWARES

금주의 스페샬

Nov. 30 - Dec. 19 /81

			SPECIAL
Neilson Chunk		1.20x15¢	$10.65
"	Reg. Choco	36x40¢	9.59
Rowntree	CHOCOLATE "	"	"
Cadbury	"	"	"
Hersey	"	"	"
Lora seco	"	"	"
Lowney	"	"	9.95
Lee's snow ball		36x25¢	6.00
Breath savers		12x30¢	2.55
Y & S pipes, cigars, Mr. chew		48x10¢	3.05
Pargum		245x 2¢ ($1보너스 pack)	3.09
Estro pops		36x25¢	7.00
Sostgranola bar		40x35¢	7.00
Tottifay 391g		1 time $6.59	4.29
Peter puck		24x25¢	3.95
Moirs bag candy		24x25¢	3.45

DOMINION SMALLWARES
크리스 마스때 까지(일요일 오전중만 OPEN 합니다.
920 Caledonia Rd (Cash & Carry에 한함)
789-7214(MR. 김)
Lawrence / Keele / Caledonia / Dufferin

공군발기모임

모이자! 창공의 용사들이여.
재 캐나다 보라매회(가칭)발기총회를 아래와같이 갖고자 하오니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전역 공군장사병 여러분들은 한분 빠짐없이참석하여 옛정을 나눕시다.
일 시: 1981년12월29일(화) 오후7시
장 소: 거구장
회 비: $10
발기인: 김대억(857-1683)
김두성(494-6519)
조석봉(749-9687)
위정남(251-9587)
이웅식(821-3876)
이창환(742-2421)
이광한(630-2400)
〈가나다순〉
발기인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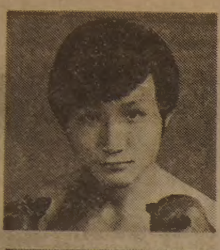
한국프로복싱 東洋무대 누빈다

12體級중 챔피언8명

金成南, 13일 比카르포에 挑戰

한국프로복싱이 아시아 무대에서 그 절정기를 맞고있다. 金喆鎬(WBC 슈퍼플라이) 金煥珍(WBA 주니어플라이)등 2명의세계챔피언을 보유중인 한국은 특히 동양무대에서는 압도적 강세를 보이고있어 최근 국내복싱의 저변증대현상을 뒷받침 해주고있다.

文泰鎭·柳煥吉 새 챔피언에


◇文泰鎭

◇楊弘洙

현재 OPBF(동양·태평양권투연맹) 총12체급중 한국은 8개. 동양최중량급인 미들급의 朴鍾八을 필두로 黃忠載(웰터) 金相賢(주니어웰터) 金光玟(라이트) 文泰鎭(주니어라이트) 權純川(주니어밴텀) 楊弘洙(플라이)등이 챔피언 자리를 지키고있다. 이중 黃忠載가 11차방어로 가장 오래 왕좌에 군림중이며 朴鍾八(10차)이 그뒤를 잇고있다.

지난6일엔 국내복싱사상 처음으로 한국선수끼리의 OPBF타이틀전이 벌어져 文泰鎭 柳煥吉등이 吳永世 黃正源을 각각 물리치고 새챔피언으로 탄생했으며 楊弘洙만이 申甲徹을 판정으로 눌러 타이틀을 지켰다.

한국의 이같은강세는 OPBF회장국을 한국이 맡고있다는 잇점도 작용한것이지만 무모한 세계도전보다는 착실히 단계적으로 성장, 기회를 엿보겠다는 풍조가 정착된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이 현재 지배하지못한 체급은 주니어미들(미하라·다다시) 밴텀(무라다·에이지로) 주니어페더(윌리·루카쓰) 및 주니어플라이(시오니·카르포)급등 4개체급뿐. 그러나 오는13일 金成南이 시오니·카르포를 서울로불러 도전에나서며 주니어미들급챔피언 미하라의 타이틀반납이 임박, 李商虎(1위)—白仁鐵(2위)간의 챔피언결정전이 벌어질 예정이어서 이같은 호조는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男子1만m 27분43초5

英로우즈選手 世界新수립

【애너하임(美캘리포니아州)7日AP=聯】英國의 닉·로우즈는 7일 미국캘리포니아州 애너하임에서 벌어진 남자1만m경주에서 27분43초5로 우승,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종전세계기록은 지난 4월 美國의 마이클·무시오끼가 세운 27분55초였다.

李順禮·鄭鎭愛선수 個人 13위15위차지

◇日(?)컵 체조서

日(?)컵 국제체조대회에 참가한 한국의 李順禮(수원여고)와 鄭鎭愛(청주여고)는 개인종합에서 각각 13, 15위를 마크했다고 8일 선수단이 알려왔다.

종목별 경기 평균대에서는 李順禮가 6위, 鄭鎭愛가 8위를 기록했다.

내년1월20일확정 金喆鎬渡日방어전

【東京支社】프로복싱 WBC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金喆鎬와 도전자인 日本의 이시이(石井)간의 타이틀매치는 당초 예정됐던 내년1월2일에서 1월20일로 연기됐다고 이시이측이 7일 발표했다. 경기장소도 大阪에서 釜山으로 옮겨졌다.

한편 金의 매니저인 全浩然씨는 『金이 자칫·마루야마와의 방어전때 의외로 심한 타격을 받아 차기방어전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프로野球 근거지配定싸고 심각한 試鍊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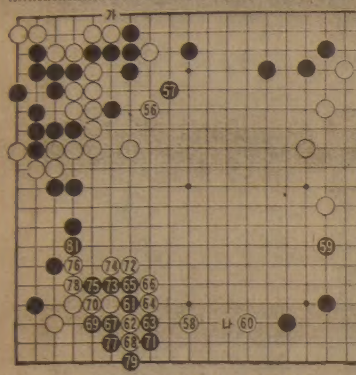
프로야구가 근거지 배정을 둘러싼 심각한 이견대립으로 또한차례 시련을 겪고있다. 5일 당초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등 6대도시에 각각 1개구단을 두기로했던 방안을 변경, 서울에 2개구단, 仁川·大田지역을 묶어 1개구단을 두는것과 大田에 배정된 구단을 85년에 서울로 옮긴다는 2가지 조정안을 새로이마련, 협상에 들어갔다.

프로야구에 참여하고 있는 6개기업중 MBC를 비롯, 三星, 롯데등이 모두 서울에 근거를 두기로희망하고있으며 라이벌기업들이 강력한 전파매체를가진 MBC의 서울독점에 반발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일부에서는 프로야구가 고교야구의 열기를넘겨받아 발생하게된 팀과연고를가진 특정지역간의 과열경쟁화현상을 우려하고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9局第4譜56~81　(각 5시간 / 덤 5집반)



白(4段)裵 動〈2勝0敗〉
黑(4段)鄭 壽 鉉〈1勝1敗〉

본보는 전체형세를 크게 좌우하는 고비이므로 전보에서 지적된 요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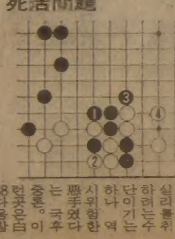
우선 白56. 이곳은 黑「가」의선수가 듣기때문에 공연한수. 즉 黑은57을 응수할 필요가없었다. 따라서 56은 직접하변을 58에 선착할시기였고 黑으로서는 57로 63자리에 육박하여 판세를 유리하게 짜아갈 찬스였던 것이다.

白58을 두게된것은 일종의 행운이랄까. 白은 용하게 어려운 고비를 넘긴 셈이다. 黑59와 白60은 이른바 맞보기의곳. 그러나 59로는 「나」의곳으로 벌릴겸다가서놓고 다음에 63으로침입할기회를보는것도유력한수법이었다.

다만 黑61이하 白68까지 적진삭감의 정석과정은 아마추어로서 익혀둘일이다. 그런데이때 黑69로 변화를 꾀한것은 실리를취하려는수단이기는 하나 역시위험한 緩手였다는 국후 중론. 이런곳은 白68다음참고도처럼 黑1、3으로 바깥쪽을강화해야된다. 그렇더라면 전체형세는 아직도 黑이 유망했는데 보다시피 白에게 외곽을 철통처럼 조여붙이게한모습부터 옹졸하기 짝이 없다. 불안한 이곳黑은 생사문제가 당면한 걱정거리.

과연 白은 당장 이黑을 잡으러 갈것인지. 裵4단은 그러나 白82를 여간해서 두려하지 않는다. 어째서일까. 80…62 【一凡】

黑 一團의 死活問題



徐奉洙 불계승

日다께미야에 百51수만에

韓日바둑 交流戰, 徐能旭—趙治勳 비겨

【東京支社】한·일정상급기사 바둑대항전에서 한국팀이 1승1무를 기록, 일본에서 한국바둑의 높은수준을 과시했다.

지난5일 일본도쿄 일본기원서열린KBS주최 한·일바둑교류전 제1국에서 徐奉洙7단은 다께미야(武宮正樹)전 本因坊에게 백51수만에 불계승을거두었다. 돌을가려 黑을쥔 徐7단은 3연성의 호쾌한포석「우주류」다께미야 9단에 시종 압도한끝에 중반에 접어들기도전에 이긴것이다.

사실상 흑51수에서 승부가 끝난 이날 바둑을 끝까지 둘경우 徐7단은 덤5집반을주고도 15집이상 이긴다는것.

이어 열린 제2국에서 徐能旭6단은 순선으로 趙治勳명인·본인방에게 선전한끝에 2백86수만에 비겼다. 비록 승부는 和局(빅)으로 끝났지만 徐6단은 중반이후 趙2관왕을 계속 리드, 趙2관왕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두 대국은 15, 16일밤10시께 부터 KBS·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한국일보

한국일보 구독신청은 (416)533·2361

九味浦해수욕장

나의 이력서

〈題字·元一漢〉

元一漢 ⑫

아버지 元漢慶박사(1890~1951년)는 괴나리봇짐을 메고 걸어다니던때 한국에와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던 시대까지 한국에서 살았다.

그가 어렸을때 걸어서 하루 걸리던 곳을 젊어서는 자동차로 1시간이면 갈수 있었고, 또 젊어서 자동차로 하루종일 달려야 했던 곳을 만년엔 비행기로 1시간이면 도달할수 있게됐다고 술회한 일이 있다.

내가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全州에서 전도하고있던 같은 미국남장로회 선교사를 가끔찾아갔는데 자동차로 이틀이나 걸린것으로 기억된다.

자동차의 성능이나 도로사정으로보아 公州쯤에서 하룻밤을 쉬어야만 했던것같다.

나는 아버지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로 가끔 황해도 長淵九味浦까지 나들이한 일을 결코 잊지 못한다. 그때는 새벽녘에 출발해도 어둑어둑 할때까지 기껏 달려봐야 海州를 지나지 못했다.

몽금포가 멀지 않은 이 구미포는 일찍기 할아버지(元杜尤목사)가 황해도 선교길에 발견, 해수욕장으로 개발한 곳으로 물맑고 바람시원하고 경치좋기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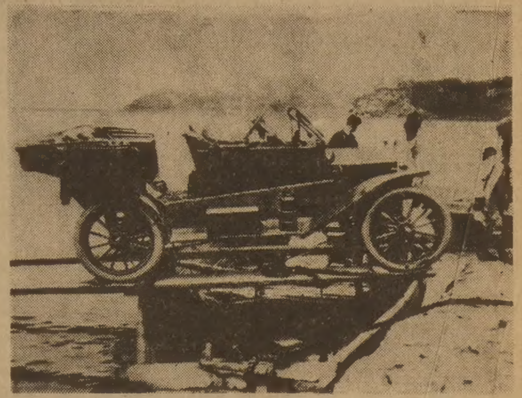
나는 九味浦해수욕장의 일들이 지금은 가고싶어도 갈수없기때문인지 몰라도 그경치가 꿈같이 더욱 아련히 떠오른다.

할아버지는 소래(松川)에 세운 교회에 자주 다니면서 이곳에서 가까운 해변의 九味浦가 세계적 景勝地임을 발견하고 선교사들의 휴양지로 개발한 것이다.

祖父가 선교사休養地로 개발

白樂濬박사가 지은 「元杜尤博士小傳」에는 『서해안을 전도순회하다가 長淵 九味浦가 피서지로 최적함을 알고 매입하여 선교사들의 피서지를 만들었는데 그 景槪가 동양제일이라고 하니 황폐한 어촌에 피서를 찾음도 壯觀이요, 주야로 전도에 노력하면서도 휴양의 필요를 생각한 것도 여간한 계획에서 나온일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있다.

이九味浦해수욕장까지는 육로보다도 仁川에서 배를 타고간 횟수가 더 많았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자동차를 배에다 싣고 갔다.


◇아버지 元漢慶박사가 한국에서 맨처음 인지는 모르겠으나 비교적 빨리 타고 다녔던 자동차모습. 나룻배에싣고 九味浦 해수욕장에 갈때 찍은 것이다.

"東洋제일의景勝"…아버지 自動車처음타고 다녀

아버지에게는자동차를타고다니면서겪는에피소드가 더러있다. 아버지는뉴욕대학졸업후 선교사가 되어다시 한국에 왔고 어머니는 외국인학교 교사로 있었다. 가끔 둘이 외출했는데 그때마다 한국어린이들이 줄줄 따라 다니며 구경했다고 한다.

이때 아버지가 『얘들아 길을 비켜라』고 했는지 아니면 무슨 말을 했는지는 확실치않으나 신경을 많이 쓰곤하다.

한번은 어머니 혼자서 인력거를 타고 외출했다. 역시 아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길을 막았다. 한국말을 잘하지 못했던 어머니는 『저리가』하고 소리쳤다. 이 소리를들은 인력거꾼이 한국에서는 여자가 호령조로 이야기하는것이 아니라고 일러주더라고 회상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한뒤의 이야기지만 또한번은 다른 선교사 부부와 넷이서 자동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다가 그만 자동차가 고장나고 말았다.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동네사람들이 빙둘러서서 서양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구경꾼들의 화제는 이 네명의 남녀가 누가누구와 부부냐는데 집중됐다. 구경꾼들은 늙은 남자와 뚱뚱한 여자가 부부일거라고 입을모았다. 이때 아버지는 한국말을 환히 알아들었으면서도 이를 못들은척했다. 왜냐하면 어느 남자치고 자기가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여자치고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梁·朴 銀메달 헝거리팀에 惜敗

스칸디나비아 卓球여자복식

【백세(스웨덴)=李廷元특파원】韓國의 梁英子—朴末粉조는 6일 스웨덴의 백세에서 폐막된 제24회 스칸디나비아 오픈탁구대회 여자복식결승전에서 헝가리의 주디트·마고스—가브리엘라·스자보스조에게 2—0(9—21, 18—21)으로 석패,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다.

여자복식준결승전에서 韓國의 李壽子—金貞美조는 梁英子—朴末粉조에게 2—1(16—21, 21—11, 21—17)로, 黃男淑—安海淑조는 마고스—스자보스에게 2—1(15—21, 21—16, 21—12)로 각각 패배, 공동3위를 마크했다.

혼합복식 준결승전에서는 盧潤寬—梁英子조가 폴란드의 안드레즈·그루바와 네덜란드의 베티네·브리에세루프조에게 2—0으로 패배, 역시 3위에 그쳤다.

여자단식준결승에 진출했던 安海淑은 中共의 戴麗麗에게, 8강에 올랐던 金貞美는 陳莉莉에게 각각 3—0, 3—1로 져 결승진출의 꿈이 깨어지고 말았다.

한편 中共은 남자단식및여자단식에서 장·지아리앙과 陳莉莉의 우승으로 탁구최강국임을 입증했다.

남자복식에서는 유고의 드라구틴·수르베크, 조란·칼리닉조가 우승했으며 혼합복식에서는 폴란드의 안드레즈와 네덜란드의 베티네조가 우승을 차지했다.

◇최종일전적

▲여자복식결승
주디트·가브리엘라 2 (21—9, 21—18) 0 梁英子·朴末粉

▲혼합복식준결승
안드레·베티네 2 (21—15, 21—17) 0 盧潤寬·梁英子

◇여자단식결승
陳莉莉(中共) 3 (21—8, 21—19, 21—19) 0 戴麗麗(中共)

◇여자단식준결승
戴麗麗(中共) 3 (21—17, 21—18, 21—17) 0 安海淑

中共의83년國體 臺灣초청예정

【北京5日AFP=聯】中共은오는83년上海에서 열리는제5회全國綜合運動會에 臺灣을 초청했다고 관영 新華社통신이 5일 보도했다.

柔道 銀메달리스트 趙在基씨 9일華燭

유도올림픽銅메달리스트인 趙在基씨(東亞大체육과전임강사)와 양궁 前여자국가대표치 李桂庭씨가 9일하오1시 金山南浦洞 제일예식장에서 결혼식을 갖는다.

流星의 賦 <255>

李炳注作　李友範畵

感傷異國月 ㉑

『내가 익힌 검법은 백원검법(白猿劍法)이라고 하오이다』

하고 계남은 먼저 그 이십사법(二十四法)의 대강을 설명했다.

『제1이 구결(扣訣)。아까 내가 맨처음 취한 자세가 바로 이요。전후 좌우로 용맹무쌍하게 운신(運身)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요。제2가 비연천운(飛燕穿雲)。즉 우족전진(右足前進)앞보 좌고 양일타각하여 검을좌우료로 하회봉향전(下回鋒向前)하여 충척(衝刺)하는 식이오。제3은 야마분종(野馬分鬃)전신향북(轉身向北)족작마보(足作馬步)종하향후만화(從下向後挽花)봉황점두(鳳凰點頭)참지불승(斬地不勝)하는 식이오…』

이렇게 계남은 제4 탐해구주(探海求珠) 제5 회신적과(廻身摘果) 제6 조천일주(朝天一柱) 제7 금룡세(擒龍勢) 제8 복호세(伏虎勢) 제9 연자천염(燕子穿簾) 제10 선학탐경(仙鶴探頸) 제11 여주독탐(驪珠獨探) 제12 아호탄양(餓虎吞羊) 제13 소탕군마(掃蕩群魔) 제14 백홍관일(白虹貫日) 제15 고수반근(古樹盤根) 제16 횡강비도(橫江飛渡) 제17 배검세(背劍勢) 제18 백사토신(白蛇吐信) 제19 사비세(斜飛勢) 제20 요자번신(鷂子翻身) 제21 이룡희주(二龍戲珠) 제22 독벽화산(獨劈華山) 제23 백학량시(白鶴亮翅) 제24 포호귀산(抱虎歸山)의 순으로 강술하며 일일이 그 체형(體形)을 몸소 가르쳤다.

강술이 끝나자 가나이는 『우리 검술로 치면 면허개전(免許皆傳)을 소상하게 가르쳐 준 셈이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소』하고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날 숙소로 돌아간 홍계남은 황진(黃進)을 찾았다. 황진은 당상군관(堂上軍官)으로 계남의 직속상관이었다.

황진은 계남의 말을 듣고 있더니 『여독(旅毒)이 심할텐데도 개의치 않고 배우고자 하는 그 심사 갸륵하오。나도 일찍기 일본의 검술이 탁월하다고 들었소。그러니 배울만 한 것이 있거든 배우소。그러나 아무리 배울 것이 있다고 해서 비굴해선 안될것이오。호호탕탕 군자의 위엄을 지닌고 배우면 과히 실수는 없으리다』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보탰다.

『그 가나이라고 하는 자가 검술의 극의(極意)를 터득한 자라면 나도 한번 만나 보고 싶구려』

황진의 장기(長技)는 말을 타고 대도(大刀)를 쓰는 법이었다. 이튿날 황진과 홍계남은 나란히 말을 타고 가나이도장(金井道場)을 찾아갔다.

황진은 수인사가 끝나자 『일본의 대도(大刀)를 쓰는 법을 보고 싶다』고 했다.

『일본에도 나기나따(薙刀)라고 해서 대도를 쓰는 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도장에선 가르치고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그 대신 『창법(槍法)의 소양이 있는 자는 우리 도장엔 있읍니다』

했다. 황진이 말했다.

『그럼 창법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가나이는 그것도 사양했다.

『검술은 보여 드릴 수가 있지만 창술은 전세(戰勢)를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라서 비중(秘中)의 비(秘)로 되어 있읍니다』

하는것이 그 이유였다.

새벽에 동풀 <14>

梁貴子作　金光培畵

고속버스는 첫차답게 썰렁하였다. 풀빛의 오버코트를 입은 승희는 서슴지 않고 차쪽으로 갔다. 첫차로 갔다가 막차로 돌아오는 여행. 이 여행을 제의한 것은 내가 아니었다. 승희, 바로 그녀가 길다란 침묵끝에 내게 준 따뜻한 선물이었다.

『일주일 남았어요. 해가 바뀌기 전에 떠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이런 말을 해서 나를 경악케 했던 여자였다.

『가까운 곳으로 떠나봐요. 마지막으로 이런 사치쯤 부려봐도 좋겠죠』

이 땅은 왜 이 여자를 학대했는가. 왜 돌아올 곳도 없이 떠나가게 만들었는가?

터미널에서 곧장 막차표를 예매하고 나서 우리 둘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서울에서 두시간 남짓 달려온 뒤 만난 어 낯선 도시에서 우리 들은 새삼 코트깃을 여미며 서먹해 했다.

어디든 회색 담벼락이 자아내는 우울한 얼굴이킨 마찬가지였다. 곳곳에 죽순처럼 자라있는 도회의 빌딩들.

나는 시외버스 터미널로 그녀를 데리고 가서 아무거나 시골로 가는 버스를 탔다. 들판의 바람이라도 맞지 않는 한 이 여행이 허망한 사치로 끝나버릴 것만 같았다.

『겨울은…정말 쓸쓸하네요』

버스에서 내려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녀가 혼잣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거친 손길로 다듬어 놓은 듯한 빈들녘과 산발치에 초라하게 엎드린 마을들. 바람은 악착같이 우리 둘 사이로 파고 들었다.

『바람이 칼날같아요』

내 침묵을 못견디하면서 그녀가 애써 웃어보였다. 그러나 그 미소 역시 메마르고 지친 것이어서, 우리 발밑에서 부서지는 시든 풀잎처럼 허공중에 금방 사라졌다.

『돌아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순간 그녀를 붙잡을 수 있으리라던, 작은 희망이 내 마음 저편에서 무너져 내렸다. 추위처럼, 아니 이 추위때문에 불안이 마음 가득 밀려왔다.

그녀를 그냥 보내서는 안돼. 돌아오게 해야지. 붙잡을 수가 없다면 돌아오겠다는 약속만은 받아야돼.

그러나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야트막한 야산에서 마른 풀잎을 깔고앉아 우리는 그저 서글픈 인내만을 되풀이 했을 뿐이었다.

시내로 돌아와서 이미 어두워진 거리를 택시로 달리며 문득 그녀가 말했다.

『차표 시간이 혹시 틀리지나 않았을까요』

시간은 정확했다. 20시 출발.

『너무나 분명하군요. 실수라는 것도 없이…』

승희의 얼굴이 더욱 스산하게 구겨졌다. 실수도 없이 …둔탁하게 가슴을 치고 떨어지는 그 무엇이 있었다.

나는 막막한 기분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울에 다 와가도록 승희는 차디찬 유리창 저편으로 눈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그녀를 바라보는 나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다가는 스쳐지나가는 다른 불빛 때문에 사라져버리곤 하였다.

유리창속에 갇힌 또 하나의 나를 향해 말하듯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네가 곧 돌아오길 빌께』

그녀의 시선이 먼 데를 보았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돌아오겠지?』

『……』

역시 대답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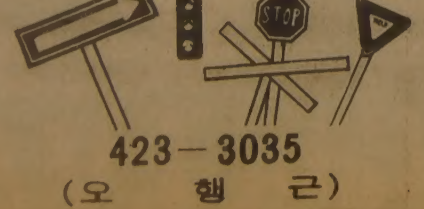
"전통의 중국음식"
—CATHAY RESTAURANT—
●모든 종류의 해산물 취급
●유명한 중국인류 요리사
●와보시면 압니다.
國泰酒家
10:30AM~11:00PM(화요일은 문닫음)
475—485 DUNDAS ST. W. 2층
전화: 368—2671~2
國華酒樓
●술취급 합니다.
10:00AM—11:00PM(수요일 문닫음)
457—459 DUNDAS ST. W.
전화: 363—2305~6
(스파다이나×던다스)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 Willowdale Office: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416) 222—9480

서울식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CATCH A RABBIT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368—4215, 368—0114

운전교습


423—3035
(오 행 근)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Wilson / Eglinton / Keele / Bayview / CHINA HOUSE / Bloor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한국일보

大學定員 초과된 학생
脫落안시키고 修了證

4學年까지 모두進級검토
탈락方法원칙 大學自律로

李奎浩 문교부장관은 대학졸업 정원제실시에 따른 탈락시기및 비율을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따라서 4학년까지 1명도 탈락시키지않고 진급시켜 졸업때 졸업정원범위내의 학생에게만 졸업장을주고 나머지학생에게는 수료증을 줄수도있을것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7일『졸업정원제의 최대목표는 대학생들에게 공부를하게 하는것이기 때문에 우리대학들이 공부하는대학으로 변모한다면 굳이 학년때 몇%씩을 탈락시키느냐하는 문제는 중요하지않다』고말하고『따라서 졸업정원제에 의한 탈락방법과 비율은 대학의 자율에맡길것』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장기적으로는 입학인원을 졸업정원의1백30%뽑는다는 규제도 대학의 사정에 따라 대학이 결정하도록 이를 풀겠다』고말하고『그때가되면 대학은 시설등 여건에따라 모집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문교부는 지금까지 졸업정원제실시에 따른 학년별 탈락기준을 정해놓아 각대학에서는 이를 학칙에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졸업정원외의 30%의 증원모집분에 대해 2학년말까지 18%안팎을 탈락시키고, 4학년 진급시에는 10%이상을 진급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해두고 있다.

따라서 李장관의 이날발언은 문교부가 앞서 제시한 탈락시기및 비율을 백지화시킨것이며 각 대학은 자유롭게 탈락방법과 시기를 결정하게 되는것이다.

특히 李장관은 이날『학생들이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정원제 실시의 의도가 실현된다면 4학년까지탈락자를 강제로 만들것이아니라 전원을 진급시켜 졸업정원이 넘을 경우에 한해 수료증을 줄수도있다』고말해 앞으로 학사학위를 못받고 수료증만 받는 학생이 생기게 됐다.

李장관은 이날 이같은정책을 밝히면서『목표만 뚜렷하다면 나머지 지엽적인문제는 그때그때 상황과 여건에따라 얼마든지 신축성있게 운영될수 있다는 것이 문교부의기본입장』이라고 말하고『대학은 졸업정원제의 기본목표를 깊이 인식, 면학분위기를 계속유지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李文敎

學士證없는 大卒生나올수도

해설

李奎浩문교부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졸업정원제의 기본적인 내용이 변한것은 없다. 하지만 중도탈락이 없어질수도있다는점은 큰변화임엔틀림없다. 李장관의 발언내용은 정원의 1백30%를 뽑아 그중 30%를졸업때까지 탈락시킨다는 기본틀안에서 다만 당초정해왔던 탈락의시기및비율을 대학측이 마음대로 결정하도록해준것이다.

당초 문교부는 졸업정원제를 실시하면서 대학4년과정동안 한꺼번에 30%를 탈락시키는등 부작용을 우려해 탈락비율과 시기를 쪼개서 정해주었다. 그러나 각대학이 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학년 몇%, 3학년 몇%씩으로 이를 강제시행할때 생겨나는 문제점때문에 30%는 탈락시키되 언제 얼마나의문제는대학에맡겨버린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2학년의 관문, 3학년의 관문, 졸업의 관문이 따로 있던것이 대학에 따라서는 졸업의 관문만 남는꼴이 됐다. 졸업정원제의또한가지 문제점은 2년 중도탈락자, 3학년 중도탈락자가 전과나 타대학 편입이 어려운데다 사회적응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런문제가 없어질수 있는 대신 대학4년수료자라는 학사증없는 졸업생군이 생겨나게 됐다.

李장관의 이번조치로 졸업정원제에 따라 탈락의「긴장」은 졸업때까지 4년동안 줄곧 계속되게 됐다는것도 큰 변화라고 할수 있다. 【福】

無記名 진정·投書 內査말라"
李法務、檢事長회의서지시
벌과금郵送·分納制신설

◇李鍾元법무장관은 새해 법무행정의 시책방향을「法과 秩序의 체질화」에 두기로했다고 밝히고 대민편의를위해 구속자면회절차 간소화등 6개의 사무규정을 간소화하기로했다고 발표했다。

새해부터 까다롭고 복잡하기만 했던 구속피의자와 가족과의 면회가 보다 쉬워지고 벌과금은 우송·분납제도로 나누어 낼수있는 길이 생겼으며 진정사건도 항고권이 인정되는등 검찰사무가 대민편의방향으로 민주화된다.

李鍾元법무부장관은 7일상오 대검회의실에서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구속피의자의 면회절차 간소화등「7개 사무규칙」을 법무부령으로새로제정, 내년1월1일부터 실시 한다고 밝히고 이에따른 사무체제를 갖추라고지시했다.

李장관은 이날 훈시에서『현재 우리가 처한 시대적상황에서 정의사회의구현여부가 바로 국가의 운명을좌우하는 기본적인 조건이기때문에 새해 법무행정의 시책방향을「법과질서의체질화」에 두기로 했다』고 밝히고『이를위해 검찰은 실정법의 존엄성을 최대한으로 고양하여 그집행과 준수에 만전을기해나가야할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사무규칙 6개항

▲구속중인 피의자와 가족과의 접견금지결정 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접견금지결정의 남용을 최대한 억제할것.

▲진정서에의하여 입건된사건이 불기소처분된 때에는진정인에게 고지실을통지하고 이에 불복할수있는 항고권을 인정할것.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해 再起수사명령이 발해진사건은 당초에불기소처분한 검사가 재기수사를 하지못하도록하여 불필요한 민원(民怨)을 야기치말도록 할것.

▲무기명, 기명 또는 타인명의를 도용하거나 내용이불분명하고 단순한 풍문 또는 인신공격적인 내용의 진정, 탄원, 투서등은 내사(內査)할 필요없이 공람종결처리토록하여 국민총화를 해치는중상모략풍조를 없앨것.

▲벌과금의 우송 납부절차와 분납제도를 신설, 성실한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할것.

▲사건이 종결처분 되기전이라도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사용해야할 물건등은 신속하게 환부또는 가환부 조치토록할것등이다.

法務·檢察간부에 全대통령이 만찬

全斗煥 대통령은 7일하오 청와대에서 전국檢事長회의를 마친 법무부간부들과 검찰간부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만찬을 베풀었다.

이자리에는 법무부측에서 李鍾元장관, 徐東權차관, 각室局長등 11명과 검찰측에서 許亨九총장, 禹命仁차장검사, 각부장, 高檢·地檢검사장23명등 모두 34명이 참석했다.

새마을誠金 기탁한 企業人6명에 親書

全斗煥 대통령은 7일 새마을誠金을 기탁해온 기업인들에게 親書를 보내 치하격려했다.

▲尹快炳 한국아루르트유업 사장=5천만원 ▲金炯鍾 韓信工營회장=〃 ▲金萬重三部物産그룹회장=3천만원 ▲金弼植대한교과서사장=2천만원 ▲주식회사 한성직원일동=1백9만6천원 ▲익명의독지가=1억원

온두라스 大統領에 全대통령、當選祝電

全斗煥 대통령은 7일 온두라스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로베르토·수아조·콜도바 대통령에게 祝電을보내『앞으로 양국간의 우호관계가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밝혔다.

全대통령은 또 이날 제21회독립기념일을 맞은 코트디브와르의 우푸에부와니 대통령과 이에앞서 6일에는제64회 독립기념일을 맞은 핀란드공화국의 케코넨 대통령에게 각각 축전을 보냈다.

對韓經協 誠意를 촉구
盧外務、日大使에
엔借款 先決 반박

◇韓日經協논의 再開와관련, 한국정부의 입장을 통고받기위해 盧信永외무부장관의 招致로 7일하오 외무부를 방문한마에다·도시까즈(前田利一)駐韓日本대사。

정부는 日本의 스즈끼(鈴木)행정부가 韓日양국간의 현안인 60억달러의 經協妥結에 앞서 81년도분 對韓ODA자금(円借款)의 先決과 이를위해 양국 실무자접촉을 事前에 가질것을 제의해온데 대해 이를 공식反駁함으로써 60억달러 經協타결을위한 양측의노력은 좀체로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

盧信永외무장관은 7일 하오4시30분 마에다(前田利一)駐韓日本대사를 외무부로 불러「先円借款·後60억달러」의 해결을 요청해온日側제의를 수락한수없다는 입장을밝히고 특히 日側이요청한 양측실무자접촉의 사전개최는 外相회담과 頂上회담을 통해 60억달러의 一括妥結을 지향해온 양국정부의 종래기본입장에 크게 어긋난다는점을 분명히 전했다.

盧장관은 이와관련, 日本은 韓半島를중심으로 한 東北亞의안정과 韓日간의 우호共榮원칙에입각, 對韓經協에보다 성의있는 적극적자세를보일것을 강력히 촉구한것으로 알려졌다.

스즈끼행정부는 2次改閣직후인 지난4일 新任 사꾸라우찌(櫻內義雄)外相과 前田대사간의 요담을통해 円借款및 실무자접촉의 先決을 제의해 왔었다.

이날 하오 외무장관실에서 1시간10분동안에 걸친 盧·마에다요담에서 盧장관은60억달러의 對日經協요청은지난 8월의 韓日外相회담과 9월의 각료회담에서 주요議題가 됐었으며 이문제의 해결을위해 양국노다(園田直)外相과 양국간의 頂上회담 그리고 이에앞선 外相회담의 조속한개최에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킨것으로 알려졌다.

盧장관은 또 정부의 對日經協요청은 81년도분 円借款문제와 관련이없는 一括妥結일뿐 이문제와 실무자접촉을 제의해온것은 문제의 해결을 회피하려는 日側의 故意性이 깔려있음을 지적한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들은 정부측이 日側의 실무자접촉을 수락한다해도 양국간의 현안문제타결에 큰도움이 되지않을것으로 본다며『설령 실무자회담에서 円借款대신 60억달러문제를 협의한다치더라도 프로젝트별 論爭만을 되풀이할뿐이며 60억달러의 一括妥結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입장과는 크게상반되는 결과를 빚게될것』이라고말했다.

한편 마에다대사는 이같은 한국정부의 입장을 본국에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요담을 마친뒤 마에다대사는『韓日외상회담이年內에 열릴수 있느냐』는 질문에대해『답변할 입장에 있지않다』고 말하고 盧장관과의 요담내용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했다.

이날 요담에는 외무부측에서 崔東鎭亞洲국장, 駐韓日本대사관측에서는 야나이政務참사관이 각각 배석했다.

택시料金 併算制검토
民正, 올림픽대비

民正黨은 7일상오 서울조선호텔에서 열린 經濟部長·國會常任위원장 연석회의에서 88서울올림픽에 대비, 교통질서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려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黃寅性交通部장관의 건의에따라 영업용택시요금의 거리·시간 併算制실시를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서울지하철 3, 4號線의 早期완공을 계속 추진키로했다.

民正黨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議案을 拙速처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 현재계류중인 70여건의 청원및 정부제출법안을 충분히 검토한후 會期내에 처리가 어려운것은 계류시켜 다음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존즈 美合參議長 오늘 韓國을訪問

【워싱턴4日聯合】데이비드·존즈 美합참의장은 8일 한국을 방문, 한국국방지도자들과 회담할것이라고 美국방성이 4일 발표했다.

美국방성발표는 존즈 합참의장이 한국, 일본을 방문하기위해 5일 워싱턴을떠났다고 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

1住宅은 상속稅면제
市銀 완전民營·金利는 自律化
5개년 財政金融부문

정부는 5차5개년 계획기간중 통화인플레및 국제수지 안정등 제반 경제여건이 허락하는대로 市中은행을 완전民營化하고 은행與受信금리를 자율화하며 통화관리도 종래의 國內與信규제등 직접규제방식에서 支準再割정책등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저축유도와 기업의 직접금융조달창구를 넓혀주기위해 投資信託회사 증설등 자본시장과 제2金融圈개발촉진을 적극지원하고 매년4~5개 은행의 해외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정당한 납세풍토를 이룩하기위해 이기간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의 세율을 점진적으로인하하고 재산소득에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이자배당등 분리과세 대상 소득률을 인상하여 종국적으로는 종합과세토록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는 1가구1주택을 상속받았을때 4천만원이하에 대해서만 면세해주기로 했지만 앞으로는 액수에관계없이 1세대 1주택에 [illegible] 비과세토록할 방침이다.

6일 재무부가 확정한 제5차 경제사회[illegible]5개년계획[illegible]에 따르면 [illegible] 財政金融부문 [illegible] ①통화[illegible] ②[illegible] ③외자의 [illegible]한 조정과 [illegible] 債務의 합리적관리 ④금융자금운용의 효율화와 금융行態의 先進化및 ⑤금융산업의 발전등에 두고 이를위해 통화인플레억제등 각종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재무부는 통화가치와 물가안정을위해 계획기간중(82~86년) 총통화증가율은 연율22%를 유지하고 83년이후엔 재정적자가 나더라도 韓銀借入은 하지않고 대신 國公債를 민간에 발행해서 이를 충당키로했다.

통화관리는 국내여신한도관리방식에서 再割·支準정책및 公開市場조작방식등 간접규제로 전환키로했다. 또 金利는 경제여건에 맞춰 자율화한다는 방침아래 1단계로 단기금융시장의 콜및 CP(기업어음)금리를 자율화하고 은행금리를 탄력조정하며, 2단계로 제2금융권의 금리를 자율화한뒤 이어 3단계로 은행與受信금리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간중 62조원의 금융저축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물가상승률보다 실질금리를 보장토록하고 서비스강화등 금융을 대중화하도록했다.

社会漫評

年末 러시…

地平線

셰익스피어의「베니스의 상인」이 지난봄 중공에서 말썽이 됐었다. 무대위에서 남녀가 입을 맞춰도 되느냐는 시비다.「문학과 예술」이라는 잡지에서 한작가가「키스란 악수와같은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이유였다. 중공에서 키스장면을 처음으로 구경하게된 것은 작년4월29일밤이었으니까 그럴만도 한일이다. 北京의 텔리비전이 이날밤 내보낸「백장미」라는 미국영화에서 본것이다.

▼지나친 섹스는 피로할뿐이다. 잠들기전에 1주 한두번이 좋다─이것은「중국여성」이라는 잡지의 작년10월호에 실려있는 글이다. 毛澤東이 죽은뒤 근대화바람을 타고 섹스개방무드가 일고있지만 중공의 의식향변이 하루아침에 되는것은 아니다. 키스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것처럼 섹스는 아직도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통제의 대상인 것이다.

▼『일부 젊은이들이 사랑을 마치 멋대로 다룰수있는 일인것처럼 생각하고있는 것은 유감스런일』이라고 北京日報는 지난7월8일 한탄했었다.『바람둥이들은 노상 애인을 바꿔치고, 감정의 봇물을 가누지못해 약혼하자마자 혼전 성관계로 치닫는다』고 비판하고있다. 共靑기관지도 단원들은『연애를 시작하기전에 共靑이나 지구당원들에게 애인후보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남자 18세, 여자 16세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수있고, 20세가 되면 마음대로 결혼할수 있다. 그러나 중공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남자 27세, 여자 25세라야 결혼할 수있었다. 올들어 남자 22세, 여자 20세로 낮췄지만 사랑이란 애초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아닌것이다. 말로는 근대화라고 하지만 아직도 중세적인 사회풍토라고 할 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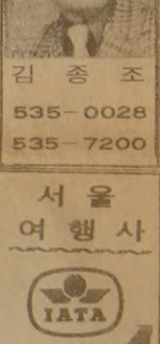
▼그중에서도 외국인과의사랑은 용서받지못할 범죄취급을 받고있다. 76년 毛澤東이 죽은뒤 중공에서는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수십건에 이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중공당국은 지난9월 국제결혼억제책을 펴기로 작정한것으로 알려져있다.국제결혼신고를 무작정 늦춰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작전이다.

▼프랑스 외교관과 중공의 여류화가의 로맨스는 무역상회담이 취소될 정도로 떠들썩한 외교문제가 됐었다. 이탈리아교수와 사랑을 속삭이던 중공의 여배우도 여류화가처럼 쇠고랑을 찼다. 같은 국제결혼이라도 중공남자가 탐머리 아가씨와 맺어지는 것은 쉽다고한다. 전형적인 봉건사회의 생활감각을보여주는 일들이다. 속유용한「구리」를 벗기란 그렇게 쉬운게 아니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종합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서울 여행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최 동 주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TELEFUNKEN

SPECIAL SALE
특별할인

⊙HR5500 RECEIVER 2X60 WATTS RMS POWER BANDWIDTH 5-50,000H
⊙DIRECT DRIVE TURNTABLE
⊙HICOM CASSTE DECK
⊙2X90 WATTS 3WAY SPEAKERS

Pure design, Pure Sound··· Pure Braun
BRAUN
※81년도 유럽 전기제품 디자인상 수상

FEATURES :
BRAUN P-1 TURNTABLE : Quartz Lock Direct Drive Fully Automatic, With Low Mass Tone Arm and Brauh Magnetic Cartridge
BRAUN T-1 TUNER : Digital Quartz Lock With 9 Presets, Pll Mosfet Front end. AM-FM-LW.
BRAUN AMPLIFIER : Low Distqrtion DC. Amplifier. 55 Watts Per Channel. Led Output Levels.
BRAUN C-1 CASSETTE DECK : 3 Motor, All Solenoid, With Convenient Motorized Cassette Drawer, Metal Tape Capability
BRAUN L-1030/4TC : 3 way Speakers With 110 Watts Handling Capacity.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FINCH AVE W. WESTON HWY401 HWY400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SCARBOROUGH, ONTARIO M1E 3E6
282-2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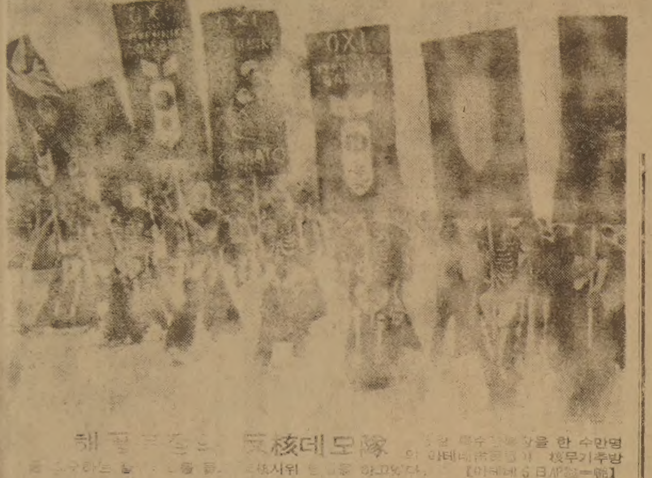
캄舊政權、共産黨해산

폴·포트前首相、黨활동도 全面중지

"對베트남抗争에 總力"

키우삼판이 크메르루지이끌어

캄보디아 후임 首相에 찬·시任命



해골... 反核데모隊 [illegible] 수만명의 아테네 [illegible] 核무기추방을 [illegible] 反核시위 [illegible] 하고있다. 【아테네6日AP=聯】

【방콕6日=聯】親중공 캄보디아舊정권지도자 폴·포트전수상은「민주캄보디아」공산당을 해산시키고 당활동을 전면중지했다고 폴·포트 측근의 정통한 소식통이 6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당기구가 해산되고 모든활동이 중지됐다고 전하면서 현재 크메르·루지게릴라를 이끌고있는 것은 키우·삼판수상정부라고 밝혔다.

키우·삼판이 이끄는 크메르·루지게릴라는 캄보디아 주둔 17만 베트남軍에 항쟁하고있다.

키우·삼판은 지난해 UPI와의 회견에서 對베트남항쟁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캄보디아의 국가이념으로서 공산주의를 배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었다.

폴·포트는 크메르·루지공산당의 서기장이다. 한편 파리의 크메르·루지대표들과 노로돔·시아누크前국가주석지지자및 손·산前수상지지자 등은 펜·소반親베트남캄보디아정권 공산당서기장의 축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노이7日AP=聯】찬·시(49)는 최근의 권력개편에서 수상서리에 임명됐다고 하노이주재 캄보디아 대리대사가 7일 말했다.

이 대리대사는 당서기장직에서 축출된 펜·소반이 현재 수상직에 있지 않다고 밝힘으로써 펜·소반의 수상직 유임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던 앞서의 발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찬·시는 지금까지 프놈펜공산정권에서 2인 부수상중 1인이었다.

이는 친베트남정권의 군사적·외교적 실패를 의미한다고 [illegible]

南阿共軍 또 앙골라 侵攻

【요하네스버그7日=聯】남아공화국군은 앙골라 내륙 깊숙이 새로운 공격을 [illegible] 서남아프리카 인민기구(SWAPO) [illegible] 했다.

남아공군은 이공세가 [illegible] 1일부터 [illegible] 계속 [illegible] 했다고 밝혔다.

將校·下士官등 1百여명 軟禁

【마드리드6日AP=聯】스페인 쿠데타 [illegible] 지지를 표명한 1백명의 소장장교·하사관들을 병영내에 연금 [illegible] 했다고 스페인국 [illegible]

메아리

7일은 大雪이었다. 한해 [illegible] 번째인 大雪은 바야흐로 [illegible] 는 신호와도 같은 이름이다 [illegible] 계라 불려진 이름이다.

그런데 [illegible] 大雪은 [illegible] 내리지 않으 [illegible] 들은 으레 눈에 부시는 신설을 [illegible] 하늘과의 대비가 [illegible] 게눈이 없는 大雪은 [illegible] 눈은 예로부터 [illegible]

눈없는 大雪

[illegible] 다만 눈이 과학적인 관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16세기 이래의 일로서 스웨덴 [illegible] 의 마그누스대주교가 [illegible] 결정이 6각의 대칭을 이루는 아름다움을 지녔음을 확인했다.

대체로 눈의 결정에는 같은 꼴을 한것은 없는것으로 되어있으나 크게 나누면 10종류정도가되며 거기에는 단순한 6각형과 6각형의 결정형도 있고 아름다운 새깃 도안이나 [illegible] 된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가 이를데 없다. [illegible]

오늘 나토國防相·外相회담

브뤼셀서 2일간 防衛力증강·軍縮등 협의

【브뤼셀6日AP·聯】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illegible] 상및 국방상들은 [illegible] 계나토각료회의를 열고 나토 방위력증강 동서군축등 [illegible]

[illegible] 성을 인식시키는 홍보전의 [illegible]

크메르루지 舊政權 戰略上의 變身

「共産黨해체」의 숨은 [illegible]

크메르·루지 지도자 폴·포트

크메르·루지 [illegible] 수상 키우·삼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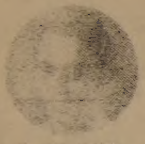
聯政구성 壓力에 굴복

國際的인 支持도 노려

아세안外相會議맞춰 公表

【방콕7日AP】[illegible]

인사이드



펜·소반 [illegible] 헹·삼린 인민 [illegible]

獨立意志 다소과시

"印支와는別個"싱기

失脚한 펜·소반은 골수親蘇派

베트남覇權에 [illegible]

西方외교가 관측 [illegible]

美서 第2스코프스裁判

天創造 進化論 논쟁

東·西歐 反核시위 高[illegible]

루마니아등 美蘇軍縮회담 [illegible] 촉구 수십[illegible]

[illegible] 가 美女人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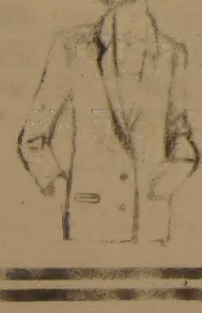
KAWAI 피아노

-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illegible] 장큰 [illegible]
-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illegible] 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illegible] 장 잘 알려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883-9407
MARKHAM PLACE ☎:88[illegible]-8211

대표: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알렌

코스모스



[illegible] size 5 [illegible]
[illegible] 사
드립
[illegible] 요일 [illegible] 토요일
[illegible] BLOOR ST. [illegible]
☎:534-2008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 우황청심환, 녹용등
-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illegible] BLOOR ST. W. [illegible]
☎ 533-7966

김명종 한약방

[illegible] 한약과 에키스(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융탐.

한약과 경험이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745-2058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B) 536-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피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977-3142 (스파디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illegible] 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 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활제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 W. Tor. Tel: 961-3111

高校生3명 麻醉강도

國校동창 前議員집에 覆面…수면제먹여

복면을하고 마취제와 수면제를 이용, 전국회의원 집을 털어달아난 고교생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鍾路경찰서는 7일 K상고 3년 李모(19), 李모(18), S고2년 趙모군(18)등 3명을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6일 상오2시30분께 서울東大門區 淸涼里2洞 206의6 金路宋씨(50·9대국회의원) 집에 복면을하고 담을 넘어 들어가 2층에서 잠자던 金씨의 3남 應大군(20)을 깨워 과도로 위협, 수면제 3알을 강제로 먹이고 화공약품을 묻힌 붕대를 코에대 실신시키고 대현파스로 입을봉한 뒤 현금3천5백원과 밀제카세트녹음기 1대등 모두 22만5천여원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었다.

이들은 범행후 淸涼里 부근 허가하숙에 숨어있다 서울鍾路區觀水洞 살인사건을 수사중이던 鍾路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붙잡혔는데 H국교동창인 이들은 친구 趙군이 지난달 버스안에서 등록금 6만원을 잃어버려 이를 마련해 주기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派出婦살해범 3명檢擧

서울泰陵경찰서는 7일 지난해 10월15일에 발생했던 서울江南區新沙洞 파출부살인사건의 범인으로 裵東根씨(24·전과2범·경기富川市素砂洞48의5), 裵씨의동생(18)과 孫基洛씨(22·서울江東區岩寺洞493의15)등 3명을 붙잡아 강도살인및 특수강도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李潤鎬씨(23·전과2범·서울東大門區面牧6洞70의122)를 특수절도혐의로 검거했다.

파출부 文씨를 찌른 裵군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동생 …지난해 7월말 서울江南區論峴洞1004 李해숙씨 집에서 현금4백만원을 훔친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중…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朱永炯등 셋送致

朱"할말없다" 高양 눈물글썽

潤相군유괴살해범 朱永炯교사(28)와 공범 李모양(17) 高모양(17)등3명이 구속 6일만인 7일상오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달30일 경찰에 검거된지… 朱교사와 李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약취유인살해)및 사체유기혐의로, 高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범인은닉) 혐의로 각각 구속됐었다.

이날 상오8시50분께 그동안 수감돼있던 서울麻浦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朱교사는 현장검증때까지 태연했던 모습과는 달리 『할말이 없다』며 고개를 떨구었으며 李양과 高양도 침통한 얼굴로 눈물을 글썽였다.

구독신청 … 588-2361

石油詐取

서울江南경찰서는 7일 三成석유상사 주인 金應洙씨(35·서울江南區三成洞58의3)를 사기및 계량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金씨는 지난10월말부터 지난3일까지 인근업소등 16개소에 하루평균 20ℓ들이 15통씩 모두 5백95통을 판매하면서 20ℓ통기에 18ℓ만 넣는 수법으로 1천50ℓ 28만6천4백40원의 부당이익을 본 혐의다.

8旬할머니 44년만에 中共서 귀국

韓赤1년半교섭 할아버지도 37年만에…"여한없다"

【城南·蔚珍=聯】 中共 遼寧省에 살던 8순의 할머니와 滿洲에서 고국의 땅을 애타게 그리던 80세의 金點順할머니는 … 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 고 76세의 安鳳中할아버지는 11월30일 37년만에 각각 고국에 돌아왔다.

中共 遼寧省 撫順縣에서 살고있던 金點順할머니는 대한적십자사의 주선과 안내로 큰 아들 朴哲守씨(53·농업·…澤郡德睦里) 작은아들 炳熙씨(49·城南市板橋洞247·두창약방) 큰딸 順子씨(60·大邱市 新岩洞) 큰사위 金太鉉씨등 가족들의 품에 안겼다.

지난 8월8일 하오5시10분 金浦공항에서 朴씨형제는 검은색통치마에 흰색저고리 차림에 간단한 여행가방 2개를 들고 나오는 어머니를 첫눈에 알아볼수있었다. 哲守씨는 36년, 炳熙씨는 33년간의 이별의 서러움과 재회의 기쁨을 터뜨리면서 어머니를 얼싸안았다.

아들을 부둥켜안은 金할머니는 『죽어도 한이없다』고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쉴새없이 눈물을 흘렸다. 분단의 아픔, 끊겼던 인륜의 정이 44년만에 다시 소생하는 현장이었다.

金할머니가 조국의 산하를 다시 찾게된것은 작은아들 炳熙씨의 끈질긴 집념과 노력의 결실이었다.

朴씨일가가 中共에 건너가게된것은 日帝치하인 1937년.

어려운 살림을 견디다못해 大邱市中區大新洞127 옛집을 뒤에두고 일가족이 기약없이 중국땅으로 향했다.

金할머니는 당시 36세, 장남 哲守씨는 9살, 炳熙씨는 5살.

젊은 엄마손에 이끌려 고향을 떠났던 哲守씨는 17살에, 炳熙씨는 16살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온뒤 6·25가 터지면서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 말았다.

그뒤 74년 炳熙씨는 어머니의 생존을 확인, 서신교환을 시작했고 7년만에 어머니를 모시게된 것이다.

金할머니는 마을의 초청을 받고 지난2월초 집단농장을 떠나 北京까지와있었으나 서류미비로 귀가했다가 8월4일 외손자 南國鎭씨(27·중학교 체육교사)의 안내로 北京·廣州를거쳐 홍콩에 도착, 5일만에 귀국했다.

또 安鳳中씨(76·中共吉林市거주)는 37년10개월만인 지난달 30일하오 5시10분 홍콩을 거쳐 金浦공항에 도착, 귀국했다.

安씨는 대한적십자사가 지난1년6개월동안 中共당국과 벌인 집념어린 송환교섭끝에 귀국, 꿈에 그리던 경북蔚珍郡箕城面尺山里고향을 찾아, 아들 安虎烈씨(48·箕城面총무계장)를 만나 감격의 재회를 했다.

安씨가 생활고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가족과 함께 만주로 떠난것은 지난 40년.

滿洲 吉林市에서 열심히 일해 농부 30여명을 거느린 대지주가 돼 단란한 생활을 하다 2차세계대전이 일어나자 安씨를제외한 가족3명이 43년11월 먼저 귀국했다.

滿洲로 떠날당시 큰아들虎烈씨는 6살이었으며 그곳에서 둘째 忠烈씨(39·大邱市中區東仁4街동사무소직원)를 낳아 부인 黃위남씨(79년10월28일사망)와 함께 4식구가 살았었다.

虎烈씨는 지난해 5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中共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수있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해6월 부친귀국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적십자사에 제출, 1년2개월만인 지난달30일 金浦공항에서 새어머니 李杏伊씨(73)와 함께 트랩을 내려온 아버지와 극적인 상봉을했다.

安씨부부가 고향마을에 도착하자 주민 3백여명이 마을회관앞에 모여 "虎烈아버지, 만수무강을 빈다"면서 만세와 박수로 환영해주고 이날 밤이 새도록 농악놀이와 축제분위기를 이루었다.

◇얼싸안은 父子 中共서37년만에 고향에찾아온 安鳳中씨 (모자쓴이)가 꿈에도 그리던 경북蔚珍郡箕城面尺山里 고향마을에도착, 마을사람들의 환영을받으며 아들 虎烈씨㉮에 얼싸안긴채 집으로 들어가고있다. 【大邱=聯合】

◇中共에서 44년만에 돌아온 金点順할머니(㉮로부터 세번째)가 차남 朴炳熙씨 (㉮에서 두번째) 집에서 장남 炳守씨 (㉯에서 세번째) 등 가족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있다.

나에 이르러서

元一漢 ⑪

3代가 편찬한 英韓辭典

祖父가 처음 상세한原本마련

父親이 增補版내고 아내가 6·25때 포킷版다시著述

언더우드家에서는 3대에걸쳐 英韓辭典을 각각 출판하는 기록을 남겼다. 맨처음은 물론 할아버지 元杜尤목사가 내놓은 큰사이스로 부피가 비교적 얇은 편이었다.

내가 알기로는 할아버지는 콘사이스만드는데 아주 훌륭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역에 가서 사용하기 알맞게 왼편엔 영어단어가 쓰여있고 오른편에는 그 지역 말을 채우도록 빈칸으로 된 것이었다.

말하자면 영어사용 선교사가 세계 어느나라에 가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字典원본인 셈이다.

할아버지는 이 자료에다 고어체 한글을 깨알같이 기록했다. 본래 성경을 번역할 때 많은 어휘를 구사한 실력으로 단어수용이 많지는 않았어도 매우 상세한 해석을 붙였던 것 같다.

이에비해 아버지 元漢慶박사가 펴낸 英韓사전은 한국어 구사가 다양하지는 않았어도 꽤 두툼하게 만들어졌다.

현재 내가 이사전을 보관하고 있는데 요즘와서도 이만큼 잘된 콘사이스가 드물다는 말을 듣는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한국어 실력이 상당했음을 알수있다.

아버지가 이사전을 편찬할때는 할아버지의 「첫걸음 사전」이 크게 참고됐음은 말할것도 없다.

그런데 이사전은 하마터면 나오질 못할뻔했다. 인쇄를위해 日本요꼬하마에 보낸 원고가 東京大震災때 그만 훼손돼버린 것이다.

다행히 초고가 남아있어서 이를 정리하여 1925년께야 발간했다.

◇1920년께의 韓國외교관및 선교사부인들. 앞줄 중앙이 할머니 릴리아스·호튼이고 그뒤가 어머니 에델·반·와그너이다.

세번째로는 지난 76년 별세한 나의 아내 조안·비다·메이비슨이 펴낸 포킷 英韓辭典이 있다. 이 사전은 당초 6·25전란에 참전한 주한 미군들이 사용하도록 착수했고 실제로 사용됐다.

아버지가 사전을 만들수 있을만큼 한국어를 잘할수 있었던것은 「번개비」라는 별명을 가진 金…박사와 어려서부터 한집에서 자라면서 한국말과 생활양식을 익혔기 때문이다.

「번개비」는 언더우드家의 호적에만 오르지 않았을뿐 아버지와 똑같은 사랑을 받았다. 그는 16세가 되던 1896년 미국유학을 떠난것으로 알고있다.

그는 버지니아주 살렘에 있는 로노크大學을 졸업하고 8년후인 1904년에 귀국하여 YMCA간사와 徽新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아버지는 그의나이 16세인 1906년 공부하기위해 한국을 떠날때까지 학교에 다니질 못했다. 다닐학교가 없었기때문이었다. 서울에 외국인학교가 처음 생긴것은 아버지의 대학졸업해인 1912년이었다.

아버지는 미국 뉴저지주에있는 보텐타운 군사학교에 입학하기전 1년간 가정교사를 따라 프랑스 스위스등 유럽여러나라를 여행하며 견문을 넓혔다. 이때 익힌 실력으로 아버지는 프랑스어를 곧잘했다.

아버지가다닌 군사학교는 이름만군사학교지 학생들에게 탄한없는 연습훈련을 시켰던것 같다.

한번은 연습용탄환을 숨겨가지고 교실에 들어가 『차렷 선생님께 경례』한뒤 걸상에 앉는순간 「꽝」하고 폭음을 내, 그 선생이 놀라 뛰쳐나가도록하는 장난을 했다고 우리들에게 재미있게 이야기하곤 했다. 교육은 미국에서 받았어도 어렸을때 익힌 한국어의 어휘구사는 아주 뛰어났다. 한국어는 아버지일생의 중요한 한부분 이었음이 틀림없다.

주간女性

流星의 賦

感傷異國月⑳

<25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훈계남은 하까다에서 머무는 동안 일본의 검술(劍術)에 흥미를 가졌다.

그는 검법(劍法)의 조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백원이십사법(白猿二十四法)을 이미 터득하고 있는터라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일본의 검술과 겨루어 보고 싶은 욕망이 일기도 했다.

그 무렵 계남은 왜어(倭語)를 다소 익히기도 해서 하루는 객관(客館)의 집사(執事)에게

『일본의 검법을 보고자 하는데 기회가 없겠느냐』

고 물었다.

객관의 집사는 사마께(佐竹)란 노인이었는데 마침 자기의 친구가 도장(道場)을 가지고 있다며 그리로 안내했다. 도장의 주인은 가나이·시로오(金井四郎), 신풍류(新風流) 검술의 오의(奧義)를 극한 사람이라고 했다.

가나이는 수제자 이와따(岩田)를 불러 계남과 시합을 해보도록 했다. 계남과 이와따는 각기 목도(木刀)를 들고 마주 섰다.

이와따는 발을 3보쯤 벌리고 목도를 쥐고는 방향으로 수평으로 뻗은 자세를 취했다. 그런데 계남은 두 발을 모아 직립하여 오른 한손으론 칼을 쥐고 그 칼을 자기 몸과 평행으로 세웠다.

이와따는 사뭇 당황한 양으로 어리둥절 하더니 계남의 자세가 움직이지 않음을 깨닫자 「에잇」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덤벼들었다. …

送年女流短篇

배반께 동물

<13>

梁貴子 作 金光培 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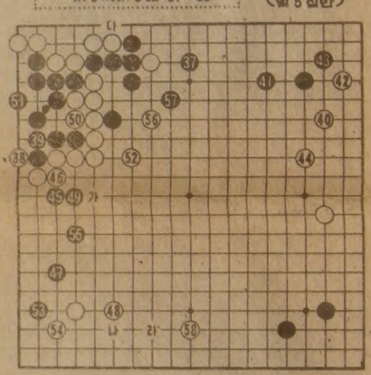
이럴 때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

第13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9局第3譜 37～58 (각 5시간 덜 5 집반)

白(4段) … 〈2勝0敗〉

黑(4段) … 〈1勝1敗〉



현재 한국기계는 아직도 曺·徐두 國手의 대결로 「유지」되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뒤를 따르는 몇몇 신예들의 활약도 자못 눈부신바가 있으나 이들이 소위 「…」 … 다만 이중 … 4단은 정상에 육박하는 … 신예라 할만하다. …

黑, 可惜한 方向錯誤

그러고 계속되는 白40이하44까지도 … 그런데 이번에는 白이 … 黑57로인해 白58을 두게된것은 요행이었다. 【一凡】

서울공고
망년회 파티

금년도 서울공고 망년회 파티를 갖고자 하오니 부부동반 하시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일시 : 1981년12월26일(토)오후7시
장소 : 한인회관(20 MOBILE DR.)
회비 : 커플당 $30.—
※복권추천도있고, 경품권도있음.
연락처 : 757—8000, 921—0624

서울공고동창회장
유영린

◆◆◆ 초대합니다 ◆◆◆

존경하는 향우여러분 다망하신 이민생활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향우회에서는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년과 같이 정다운 향우들과 한자리에 모여 하루를 즐기기로 하였읍니다.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부디 참석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 12월26일(토) 하오6시
장 소 : THE TRIUMPH SHARATON HOTEL (Senetor Room 1층) (Keel at 401)
입장료 : 커플 $50, 싱글 $30.
※디너, 댄스파티, 복권추첨, 도어—프라이스

복권추첨 : ※행운상 : 여자용 고급 세무코트($700상당)(거북이 선물센타 기증)
1등 : 고급 오메가 남자용시계(천불상당)(미도파백화점 기증)
2등 : 록키산맥왕복 항공표($600상당)(신세계 여행사기증)
3등 : 여자용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반지($400상당)(은하보석상 기증)
4등 : 고급벽시계(블로아 하드웨어 기증)
5등 : 우든 벽시계(마보훈씨 기증)
6등 : 고급인삼 한상자(빅 세븐 선물센타 기증)
7등 : 샘표간장 1박스(팬 아시아 기증)
8등 : 탁상시계(문옥섭씨 기증)
9등 : 팔목시계(이상구씨 기증)
10등 : 장미표쌀 50파운드(팬아시아 기증)

※특별출연 : 기적소리만을 불러 70년대를 매혹시켰던 정열의 가수"대성"특별출연 최영호와 그의 4인조 악단.
※티켓판매처 : 아리랑 하우스, 미도파 백화점, 거북이 선물센타, 한국식품점(본점, 동부, 서부지점)

호남향우회 회장 박 주 삼

성동동문회

년말파티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전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12월18일 (금)하오6시
장 소 : 한인회관 (20 MOBILE DR.)
주 최 : 회장단
연락처 : 293—6138

성동동문회
회장 : 한성택

한국女子卓球 잇달아 慘敗

團體戰서 弱體 체코에도 무릎꿇어

스칸디나비아 오픈大會

탁구가 올림픽종목으로 승인된후 첫원정길에 오른 한국탁구대표팀이 연달아 충격적인 참패의 소식을 전해오고있다. 한국이 최초로 세계정상정복의 영광을 누렸던것이 탁구종목에서 였다. 따라서 88년 올림픽의 서울유치가 확정된 이후 탁구에 거는 기대가 한층 더커졌음은 말할나위도 없다. 스칸디나비아·오픈에서 당한 한국탁구의 연패는 올림픽의 기대는 물론 세계선수권대회 정상탈환을위해 한국탁구계가 흘려온 피와 땀의 보람이 일시에 무너져버림을 느끼게하는 悲報가 아닐수 없다.

대한탁구협회는 83년 東京 세계선수권대회에 대비, 지난해 11월 남녀 국가대표선발전을 실시했다. 12월 새로이 구성된 국가대표팀은 전지훈련을 겸해 스칸디나비아·오픈 원정길에 올랐다. 24회를 맞은스칸디나비아·오픈은 그동안 세계선수권대회의 전초전격 東·西탁구교류의 중요한 무대가 되어 한국은 지난해에도 대표팀을 파견, 단체준우승, 개인복식 1·2·3위의 전과를 올렸었다.

새로이 구성된 한국대표팀의 여자B팀 (白良美·梁英子·辛庚淑)은 이번대회 여자단체 2회전에서 中共의 신진 戴麗麗·陳洁玲의 A팀과 접전, 3-2로 석패했다. 선발전서 1위를 차지했던 梁英子는 단·복식에서 中共선수를 누르며 선전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한국여자A팀 (李壽子·安海淑·黃男淑·金貞美)은 뜻밖에도 세계선수권 10위팀인 체코에 3-1로 무너졌다. 체코는 지난 4월 세계선수권서 한국에 3-0으로졌으며, 11월 이탈리아·오픈과 벨기에·오픈서도 한국의 서울信託銀行단일팀 (尹景美·朴末粉)에게 3-1로 완패했던 약체. 세계랭킹 4위까지 올랐던 한국 A팀의 에이스 李壽子는 체코와의대전 1차단식서 세계랭킹 16위의 올리코바에 21-12, 21-13으로, 3차단식서 세계랭킹 32위의 하라코바에게 21-18, 21-17로 완패, 세이크·공격의 같은西歐스타일선수에게 약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한국대표팀의 가장 안정된 복식조로 믿고있던 黃男淑·安海淑조도 올리코바·하라코바조에 21-13, 12-21, 21-15로 완패했다.

李壽子의 약점이나 그외선수들의 강·약을 잘알고있는 우리코칭 스태프의 對체코전 선수기용이 정당한 것이었다면 한국여자탁구의 앞날은 더욱 어두운 것일수밖에 없다. 한국은 中共외에 이제 東歐諸國과의 대결에도 불안을 갖지 않을수 없게되었다.

中共은 이번대회에도 신진선수 4명을 파견, 여자단체우승과 준우승을휩쓸어 中共탁구의 높은수준과 넓은폭을 과시했다. 한국이 믿고있던 李壽子는 단체전에이어 시드 1번을 받은 개인단식서도 中共의 陳莉莉에게 20-19, 20-18, 22-20으로 완패했으며 黃男淑도 하라코바에게 3-2로 패했다.

한국탁구가 얻을수있는 위안이라면 실업세를 능가하는 梁英子, 白良美, 尹景美, 朴末粉, 金貞美등 신진들의 등장이다.

스포츠정책은 위협선수에 매달린 소수의 특정선수층의 다변화와 신인들의 끊임없는 발굴육성 없이는 한국탁구의 정상탈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기위해서는 국내탁구변의 확대, 실업팀의 균형있는 발전과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야한다. 【方錫翰기자】

에이스 李壽子등 4명·金浣등 男4명

한국代表 초반脫落

個人戰 辛庚淑등 4명만 3회전에

【백세 (스웨덴) =李廷元특파원】 한국 탁구대표팀은 5일새벽 속행된 제24회 스칸디나비아·오픈탁구대회 개인전에서도 참패, 辛庚淑·安海淑·金貞美·白良美등 4명만이 여자개인단식 3회전에 진출했을뿐 1번시드를 받았던 李壽子를 비롯한 여자 4명, 金浣을 비롯한 남자 4명이 모두 초반탈락했다.

신진 白良美는 여단식 2회전서 스웨덴의 헬만을, 安海淑은 헤른발을 각각3-1, 3-0으로 물리쳤으며 辛庚淑은 프랑스의 다비오드를, 金貞美는 시리에를 각각 3-1, 3-2로 눌렀다.

中共은 여자단체전서 A·B팀끼리 결승전을가져 우승 준우승을 휩쓸었으며 남자단체전서는 A팀이 유고에 3-2로져 준우승했다.

◇전적

▲여자단식2회전

金貞美 3 (14-21 21-15 19-21 21-13 21-15) 2 시리에(프랑스)

白良美 3 (21-13 21-15 21-18 12-21) 1 헬만(스웨덴)

辛庚淑 3 (21-17 16-21 21-11 21-19) 0 다비오드(프랑스)

△남자단식 1회전

한센(덴마크) 3 (25-23 22-20 21-19 11-21 11-21) 2 金浣

베르너(스웨덴) 3 (23-21 19-21 21-10 21-14) 1 金琉澤

크루베(유고) 3 (21-16 21-10 21-13) 0 盧潤寬

스메사로(유고) 3 (21-12 21-12 18-21 21-9) 1 尹吉重

하라코(체코) 3 (21-17 16-21 21-11 21-10 21-23) 2 黃男淑

謝小燕(中共) 3 (21-10 22-20 21-14) 0 朴末粉

陳莉莉(中共) 3 (21-16 21-17 22-20) 0 李壽子

安海淑 3 (21-13 21-12 23-21) 0 헤른발(스웨덴)

10代의 中共탁구 세계에 突風

스칸디나비아大會 交替된 新銳들 女子단체 1·2位

【백세=李廷元특파원】 中共의 10대 신진탁구가 또다시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제24회 스칸디나비아 오픈탁구대회에서 中共의 새로운 얼굴들이 새로 등장, 세계최강의 中共탁구를 구축하고있다. 이번대회에서 中共은 여자부 결승전에서 A, B팀끼리 맞붙어 1, 2위를 차지했고, 남자A팀이 유고에 접전끝에 3-2로 패해 아무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代表되면 3년안에 世界챔피언 자신"

국내챔피언 따는것은 하늘의 별따기

中共탁구는 지난10월초 열린 中共국내선수권대회에서 세대교체됐다고 하는것이 노장들이 모두탈락, 완전히 새로운 中共선수단에의해 밝혀졌다.

지난4월 유고노비사드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남녀대표선수중 국내선수권대회에서 曹燕華(세계랭킹2위)만이 여자부단식에서 우승했을뿐 세계남녀단식 챔피언인 郭躍華 童玲을비롯, 蔡振華(세계랭킹2위) 謝賽克 李振恃, 여자의 張德英(세계3위) 齊寶香(세계5위)등이 모두 8강에도 들지못했다.

中共은 탁구선수들이 대단히 두렵다고한다. 「中共대표선수가되면 3년안에 세계챔피언이 되는것은 시간문제이나 국내챔피언자리를 따내는것은 하늘에 별따기」라고 전해지고있어 中共탁구의 인구층이 얼마나 두터운가를 가히 짐작케한다.

中共이 이번대표단을 신인선수들을 주축으로 짠것은 83년 제25회 東京세계선수권대회에 대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왜냐하면 中共은 지난 79년 스칸디나비아 오픈대회에도 신인들로 구성된 남녀대표팀을 파견, 세계선수권대회를 겨냥했었기 때문이다. 그외에도 프랑스오픈, 西獨오픈대회등에도 모두 신인들을 파견하고있는데 이것은 이들 오픈대회가 권위있는 대회여서 세계최강의 선수들이 출전할 것을 예상, 경험을 쌓도록하는 세계정상유지를 위한 전초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대회에 나온 中共의 여자선수중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선수는 戴麗麗(16)와 陳莉莉(18). 戴는 펜홀더 전진속공형으로 백핸드 푸싱이 뛰어나 曹燕華의 후계자로 東京세계선수권대회 주전감으로 평가받고있다. 陳은 세이크 핸드의 유일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루프가 일품이다. 남자선수들은 유럽선수를 맞아 힘에눌려 준우승에 머물렀으나 서브를 비롯한 기술이 단연 뛰어났다.

사라예보 冬季五輪 준비狀況 만족表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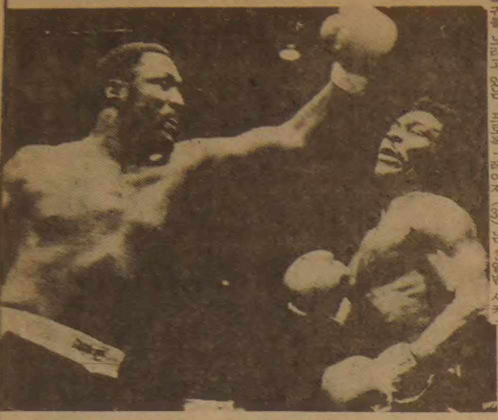
IOC執行委폐막

【사라예보 (유고) 4日UPI=聯】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는 4일 오는 84년 2월 사라예보에서 개최될 동계올림픽의 준비상황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3일간의 회의를 모두마쳤다.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이날 국내외기자들과의 회견에서 84년冬季올림픽개최를위해 유고 중부사라예보에서 현재까지 진척된 건설공사와 관련, 유고 올림픽조직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IOC는 사라예보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을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프레이저 再起戰 좌절

커밍즈戰 힘든 無勝負 헤비級



◇프로복싱 前세계 헤비급 챔피언 조·프레이저 (왼쪽)가 3일밤 시카고에서 가진 재기전에서 점보·커밍즈의 턱에 강한 어퍼컷을 넣고있다. 【시카고3日AP話=聯】

【시카고4日UPI=聯】 링에의 복귀를 노리고 있는 프로복싱前세계헤비급챔피언 조·프레이저(37)는 3일밤 시카고에서 벌어진 점보·커밍즈(30)와의 10회전논타이틀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 재기전은 좌절로 끝났다.

5년반만에 링에 오른 프레이저는 79년 프로복싱에투신한 커밍즈를 맞아 5회와 8회에는 다운위기에까지 몰리는등 시종 고전했으며 커밍즈의 연속적인 잽으로 경기종반에는 입에서 피가 흐르고 왼쪽눈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어올랐다.

이로써 프레이저는 32승4패1무를, 커밍즈는 17승1패1무를 기록했다. 프레이저와 커밍즈는 대전료로 각각 8만달러와 1만달러를받았다.

韓日高校 氷球대회 15일 東京서 4次戰

아이스하키 고교선발팀이 오는 15일부터 日本 東京에서 열리는 韓日고교아이스하키 친선대회에 참가한다.

李蘇栢협회부회장을 단장으로 임원6명과 선수22명등 28명으로 구성된 韓國선수단은 12일 東大門실내링크에서 결단식을갖고 13일 출국, 東京都고교선발팀등과 4차례의 친선경기를가질예정이다.

이번 선발팀은 慶成高를주축으로 培文高 中東高등 국내 10개고교팀에서 고루 기용되었다.

최우수賞 서울올림픽館

뉴델리 國際박람회서 外國업체 부문서

1988년 서울올림픽 한국전시관이 세계43개국이 참가한가운데 인도의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에서 최우수전시관으로 뽑히는 영광을 차지했다.

5일 문공부에 들어온 현지공보관의 보고에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12월4일까지 열린 인도국제박람회는 5일 폐막에 앞서 인도, 국내부문 3개, 외국부문 2개등 모두 5개 부문에 걸쳐 이박람회를 빛낸 전시장을 선정 시상했는데 서울올림픽전시관은 외국업체별 부문에서 최우수상인 1등상을 획득했다는것이다.

문공부 해외공보관이 제작한 서울올림픽전시관은 ①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한국문화의 단면 ②80년대 한국의 발전상 ③88년 서울올림픽향연등 3개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9월 서독의 바덴바덴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및 서독 뮌헨의 스포츠박람회참가후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것이다.

또 이전시관에는 하루 수천명의 인파가몰려 서울 올림픽에대한 큰관심을 보여주었다.

한편 또하나의 외국부문인 국가별부문에서는 2등이 없고 소련, 유고, 파키스탄, 사우디등 4개국이 장려상을받았을뿐이다.

서울五輪 국민헌장 제정

연내草案확정 내년초 公布예정

서울올림픽조직위(SLOOC)는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위한 국민적결의와 자세를 다듬도록하기위해 「서울올림픽국민헌장」(가칭)을 제정,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했다.

올림픽조직위는 이를 위해 이미 전문과 3개항의 결의사항으로된 「올림픽국민헌장」초안을 마련, 관계부서와 협의중인데 빠르면 연내에 확정, 내년초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헌장은 전문에서 「서울올림픽은 숭고한 올림픽정신을 전세계에 널리알려 세계인의 힘과 技를 한곳에 집결시키고 따라서 『서울올림픽』이라고 규정하고 정치를 초월하고 인종 종교 관습을 벗나 전인류의 盛典이 되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문은 또 『우리국민은 솔선하여 올림픽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문화국민의 긍지를 높이자』고 밝히고 있다.

이 헌장은 전문의 취지를 살리기위한 3개결의 사항으로 첫째 우리국민이 평화애호국민임을 행동으로 보이고 둘째, 서울올림픽이 우리의 환경개선에 이바지할수있게 노력할것과 세째 이기회를 통해 국민의 의식구조개선과 정신향상에 공헌할수있도록 솔선할것을 다짐하고있다.

내년 서울J陸上 8월20일로 確定

대한 육상연맹은 제2회서울국제주니어 오픈 육상대회를 내년 8월20일부터 3일간 서울운동장에서 야간경기로 치르기로 대회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90년 亞洲競技유치 比 마르코스밝혀

【마닐라4日UPI=聯】 필리핀은 오는 1990년의 아시안게임유치신청을 낼것으로 4일 알려졌다.

페르디난드·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오는6일부터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1회 東南亞경기대회의 경기장 시설을 둘러본뒤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필리핀의 스포츠관계관리들에게 1990년의 아시안게임 유치신청을 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지난 1954년 마닐라에서 제2회 아시안게임을 개최한바있다.

한편 오는6일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1회 東南亞경기대회에는 필리핀을 비롯한 泰國·말레이지아·싱가포르 버마등 7개국가들이 참가하는 반면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는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提言

在美동포2세에 따뜻한 눈길을

"도피移民"소리 들을때 가슴아파

수일전 재미하계학교 학생들과 서울시내 관광을할때 옆에있던 한중년신사가 눈을 찌푸리며 『조국을 배반하고 도피한놈들을 데려다가 쓸데없는짓을왜하는』하며 역사항과 언성을높이는 것을 들었읍니다.

또 어린이공원에서도 젊은이 2、3명이 우리말이 서툰학생들을 비난하며『중국사람은 어디가나 자기나라말을 잊지않는데 저것들의 부모는 교육을 더럽게시켰다』고 큰소리로 핀잔을주는것을 들었읍니다.

10여년전 이민을 떠날때 북괴의 납치위협과 정치혼란등을피해 자신의 안일만을위해 도피이민을 한다는 비판의 여론이 사회각계에서 일어났던일이 생각납니다. 당시 내가다니던 교회의 목사가 찾아와 『당신도 조국을 떠나오?』라고 물으며 노기에찬얼굴로 되물어 나가던 일이 눈앞에 선합니다.

그처럼 설움받으며 떠난 그곳은 지상의 천국은 아닙니다. 아파트세를 얻기위해 헤매고 말이안통해 청소부나 공장노동으로 전전하며 생계를 연명키위해 밥을굶기가 일쑤였읍니다. 부서져라 꽤지않으면 안되는 생활을 이곳에서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아이들은 제각기 목에 집열쇠를 매달고 학교에 다니며 식사도 저희들끼리 먹어야했고, 학교에서는 말을못해 눈물을 흘리기 일쑤였읍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동네와 학교에서 미국어린이들과 접촉을통해 또TV를통해 영어를배우며 우리말은 잊어버리게 됐읍니다.

아이들 부모들은 도피이민이란 비난을 들어도 할수없지만 교포 2세들에게는 비난이나 책망을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자녀들은 모두 타의에의한 희생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의미에서 교포학생들의 하계학교를 주선해주신 문교부나 서울시교위에 감사드리며 이번 방문을통해 조국의 품에서 자신의 근본을 찾으며 자부심을 느끼게 따뜻한 눈길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韓一·워싱턴제일한인학교교감】

블론디 —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콩스프로 시작해서…" "그다음은화뮈어서 고기덩어리 좀먹고…" "그리고나서는 …음… 가만있자…그다음은 뭘 들어야하나?" "당신생애 최악의 소화불량 사태가 벌어질 꺼요!"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 영어설교 오후 1: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한	주일오후 1:30	3819 Bloor W.	741-5411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6:30 /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8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한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오후1시 /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8132
서머나감리교회	박춘하 김익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675 Sheppard Av.E.	751-8611 752-9860
선교교회	안상엽	주일낮1:00 저녁 7:00	1 Greenland Rd. (Donm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1272 Weston Rd.	242-4964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 금요저녁10:30	126 O'conner Dr. at Pape Ave.	423-9400 423-986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 주일 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7:30 일요오후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illegible]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철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861
천주교회	고종욱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용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1: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재신	주일오전11:00 낮12:30	353 Sherbourne St.	922-[illegible]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1183 Davenport Rd.	585-6864 532-[illegible]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文泰鎭·柳煥吉 새챔피언에

OPBF

楊弘洙는 判定으로 방어

◆…文泰鎭과 柳煥吉이 새 챔피언이 됐다. 文泰鎭은 6일 하오 문화체육관서 벌어진 프로복싱 OPBF(동양 태평양권투연맹) 주니어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에서 챔피언 吳永世를 10회에 KO시키고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으며, 페더급의 柳煥吉도 동급 OPBF챔피언 黃正漢에게 판정승, 새챔피언이 됐다.

투지가 좋은 왼손잡이 文泰鎭은 7회에서 녹다운을 허용, 불리한 형세에 몰렸으나 8회부터 吳永世의 복부를 집중적으로 두들겨 스피드를 떨어뜨린후 9회서 강한 훅으로 吳를 다운시켜 결정적인 주도권을 잡았다. 文은 10회접어들자 현저히 체력이 떨어진 吳를 맹타, 두 차례 다운시키고 KO승을 거두었다.

文은 이날의 승리로 18승(10KO) 1무 1패를 기록했으며 吳는 10연승(6KO) 끝에 1패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仁川실내체육관서 벌어진 OPBF플라이급 타이틀매치에서 챔피언 楊弘洙는 도전자 申四赦과 격전끝에 근소한 점수차로 판정승, 타이틀 3차방어에 성공했다.【契】

WBA J밴덤級 타이틀戰서 라파엘·페드로사 王座 탈취

四寸 에우세비오는 13차防禦 WBA페더級 5회서 KO승

프로복싱

◆…라파엘·페드로사(파나마)는 6일 파나마시티에서 벌어진 프로복싱WBA 주니어밴텀급 타이틀매치에서 챔피언 구스타보·바야스(아르헨티나)에게 판정승, 새챔피언이 되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두선수간의 논타이틀전에는 바야스가 판정승했었다.

한편 프로복싱 WBA(세계권투협회) 페더급챔피언 에우세비오·페드로사(파나마)는 6일 이곳에서 벌어진 타이틀전에서 도전자 바수·시바카(南阿공화국)를 5회KO로제압, 타이틀을 13차방어에 성공했다.

페드로사는 긴리치를 이용, 시바카의 접근을 막으면서 우세한 경기를 벌이다가 5회에 강력한 좌우연타로 KO승을기록했다.

페드로사는 동급 WBC챔피언인 살바도르·산체스(멕시코)와 통합타이틀전을 가진뒤 은퇴하고싶다고 말했다.【파나마시티6日=聯合】

◇링誌선정 챔피언들

세계 라이트급 챔피언 알렉시스·아르게요(左)가 링誌로부터 챔피언벨트를 받은후 슈퍼·밴텀급챔피언 윌프레도·고메스와 악수하고있다. 링誌의 챔피언벨트는 싯가6천달러인데 이들 외에도 아론·프라이어(주니어웰터급) 마빈·해글러(미들급) 제프·챈들러(밴텀급) 슈거·레이·레너드(웰터급)가 벨트를 받았다.

마닐라서世界도전 崔忠日은1월16일

◆…프로복싱 WBC(세계권투협회)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인 필리핀의 롤란도·나바레테(24)가 내년1월16일 마닐라에서 한국의 崔忠日과 1차방어전을 갖는다고 필리핀의 프로모터가 밝혔다.

이 타이틀전에서 챔피언 나바레테는 8만달러, 도전자 崔忠日이 4만달러의 대전료를 받게된다.【마닐라5日=聯合】

洪慶洙KO勝

◆…프로복싱 한국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인 洪慶洙는 5일 도오꾜에서 벌어진 日本의 야쓰·히로유끼와의 논타이틀 10회전경기에서 2회 2분58초만에 KO승을 거두었다.【東京5日=聯合】

WBA라이트級 프리아스가爭取

◆…프로복싱 WBA(세계권투협회) 라이트급9위인 美國의 알투로·프리아스(25)가 6일낮(한국시간) 동급챔피언 클로드·노엘(33·트리니다드 토바고)을 8회 1분52초만에 KO로 물리치고 새왕자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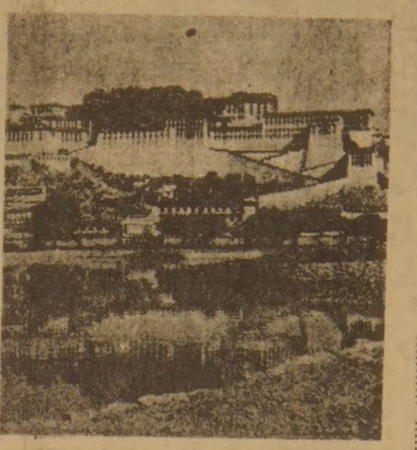
프리아스는 이날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진 타이틀전에서 챔피언 노엘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다가 8회들어 강한 라이트스트레이트를 노엘의 턱에 작렬시켜 통쾌한 KO승으로 타이틀을 차지했다.【라스베이가스5日=聯合】

세계最長 口傳敍事詩 나왔다

티베트英雄 「게사어王 이야기」 읊은것

中共서 곧 녹음 보존

★★★★ 세계에서 가장긴 敍事詩가 입으로만 전해오다 마침내 녹음테이프에 수록되게 되었다. 한 티베트王의 영웅적인 행위를 그린 이 서사시의 길이는 장장 수백만行에 이르러 세계에 가장 잘알려진 그리스의 最古最大 서사시인 「일리아드」가 1만5천行, 「오디세이」가 1만2천行인 점과비교하면 쉽게 그 양의 엄청남을 알수있을 것이다. ★★★★



◇세계 최장 서사시의 배경이된 티베트。

해외話題

상상도 못할 수백만行 1천만單語 넘는 分量

올해 78살의 자바翁이 暗誦 모두31部…16部는 이미 마쳐

文盲으로 9살때 한 승려로 부터 배워

최근 AP통신이 中共의 光明日報를 인용 보도한바에따르면 이최대서사시의 영구보존을 위해 녹음을 시작한 사람은 올해 78세인 자바라는 티베트人이란 것이다.

그는 완전한 文盲으로 9살때부터 라마교의 한승려로부터 이 서사시「게사어王의 이야기」를 배웠는데 지금은 인간문화재로 대우를 받고 있다.

中共 당국은 이서사시의 보존을 위해 전문인 4명을 붙여 이를 녹음하기로 했는데 현재 모두 31부가운데 16부를 녹음했는데 그것이 단 한 것인데 자바노인의 건강이 나빠 하루에 2시간씩밖에 하지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바노인이 신이 나는 날엔 6시간까지도 녹음한 것인데 자바노인의 전 어로 따지면 1천만단어가 넘는 분량이다.

수록되지 못했다.

자바는 본래農奴였으나 마승려의 제자가 되어 게사어王의 이야기를 배웠는데 라 살때 이미 31부 가운데서 13부를 암송할수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노예시절의 주인밑으로 잡혀갔으나 굶주림과 고된 노동때문에 25살때 뛰쳐나와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며 이야기로 먹고 살았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으나 30년전 티베트가 中共에 합병되면서 그의 이야기는 쓸모가 없게 되었다.

특히 1966년부터 76년까지 中共전역을 혼란에 넣었던 문화혁명기간은 이서사시의 수난기였다. 전통적인 습관과 사상은 모두 비난을 받던 그당시 그서사시도 봉건주의, 자본주의의 싸앗이라고 하여 심한 비난을 받았다.

자바 자신도 자신의 노예시절 주인과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中共 당국은 이를 보존해야할 필요를 느껴 녹음하기에 이른 것인데 곧 출판도 할 계획이다.

이 敍事詩의 녹음이 끝나 그 정확한 분량이 나온다면 이는 中共의 주장대로 세계 最長의 작품이 될것이다.

가장 잘알려진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1만2천~1만5천行, 우리나라의 東明王이야기(高麗 李奎報作)와 「帝王韻紀」(高麗 李承休作)의 4천字, 하권 2천1백60字와는 비교도 안되는 분량이라 하겠다.

이밖에 아프리카와 유고슬라비아등지에 수많은 구전 서사시 작품들이 있지만 게사어王 이야기에는 못미치는 것이다.

게사어王은 티베트의 전설에 나오는 영웅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악마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백성들을 편안케했다.

이 서사시는 그동안 역사에서 약간씩 비쳤으나 그 분량이 너무 많아 완벽하게 …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들어봐, 허브…마누라한텐 집에있겠다고 했지만 어떻게든 그리 갈께"

"막구워낸 애플파이에요"

"허브와 진·러미 놀이하기로 한건 어떡하죠?"
※진·러미=트럼프놀이의 일종。

"허브가 누구야?"

조 규 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濠카스텔라 우승

日후꾸오까마라톤 2시간8분18

歷代 2위記錄으로

【福岡(日本) 6日AP=聯合】 6일열린 제16회 후꾸오까(福岡)국제마라톤대회에서 濠洲의 로버트·드·카스텔라(24)가 2시간8분18초의 기록으로 우승, 지난10월26일 美國의 살라자르가 수립한 2시간8분13초의 세계최고기록에이어 역대 2위기록을 마크했다.

카스텔라는 80년 모스크바올림픽때 10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후꾸오까대회에서는 8위에 입상했었는데 이날대회에는 14개국 1백17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이날 대회의 2·3위입상자는 42·195km를 각각 2시간9분37초와 2시간10분19초로 주파한 日本의 이또·구미니쓰및 소오·시게루였으며 4·5위는 이탈리아의 기안니·폴리(2시간11분19초)와 日本의 소오·다케시(2시간11분29초)가 차지했다.

◇日本 후꾸오까(福岡) 마라톤서 2시간8분18초로 우승한 로버트·드·카스텔라가 양팔을 치켜들며 우승테이프를 끊고있다.【福岡(日本) AP=聯合】

한국팀2회전에 男子배드민턴 豫選

韓國은 6일 臺北에서 벌어진 제12회 토머스·컵쟁탈 국가대항남자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아시아지역 예선 1회전에서 自由中國을 6―3으로 눌러 2회전에 진출했다고 선수단이 배드민턴협회에 알려왔다.

韓國은 李晃求·朴柱奉·金炳植의 활약으로 5단식으로 벌어진 이 대회에서 이겨, 2회전에서 泰國과 겨루게 됐다. 自由中國 6―3

大邱시민운동장 전천후競技場化

【大邱=聯合】 大邱시민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이 전천후 경기장으로 단장됐다.

서울·春川·光州에 이어 올림픽규격의 전천후 트랙이 설치된 大邱시민운동장은 지난 6월 2천7백95평의 트랙에 5억5천만원을 들여 착공, 6개월만인 5일완공했다.

그리고 트랙부분이외의 2천2백55평은 콘크리트포장을 했으며 하수도도 배수처리가 잘되도록 알루미늄으로 4백m를 설치했다.

殺害推定시간에 외상값독촉 高女人 알리바이 간접立證돼

尹甲富사건 公判

서울 龍山區 元曉路 尹甲富씨 피살사건에 대한 제5회공판이 7일상오10시30분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합의14부(재판장 金惠武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증인심문이 계속됐다.

이날공판에서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서울龍山區 小公洞지하상가 메리야스가게 점원 이현숙씨(24·여)는 『자기 장부에 의하면 지난7월22일 티셔츠를 판것은 확실하나 사간사람이나 시간은 기억할수 없다』고 진술했고 曹秀光씨(46·여)도 『7월22일로 기억되는 수요일저녁부터 高淑鍾피고인을 가게와서만나 외상값을 독촉했다』고 증언, 검찰이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시간대에 高피고인이 다른일을하고있었다는알리바이를간접적으로입증했다.

다음 공판은 12월21일상오 10시30분에 있을 예정이다.

10億臺 所藏品 木浦市기증 東洋화가 南農 許楗씨

◇南農 許楗선생

동양화가 南農 許楗선생(74·木浦市竹洞201)이 7일 희귀한 수석과 목물(木物) 및 동양화등 1천6백56점 외에 인조장롱 등 10억원상당을 木浦市에 기증했다.

許楗선생은 이날 상오10시 木浦市청에서 市장에게 이들 기증서를 전달하고 『이같은 일을 계기로 新安앞바다에서 인양된 해저보물들을 보관, 전시할수 있는 해양박물관의 설립문제가 촉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木浦=聯合】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89-6546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캐나다 외환은행
☎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KING X YORK)

태 권 도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번역·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합니다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래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기 타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졸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5 김 춘 학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 VIDEO 촬영 • wedding
• commercial • wall decore

니폰·비데오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지마구씨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HUNTS BAKERY
X-MAS 생일, 단체용 CAKE 주문
☎ : 769-4347 (던다스 AND 스카렛)

자동차 고장??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 제일식품 ■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단풍식품을 인수해서 제일식품이란 새 상호를 갖고 여러분께 봉사케 되었읍니다.
그간 해밀톤에 거주했던 관계로, 토론토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많이 없으나 오직 꾸준하게 성실히(1주일 내내 OPEN) 일할것을 교민께 약속드립니다.
김 덕 기 올림

★ 배달합니다.
★ 7 DAYS OPEN(오전10~오후10)
★ 새로 PARKING LOT마련
712 BLOOR ST. W.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 : 532-1054
아리랑하우스 옆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01

구 인

매니저구함. 주매상 : $6,000이상인 성업중인 그로서리 스토아임. 약간의 보증금 요함.
☎ 431-4474, 439-4885(MR. 김)

도나스샵에서 6일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밤11시~아침9시) 스카보로지역
☎ : 284-9325(Mrs. 남)

애기 봐주실분 구함(입주 또는 출퇴근해서)
☎ : 284-8031

성실하게 가게에서 일하실분 구함
QUEEN ST. E.
☎ : 466-3995

●오토바디샵에서 일할 경력있는 사람구함 좋은 보수와 우대함(남자 2~3명)
●사무일보실 여자분 구함. (1명)
B) 533-8507~8
R) 439-6548(Mr. 리)

매매및 양도

야마하 피아노 매매 :
4년간 사용. $3300
☎ : 881-8230

도나스 샾과 햄버거 샾 매매
(다운타운지역)
월 순이익 $15000 보증. 권리금 $295000
☎ : 531-2689 미스타 박

생선가게 매매 : ROYAL YORK & QUEENS WAY
259-1585의 JOE, OR
364-3883의 FRANK에게 연락요.

트라우트 농장 매매 : 연매상 8만달러
관심 있으면 쥬디 브라운에게 연락요
해밀턴 523-7510 D. M. ROBBINS INC.

밀크스토어를 찾으십니까?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
스탁은 은행에서 모게지 조정가능
현재는 CHAIN 스토어임
지역 : 오사와, 버링톤, 해밀톤, 피터보로, CEAFORTH, WALKERTON, KING CITY.
☎ : 624-5817 (Mrs. 차)

좋은투자기회
30년간 이륙해온 약국과 빌딩 세일 서쪽끝에있음.
우체국 포함 ☎ : 781-2560(Mr. BALIAN)

바 겐!
단돈 $15,000 다운페이로 스탁과 설비가 포함된 비지네스와 분리된 집을 살수 있읍니다.
아스킹 : $85,900 DUTTA나RICHARD·YAN 에게 연락하세요. ☎ : B)752-7575 R)499-4246

밀크스토아 매매
주매상 : $6,000~6,700 리스 : 4년반+10년옵숀
2922 EGLINGTON E. ☎ : 431-4474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849-0959, 7374~6

STORE FOR LEASE
NEW NEIGHBOURHOOD PLAZA
IN GEORGE TOWN ☎ : 749-8661

투자의 기회
브라말리아 에있는 메트로 토론토 북서쪽 100 에이커의 땅. 오락센터와 고등학교에 근접해 있음.
현재 발전지 로부터 2마일 거리에 있음.
☎ : 636-0963(6PM이후 연락바람)에이젠트 원치않음.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밀크스토아 급매(오타와)
주매상 : $5700
매네저 혹은 후렌차이스도 가능함.
☎ : 624-5817

구 혼

1939년생 남자
결혼에 실패한 가족없는 여자원함
☎ : 742-1671 Mr. 유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매매 부동산

곽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컷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시세로 매매(책임보증) ☎ B) 284-9325 R) 281-1954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전기시설·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0-8118 오 현 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식 품 점

제일식품(구 단풍식품)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에서 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주소 :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일요일 영업 : 11AM~7PM
배달도 가능 합니다.

품질좋고 값싼 삼복식품
주7일 영업(오전10시~저녁10시)
금요일은 오전10~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저녁9시 ☎ 743-8270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월

Modern Pianos
한일의 SOLOMON 피아노가 서울서 도착! 모던 피아노로 와서보고 구입하세요. ☎ : 665-5600
97NORFINCH DRIVE, DOWNSVIEW.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홍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현의상실
각종양장 마춤전문 ☎ : 769-1559

약 국

SUPER×DRUGS
☎ : 368-2746
조 남 오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 벤 토 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 259-5822, 255-8301 (R) 252-2963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749-3178 김 진 환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신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 : (R)651-9324
자동차 수리 일체 : (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인용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꽃 집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쉬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85 닌파 김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수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한 방 원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황진함)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타보로 제너랄 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이경복 회계사무소 766-5839
INCOME TAX & BOOKKEEPING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R.I.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태 권 도

손영수 태권 합기도장 :
2188 BLOOR ST. W. 사범 : 손영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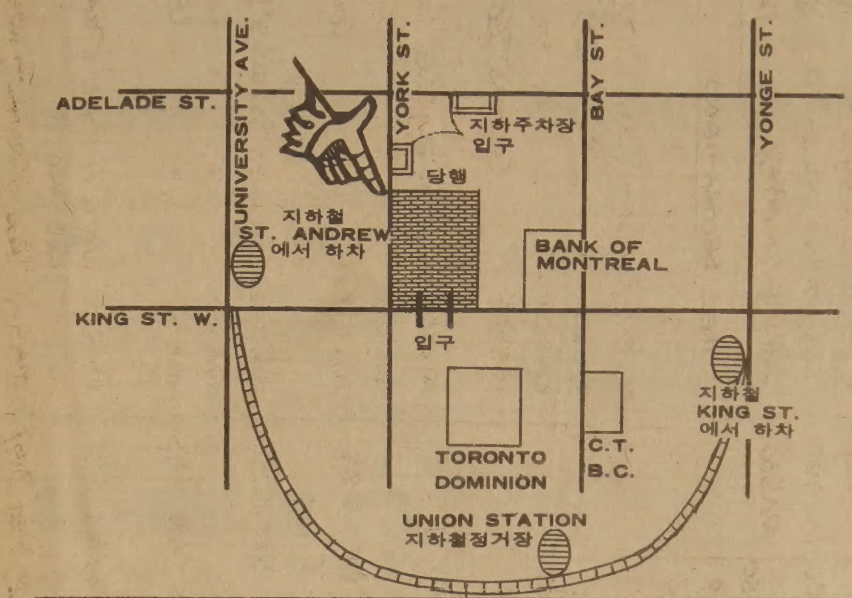
박홍수 태권도장(사범 박홍수)
719 YONGE ST
☎ : 961-710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캐나다 외환은행

약 도

지하철이용안내



업 무 내 용

1. 체킹구좌업무(개인및회사)
2. 예금업무(SAVING및TERM)
3. 적금(6개월, 1년, 1년반, 2년)
4. 송금업무(전신및 우편송금)
5. 수출입업무(신용장 개설통지 및 내고)
6. 대출업무(개인및회사)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2 FIRST CANADIAN PLACE #1140
P.O.BOX 402 TOR. ONT. M5X 1E3

전화 : 364—2890

캐나다외환은행

캐나다외환은행장 최승낙

해 명 서

최근 한국일보에 연 7차례에 걸친 씨리즈로서 게재되었던 **"여행사와 항공요금—그 실태"**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에 대하여 그 화살의 대상자의 일원이며 당사자로서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을 드리므로서 교포여러분의 올바른 인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저희들을 아껴주시는 여러 친지와 고객들로부터 속히 사실을 해명하는 기사를 내라는 고마운 권고를 받아왔으나 씨리즈가 끝나는것을 기다려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느껴져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읍니다. 여기 그 내용전반에 걸쳐 주요제목별로 아래와 같이 해명하는 바입니다.

1. 항공요금과 코미션

우리 여행사는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가입항공사회원의 전원일치로 가결된 항공운임과 각 항공사가 운행하는 관계정부의 승인을 얻은 정가요금을 항공사의 대리점으로서 고객에 판매하고 그 수고비조로 항공사로부터 주는 코미션을 받게 되있읍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여행업 법규와 항공사와의 계약서에는 정가요금을 명기하고 있어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는 면허취소를 한다는 조항이 강조되고 있읍니다. 코미션은 최하 5% 선에서 최고 13% 까지이며 월별에 따라 다르겠으나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발행되는 주간 여행사별 실적통계에 의하면 월평균 9% ~9.8% 선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일율적으로 16% 라든지 1매당 $230의 폭리를 남기고 있다는 설은 사실무근입니다.

업종에 따라 이익폭이 다르겠으나 다른 업종의 20% ~30% 에 비하면 낮은 편이라 하겠읍니다.

2. 어린이 요금

캐너더 자국기는 CP Air로서 캐너더에서 영업을 하게된 KAL은 CPA 의 요금정책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에서 영업하는 외국항공사가 KAL의 눈치를 보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CPA는 2년전부터 한국행단체요금의 어린이가격을 어른의 ⅔로 책정하고 정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여 왔으므로 KAL도 이에 따라야했으나 미국에 기지를 둔 KAL은 미주지역 요금정책에도 따라야한다는 조건으로 말미암아 어린이 요금에 혼선이 생기게되자 1980년 12월 CPA측과 KAL측의 판매책임자와 여행사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린이 요금을 일률적으로 어른의 ⅔로 통일하고 각서를 교환했던 것입니다. 그후 토론토 KAL영업소장이 경질되고 중국계시장과의 혼선이 생기게 되자 CPA와의 판매가격차이가 생기드라도 KAL의 어린이 요금을 현실화하여 어른의 ½로 조정하고 닥아오는 성수기에 대비하고 고객유치에 힘쓰자는 원칙에 합의하고 금년 4월부터 실시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어른의 ⅔를 받았던 기간은 1980년 12월부터 1981년4월까지의 어린이들의 방학도 아닌 비성수기 4개월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3. 항공요금의 시장별 목적지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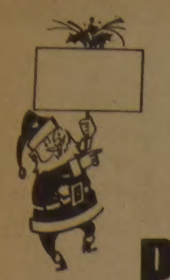
가. 중국인시장—캐너더의 자국기인 CPA의 경우 중국인사회를 주 대상으로 삼고 노선도 토론토~홍콩의 전구간을 운항하고 있읍니다. 서울은 동경에서 타항공사와 연결되므로 CPA로서는 구간운임 전액을 할애해서 지불하여야 함으로 거리가 좀 먼 홍콩보다 수입이 줄어들으므로 거리에 관계없이 홍콩과 동일한 요금을 책정하였던 것입니다. KAL도 이 방침에 따르면서 더 많은 고객유치를 위하여 한때는 서울가는것보다 더 싼 요금을 책정하기로 하였으나 한국을 비롯한 일본 또는 기타 목적지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목적지별 가격을 일원화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중국인 시장의 요금덤핑으로 말미암아 한때 KAL은 홍콩이 노선구조상 서울을 거쳐서 더 먼곳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보다 싼 요금이라는 기현상을 초래여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순이 수정되었읍니다.

나. 뉴욕시장—항공요금은 시장별 종류별로 여러가지가 개발되어있읍니다. 미국의 한국행 경쟁항공사는 KAL를 비롯하여 여러개인데 현재 서울왕복 최저운임은 US $1,075이므로 토론토출발의 경우 뉴욕왕복항공요금 $214를 합치면 캐너더달러로 환산하여 약$1,482이 됩니다. CPA도 뉴욕에 영업소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협정가격을 받아야할 입장이 있으나 뉴욕에서 토론토에 일단와서 하루밤 쉬고 이튿날 떠나는 불편이 있으므로 타항공사와 경쟁이 되지 않으므로 호텔 숙박비 부담등 혜택을 주고 최소한 영업소운영경비에 충당한다는 판매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때 한국일보의 뉴욕발 CPA요금이 싸다는 기사가 도화선이 되어 캐너더소재 CPA지점들의 강력한 반발로 현재는 캐너더시장 침범을 일체중지하게 되었읍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일보에서 지적한 중요한 제목 몇가지에 대하여 교포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항공요금과 여행사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드리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그 많은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읍니다. 소수민족인 한국교포를 주대상으로하는 한국계 여행사는 영업과 운영에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으나 교민상호관의 한국인업체육성이라는 대명제를 세우고 서로를 도움으로써 앞으로 굳건한 한국교포사회가 이룩되어 교포전체가 혜택을 보게되리라 믿읍니다. 이러한 날이 하루속히 닥아오도록 저희들 여행사는 스스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는 동시에 교민사회와의 유대강화와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하에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느라 애쓰시는 교민여러분의 충실한 여행안내자로서 그 사명을 다할것을 맹세하고 여기에 해명서를 드리는 바입니다.

1981년 12월 일

한 국 인 여 행 사 협 회



Noor Es (INTERNATIONAL)
Importers & Wholesalers
UNIT 7, 777 WARDEN AVENUE
SCARBOROUGH, ONTARIO Tel. 757-9271

TAKE A LOOK AT THIS..

SALE

PARKER · MATCHBOX® · WHITMAN · Action

MA 107	MONOPOLY GAME	RETAIL 15.89	NET 8.33
MA 113	SORRY GAME	RETAIL 10.99	NET 5.50
MA 135	DESTROY DEATH STAR	RETAIL 12.99	NET 5.00
MA 66	GRAND PRIX PLAY VILLAGE WITH CASE	RETAIL 11.99	NET 4.50
4248	TIDDLEY WINKS	RETAIL 3.99	NET 2.00
P40	SIMPLE OBJECT BINGO	3.99	NET 2.00

MA 47	MATCHBOX CARS	RETAIL 2.10	NET 1.05
MA 87	ACE DIECAST CARS	1.19	NET .49
MA 88	ACE DIECAST TRUCKS	1.39	NET .59
P41	LITTLE MISS BEAUTY SET	1.99	NET .75
P42	TUMBLE MOOSE BUGGY	6.99	NET 3.50
P43	RESCUE COPTER	3.99	NET 2.00
P44	BATTERY ACTION TANK	6.99	NET 3.50

Bakeking Foilware (ALCAN)
P45 DISPLAY CONTAINING 24 EACH OF 3 SIZE FOIL ROASTERS
RETAIL VALUE $179.28 DISCOUNT: LESS 40 + 12½%

Easy Clean Non-Stick
P46 DISPLAY CONTAINING 12 EACH OF 6 TYPE NON-STICK TINWARE
RETAIL VALUE $231.36 DISCOUNT: LESS 40 + 12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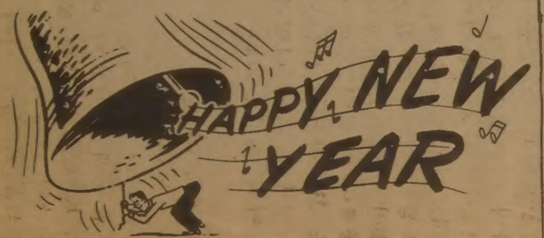
PHILIPS

FESTIVE COLOURED BULB DEAL.
ASSORTMENT CONTAINS:–
20 RED 60W
20 BLUE 60W
20 GREEN 60W
REGULAR NET 89¢
SPECIAL 55¢

STOCKING STUFFERS

P47	JIFFY COLOR TRICKS	259 – 75¢
P48	CRAYOLA COLOR RUBS	399 – 75¢
P49	SESAME STREET POSTERS	249 – 50¢
2203	SHEAFFER KALEIDOSCOPE PENS	399 – 2.00

Sellotape
#1405 EX800" RETAIL 1.15 NET 58¢
INVISIBLE MAGIC TAPE



WESTCLOX
12 for 11 on

DEAL A:– PAY FOR ELEVEN – RECIEVE 12 !!
ASSORTMENT CONTAINS:–
1 BIG BEN
1 BABY BEN
2 CHANTILLY
2 NEUCHATEL
2 NAP
1 HUSTLER
2 SILVER BELL
1 GOOD MORNING FREE

DEAL B:–
TRAVEL CLOCK ASSORTMENT:–
4 TOURINO
4 TRAVINO
3 TRAVALALARM
1 TOURINO FREE

DEAL C:–
QUARTZ CLOCK DEAL:– EXTRA 20% DISCOUNT ON ASSORTMENT OF 3
1 ASPEN – 1 TREMBLANT – 1 ISOTRONIC

CHRISTMAS PARTY GADGETS DEAL
CONTAINS:–
12 WINE CORKSCREWS
12 NUTCRACKERS
12 WAITER CORKSCREWS
12 BOTTLE & CAN OPENERS
DISCOUNT:– LESS 40 + 12½%

토·일요일
오전9시~오후1시
OPEN

Noor Es (INTERNATIONAL)
Importers & Wholesalers
UNIT 7, 777 WARDEN AVENUE
SCARBOROUGH ONTARIO Tel. 757-9271

Special Christmas Sale

XMAS WRAPPING PAPER

		Retail	Net
MA 802	SINGLE JUMBO ROLL	1.99	.99
MA 803	SINGLE FOIL JUMBO ROLL	2.25	1.10
MA 805	3 ROLL PACK	2.29	1.15
MA 807	4 ROLL PACK	2.49	1.25
MA 808	5 ROLL PACK	2.99	1.50
MA 811	10 SHEETS FLAT WRAP	1.49	.65

* MA 815 1.49 – .70¢
25 JEWEL BOW BAG
MA 817 1.89 – .95¢
CURL RIBBON DRUM 200'
* MA 820 .75 – .40
XMAS SEALS BOOK
* MA 819 1.49 – .75
JUMBO TAG PACK
* MA 883 1.59 – .80
XMAS PLASTIC TABLE COVERS
* MA 879 2.59 – 1.30
TABLEWARE ENSEMBLE
* MA 948 4.99 – 2.50
XMAS CRACKERS 8½" x 8
* MA 949 1.25 – .59
XMAS CORSAGES

CHRISTMAS LIGHT SETS
MA 831
MINI 20 LITE SET NET 1.65
MA 836
INDOOR 15 SET SPARKLE NET 5.25
MA 837
INDOOR 15 SET GLO NET 5.25
MA 839
OUTDOOR 15 SET SPARKLE NET 5.95
MA 840
OUTDOOR 15 SET GLO NET 5.95
MA 857
11 LITE STAR TREE TOP NET 3.67

CHRISTMAS GREETING CARDS			RETAIL	COST
SOLID PACK				
MA 821	CHARMERS	18's	275	125
MA 822	LOVABLES	20's	350	140
ASSORTED PACK				
MA 823	KIDDIE CARDS	12's	350	135
MA 825	WINTER MAGIC	14's	300	120
MA 826	VALU PAC	32's	495	200
MA 827	THOUGHTS OF CHRISTMAS	18's	375	150
MA 828	CHRISTMAS RHAPSODY	18's	495	200
MA 829	CHRISTMAS DELIGHTS	18's	495	200
MA 830	SHRINK WRAPPED	12's	169	85

TREE DECORATIONS

		RETAIL	COST
MA 901	ICICLES SILVER 200	59	29
MA 902	" " 300	69	33
MA 903	" " 500	85	39
MA 904	" COLOURS 250	89	43
MA 905	GARLANDS 1PLY 20'x3" SILVER	159	75
MA 906	" GOLD	159	75
MA 907	" COLOURS	159	75
MA 908	GARLANDS 2PLY 20'x3" SILVER	259	130
MA 909	" GOLD	259	130
MA 910	" COLOURS	259	130
MA 912	MAKE IT SNOW SPRAY 10oz WHITE	199	100
MA 914	TREE ORNAMENT NOVELTIES	149	75

"그이가 걸쳐준
밍크의 따스함 속에서
나만이 짜증스러웠던 날들,
울어버렸던 날들이
웃어버린날로 변했읍니다.

12월9일~12월30 일까지
전품목40% 가격인하.
크리스마스 밍크 대매출.

밍크 Sale

40%* OFF

밍크·라쿤•마스크랏트•비버•페르샨람•마모드
•여우털•각종모피제품류
•남자용 쎄므반코트•런던 포그바바리30% OFF

크리스마스 !

유명백화점,일류모피상점을 찾아다녀 보시면 보실수록 모피제품 선택의 어려움이 더욱 커집니다. 원피와 제품감별의 어려움, 디자인에서 제품과정에 이르는 불합리성, 일정제품에 대한 가격의 차이등 보이지않는 모피제품만이 가지고있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금번 대매출기간을 연장하여"최저가격에 대한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자신있게 12월 말까지 대매출을 실시하오며, 모피전문가를 모시어 취향에맞는 디자인,원하시는 싸이즈대로 주문제품을 완전 40% OFF해 드리겠사오니 이번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캐나다 최상품의 밍크제품을 최저가격"으로 장만하시어 연로하신 어머님께,사랑하는 아내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모피조끼(VEST)

가게 안에서 따뜻하게
간편하게 입을수 있는
모피조끼가 준비되었음.
완전제품
주문에 의한 제품.

●모든 모피제품은 1년동안 무료보험,무료보관하여 드림.

빅 세븐선물센타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533-7966

영업시간 : (월~토)아침10시~밤11시30분 (일요일)12월13일과20일뿐, 12시~밤9시

카나다최고품질의 "마제스틱"밍크원단을 사용한 12만달러 상당의제품확보.